



7월의 테마 토크

인큐베이팅을 넘어 세계로

2000년대 초반부터 생기기 시작한 신진 예술가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은 공공과 민간 등 다양한 영역에서 멘토링, 워크숍, 쇼케이스, 국제교류 등 단계별로 세분화돼 진행되고 있다.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을 통해 성장한 예술가가 관련 분야에서 활약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건 지원기관 입장에서 보람을 넘어 설레고 또 흥분되는 일이다. 다들 어찌 않은 날것 그대로의 젊은 예술가들이 이런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을 통해 예술 세계를 공고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해나가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사람과 사람

팟캐스트 <동대문> 녹음한 배우 문성근

‘메모리인(人)서울프로젝트’는 지난해부터 ‘서울을 기억하는 세 가지 방법’이라는 주제로 특별한 프로젝트들을 진행하고 있다. 이 중 ‘서울의 추억, 동대문’에서는 옛 동대문운동장에 대한 시민의 기억을 수집했고, 이를 엮어 지난 5월 팟캐스트 <동대문>으로 공개했다. 평범한 시민들의 이야기는 청취자들로부터 잔잔한 호응을 얻었는데, 여기에는 이야기의 진솔함을 더하는 내레이션이 한몫했다. 따뜻한 음성의 주인공은 배우 문성근이다.



진실 혹은 대담

메모리인(人)서울프로젝트 ‘서울의 아픔, 삼풍백화점’

올해 6월 29일은 삼풍백화점 붕괴사건이 발생한 지 20년이 되는 날이다. 서울문화재단의 메모리인(人)서울프로젝트는 ‘서울의 아픔, 삼풍백화점’이라는 주제로 지난해부터 삼풍백화점 사건과 관련한 시민의 기록을 수집하고, 이를 포털 사이트 다음(Daum) 뉴스펀딩 콘텐츠 연재와 전시 등으로 이어가고 있다. 아픔을 기억하고 극복하고자 하는 이번 프로젝트의 참여자들이 모여 진행 과정과 의미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쟁점2

인디스페이스와 부산국제영화제 지원금 삭감 논란

지난해 부산국제영화제와 부산시의 갈등은 ‘꺼지지 않은 불씨’에 불과했다. 영화진흥위원회가 민간 독립영화 전용관인 인디스페이스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부산국제영화제의 예산 규모 역시 예년의 절반 수준으로 삭감하며 영화계 탄압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영화 진흥’과는 반대 방향으로 향하는 영진위의 행보가 우려스럽다.

contents

서울문화재단

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서울문화재단 「문화+서울」

발행처 (재)서울문화재단 발행인 조선희

편집기획 서울문화재단 홍보팀 | 오니트(주)

디자인 오니트(주) 사진 249 스튜디오(김창제)

(재)서울문화재단 서울시 동대문구 청계천로 517

전화 02-3290-7000 팩스 02-6008-7347

홈페이지 www.sfac.or.kr

발행일 2015년 6월 26일 등록일 2005년 6월 8일

(재)서울문화재단에서 발간하는 월간지 「문화+서울」은 서울에 숨어 있는 문화 욕구와 정보가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예술가들의 창조적 힘과 시민들의 일상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고자 합니다.

「문화+서울」에 실린 글과 사진은 (재)서울문화재단의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없으며, 「문화+서울」에 실린 기사는 모두 필자 개인의 의견을 따른 것입니다.

02 커버 스토리 | 이달의 표지 작가 장은의

테마 토크

인큐베이팅을 넘어 세계로

- 06 문화예술계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의미 | 예술가의 실질적 결핍을 들여다볼 것
- 08 인큐베이팅의 단계별 진화 | 새로운 예술, 발견과 발굴의 미학
- 12 서울문화재단 예술 공간별 아티스트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 예술가의, 예술가를 위한 9개의 플랫폼
- 18 뉴미디어 아트그룹 하이브 | '어떻게, 왜'를 지켜 이야기를 만든다는 것

사람과 사람

- 22 팟캐스트 <동대문> 녹음한 배우 문성근 | "부끄러운 역사도 함께 기억해야"
- 26 (주)디씨엘 김용신 대표이사 | 예술과 기업의 친밀한 파트너십을 꿈꾸다
- 28 연극 <햇빛샤워> 선보이는 극작가·연출가 장우재 | 다시 돌아와 무대 앞에 선 이야기꾼

- 32 진실 혹은 대답 | 메모리인(人)서울프로젝트 '서울의 아픔, 삼풍백화점'을 말하다
- 38 예술가의 밥그릇 | 건축사진가 진효숙
- 40 서울 할나 | 텅 빈 서울

이슈&토픽

- 42 쟁점 1 | 초등생의 '잔혹동시' 논란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
- 44 쟁점 2 | 인디스페이스와 부산국제영화제 지원금 삭감 논란
- 46 화제 | 2015 서울예술교육포럼 '노년의 삶과 문화예술교육'

48 아트 캠페인 '바람난 미술'

공간, 공감

- 50 공간 1 | 연희문학창작촌 '이웃문학다방'
- 52 공간 2 | 젊은 예술가들의 질문이 모이는 프로젝트 공간 '구탁소'
- 54 공간 1 | 연극 <햇빛샤워>와 <먼 그대>
- 56 공간 2 | 전시 <은밀하게 황홀하게>와 <열은 공기 속으로(Into thin air)>
- 58 공간 3 | 책 <여성의 남성성>과 <젠더 무법자>

60 예술적 상담소 | 문학치료가 되기 위해선?

Soul of Seoul

- 62 메모리 인 서울 | '특별한 추억'을 새겨준 서울의 극장들
- 64 서울 단상 | 영화평론가 유운성의 1995년 신림동 미림극장
- 66 이명석의 썰(說) | 산업으로 성장 중인 '키덜트' 문화
- 68 신지수의 음악 정원으로 | 채소 오케스트라, 얼음 악기, 3D 프린터 바이올린
- 70 서울 건축 읽기 | 낙산 이화-충신동 주거군락지

72 연극인 이상홍의 연극 그리기 | 연극 <푸르른 날에>와 <서안화차>

7월의 서울문화매뉴얼

- 74 7월 Calendar
- 84 편집 후기



(전시 전경, 왼쪽부터) 〈청소 1〉 〈청소 2〉 〈청소 3〉
캔버스에 오일 | 각각 53×45.5cm, 53×40.9cm, 53×40.9cm | 2014

이달의 표지 작가 장은의

“표지작인 〈따뜻한 사탕〉은 제목 그대로 사탕을 그린 것입니다. 색도 없고 완벽하지도 않은, ‘둥그란’이 아닌 ‘둥그스름한’ 형태의 사탕들이 조금 더 큰 원 안에 서로 조금씩만 맞닿아 웅기종기 모여 있는 모습이 조화롭고 따뜻해 보였습니다. 그냥 사탕이지만 이들은 그 순간 제게 누군가와 혹은 어떤 것과 관계하는 방식의 이상적인 모습을 연상시킨 것 같습니다. 원의 형태를 가진 것들은 어딘지 근원적인 것을 떠올리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간 영상 설치로 분류되는 작업을 주로 해왔습니다. 빛, 그림자, 바람 등 비물질적이고 고정되지 않는 재료에 매력을 느꼈고, 그러다보니 영상기기를 주재료로 사용하게 되었지요. 그런데 작품을 모아놓고 보니 정작 내용은 그림에 관한 생각이 담긴 작업이 많았습니다. 그림을 그리게 된 것은 제게 실험이라기보다 자연스러운 마음의 변화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이유로 작년 개인전을 준비하며 처음으로 그림을 그리게 됐습니다. 그 그림들은 평소에 찍은 사진을 정작하게 따라 그린 것들이었습니다. 토대가 된 사진들은 어떤 작업적 완성에 대한 의도 없이, 평소에 아름답다고

생각한 순간을 찍은 것으로 그저 사소한 일상의 모습들이었고, 한 장 한 장 저의 소소한 기억이 담긴 것들이었습니다. 어떤 장치도 없이 그저 따라 그린 그림들이어서 그림은 사진과 매우 유사한 모습이었는데, 그림에도 불구하고 사진과는 매우 다른 감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굳이 그림으로 옮기는 것 역시 펍 의미 있는 일이었고요. 별것 아닌 듯한 일상 사진이지만 그림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수많은 생각과 다시 만나게 되고 기억은 깊어졌습니다.

저는 사진이 아무리 환상적으로 보이는 세계를 포착했다 하더라도 현실의 영역이라고 느끼는 반면, 그림은 일상적인 사진을 그대로 재현했다 해도 환상의 영역에 있다는 느낌을 받는데, 사진과 그림 간의 유사성과 차이가 매우 흥미롭게 여겨졌고 그 미묘한 간극을 실험해보고 싶었습니다. 사소한 현실의 순간들을 그림-환상의 영역으로 옮겼다는 생각에서 지난해 이 작품들로 진행한 전시 타이틀도 ‘사소한 환상’이라고 붙였습니다.”

“작품을 통해 제가 건네고자 하는 이야기는 ‘작은 생활’에 관한 것입니다. 별것 아닌 것, 작은 것, 연약한 것, 사라지는 것들 중에 멋진 것, 강한 것, 큰 것, 영속적인 것들이 존재할 것이라는 믿음(?)을 작품을 통해 이야기로 풀어가고 싶습니다.

그림만큼 고스란히 마음의 상태가 드러나는 매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식은 손님이라고 했다〉
캔버스에 오일 | 53×45.5cm | 2014



〈풍요〉
캔버스에 오일 | 53×40.9cm | 2014

그래서 작품을 할 때 '거짓되지 말자'고 늘 다짐하곤 합니다. 그림에는 작가의 무의식 영역까지 드러나게 되어서 기만하지 않거나 가짜가 되지 않기도 매우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요즘 제가 가장 고민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생활이 작업이 되고 작업이 생활이 될 수 있을까' 입니다. 지금의 작업은 매 순간을 기억하고 기록하고 소유하고 싶은 욕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일상을 좀 더 자세히 관찰하고 느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픈 마음을 가져봅니다. 관념적이지 않고 좀 더 실천적이며, 솔직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늘 곁에 있을 것이라고 믿어온 존재가 사라졌을 때, 살면서 생기는 매 순간의 이야기들이 소중하다는 생각을 했고, 이 생각을 실천하며 살고 싶습니다. 욕심이 있다면 오래 보고 싶은 그림, 생각하게 하는 힘이 있는 그림, 공감할 수 있는 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

이태원에 새로 생긴 공간에서 9월에 개인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최근 에도 은사님의 기획으로 평소 좋아하던 작가와 흥미로운 타이틀의 전시를 하게 돼 기쁜 마음으로 새로이 그림을 그렸는데, 창피한 부분들이 나타나는 걸 보게 되어서 참 곤란했더랬습니다. 언제나 초심을 잃지 않도록, 매개자로서 본분에 충실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정리}

표지작
〈따뜻한 사람〉
캔버스에 오일 | 53×45.5cm | 2014



장은의

2015 서울문화재단 시각예술분야 지원 작가. 이화여대 서양화과를 졸업하고 독일 함부르크조형예술학교 석사과정을 수석으로 마쳤다. 일상의 작은 순간으로부터 의미를 찾고 이어나가며, 그 매개로 영상과 사진, 회화 작업을 오가며 작품활동을 한다. 개인전 〈진정한 사랑〉(2013), 〈사소한 환상〉(2014) 외 다수 그룹전 및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정리 이아림



인큐베이팅을 넘어 세계로

1999년 '공연법' 전면 개정으로 사전심의제가 폐지되고, 공연장 설립이 허가제에서 사후등록제로 전환되면서 억눌려 있던 예술활동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그리고 당시 20~30대 젊은 예술가들이 이런 변화를 주도하면서, 신진 예술가에 대한 지원 제도가 공공과 민간에서 동시에 생겨나기 시작했다. 기존 지원사업이 '작품'에 대한 프로젝트성 지원이었다면, 신진 예술가들을 위한 지원은 기본적으로 '사람'을 향한다는 데 차이가 있다. 2000년대 초반부터 생기기 시작한 이런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은 현재 멘토링, 워크숍, 쇼케이스, 국제교류 등 단계별로 세분화돼 진행되고 있다. 서울문화재단은 2005년 '나트(NArT, New Artist Trend)'를 시작으로 젊은 예술가를 지원하기 시작했는데, 2009년 창작공간을 조성하면서 공간을 통한 간접지원이 더해져 재단만의 지원 방식을 만들어갔다. 올해는 장르별 지원사업이 창작공간으로 이관되어 공간별 특화된 지원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을 통해 성장한 예술가가 관련 분야에서 활약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건 지원기관 입장에서 보람을 넘어 설레고 또 흥분되는 일이다. 다듬어지지 않은 날것 그대로의 젊은 예술가들이 이런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을 통해 예술 세계를 공고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해나가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글 이정연 서울문화재단 홍보팀 차장 | 그림 손민정



DO IT!

FIGHTING!

문화예술계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의미

예술가의 실질적 결핍을 들여다볼 것

국내에서도 공공기관과 각 지자체 및 기업에서 예술가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시도하고 있다. 자금과 전문적인 기획력 및 네트워크를 투입해 예술가 성장의 토대를 다지고자 하는 움직임은 긍정적이다. 아직 보완해야 할 과제가 많은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술가의 ‘실질적인 결핍’은 무엇인지,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반영하는 것이다.



‘품다’ 혹은 ‘배양하다’(Incubate)와 결을 공유하는 인큐베이팅(Incubating)은 말 그대로 잠재적 역량과 발전 가능성을 지닌 대상을 품고 배양해 효과적으로 부화 및 성장할 수 있도록 구비된 요건을 뜻한다. 따라서 인큐베이팅 프로그램(Incubating program)은 인큐베이팅을 구동시키기 위한 어떤 구체적인 내외적 실현-태(態)를 지정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발전 지속적일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은 원만한 성장을 위해 효과적이면서 적절히 통제된 환경

을 교육적이고 계획적으로 또 순차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쓰임 빈도 면에서 다분히 경제적인 용어일 수 있지만 최근엔 문화예술계에서도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활성화 역시 두드러진다. 아이디어는 넘치지만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기획력이나 자금력, 물리적 외계(外界) 측면에서 한계를 지닌 예술가들의 실질적 결핍을 보완하고, 그들이 처한 문제를 해결해 어엿한 작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한다는 개념과 목적이 인큐베이팅의 본질과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다양한 시행 주체들이 구축 시작한 예술가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국내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은 다양한 형태로 가동 중이다. 대표적인 곳이 서울문화재단 창작공간인데, 2009년 폐쇄된 인쇄공장을 개조해 예술가들의 창작 산실로 자리 잡은 금천예술공장을 비롯해, 소형 공방 40곳을 입주시켜 침체된 신당중앙시장 지하상가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신당창작아케이드 등이 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더불어 장애인들의 창작열을 극대화하는 데 중요한 버팀목이 되고 있는 잠실창작스튜디오나 지역적 특성을 예술과 조화롭게 버무린 문래예술공장도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을 통해 예술가들의 양적, 질적 발전을 도모하고 있는 예로 꼽힌다.

이들 창작공간 다수는 젊은 예술가들에게 작가로서 성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요소를 제공하고 있다. 대학로문화활성화 지원사업 <대학로 우수작품 인큐베이팅 프로젝트>처럼 장리적 외형도 좁지 않은 데다, 공간 및 시설, 지원금, 오픈 스튜디오, 매칭 프로그램 등 빠르게 변화하는 문화예술 지형도에 걸맞게 예술가들을 대상으로 한 여러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특히 국내외 다양한 네트워크를 활용해 예술적 완성도를 끌어올리거나 사회안착률을 높이려는 데 주력하고 있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또한 문화예술계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에 많은 관심을 쏟고 있다. 일례로 올해로 두 번째를 맞은 ‘예술인파견지원사업’의 경우 예술인과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가 있는 기관-기업-지역을 연결해 실질적, 경제적 개선을 도모하고 활동비를 지원해 예술가가 자신의 예술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으로 인기를 얻고 있다. ‘예술인파견지원사업’은 단순한 기금지원형, 자발

적 생존형 지원을 벗어나 예술인이 사회구조 속으로 들어가 기업문화와 지역사회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실험이라는 점이 특색이다. 즉, 예술가가 자신의 역량을 펼치는 과정에서 예술의 역할에 대해 되묻고, 문화예술이 사회 전반에 투영되어 사회적, 경제적 가치를 제고시키고 있다는 것이 흥미로운 지점인 셈이다.

인큐베이팅의 개념과 구조, 안착을 이야기할 때 비교적 초기에 속하는 1990년대와는 달리 지금은 각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문화예술계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의 전략적 수용 역시 드물지 않다. ‘대구예술발전소’는 창작 인큐베이팅 사업인 ‘텐 토픽 프로젝트’를 포함해 지금까지의 공모전과는 달리 과제를 주고 그 결과를 전시·평가하는 방법을 도입한 ‘인큐베이팅 공모전’을 2015년 처음으로 진행해 주목받았으며, ‘춘천시문화재단’은 청년작가 인큐베이팅의 산실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창작공간 아르쥘 운영을 비롯, 시민 제안 프로젝트를 인큐베이팅하는 전문가 ‘멘토스쿨’ 등을 시행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이외에도 안산, 대구, 대전, 부산 등 여러 지자체가 각 창작공간이나 산하문화예술기관을 중심으로 문화예술계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운영에 발 벗고 나서고 있다.

인문학적 기반 구축,

재교육 및 연계성 프로그램 등 보완해야

기업과 기관의 참여도 눈에 띈다. 두산아트센터의 ‘두산아트랩’, LG아트홀의 ‘링키지 프로젝트’를 위시한 CJ문화재단, 이랜드문화재단 같은 기업들과 예술경영지원센터, 한국공연예술센터 등의 기관에서도 장르를 불문한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하나같이 신인 작가 발굴과 작품 개발을 지원하는 제도로 미래 가치를 담보하는 산과 역할을 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문제는 무엇을 제공해 어떤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나인데 아직까진 획일적이거나 대동소이한 프로그램 일색이라는 점이 한계다. 대개의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은 지원금, 창작공간 지원, 교육 인적자원 등에 맞춰져 있으며, 개념 또한 신진 예술 인력 육성, 창작 여건 개선, 예술 창조 역량 강화 등으로 고착되어 있다.

시각예술 분야의 경우 창작활동을 위한 시설 지원(공간 포함), 전시 지원, 국제 워크숍 및 비평가 매칭 프로그램-멘토 프로그램 같은 인적자원 역량 강화 프로그램 지원, 미션플레이, 커뮤니티 아트 등의 지역 기반 프로그램

지원, 창작지원금 지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색깔이나 형식 면에서 고만고만한 실정이다. 음악이나 공연계의 사례도 거의 유사해 무대, 스튜디오, 녹음실, 연습실 등의 창작공간 시설 지원을 중심으로 조명, 음향, 무대, 영상 등의 직능교육 위주로 편성되어 있다.

여기엔 동시대 무엇보다 중요한 인문학적 기반 구축(학제 간, 장르 간 교류를 위한 세미나, 콘퍼런스 등)이나 예술행정 및 문화행정, 예술경영 교육환경 지원은 누락되어 있거나 적극성이 낮은 편이며, 비평가와 기획자 등의 매개자를 위한 프로그램은 상당히 취약한 형편이다.

특히 일부 기관에서 시행 중이긴 하나, 예술가 재교육 프로그램, 행정기관 및 기업과의 연계성 프로그램 지원과 연구 등은 여전히 미흡하다. 더구나 기획, 홍보, 회계(캐피털), 저술-출판, 문화행정 등 흔히 예술창작과 무관하다 여겨지는 분야에 대한 관심이 저조하고, 각각의 공간과 기관에서의 자율적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은 활성화되어 있는 반면 이를 통합하고 종합적,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전략적 프레임 혹은 기제 시스템은 찾아보기 힘들다. 그렇기에 도시-지역별 네트워크, 예술 향유층과 비향유층 간 접목에 관한 클러스터(Cluster) 조성 사례는 발견하기 쉽지 않다. 그리고 거의 모든 프로그램이 단기적 성과에 치우쳐 공간을 이탈하면 더 이상 혜택을 기대하기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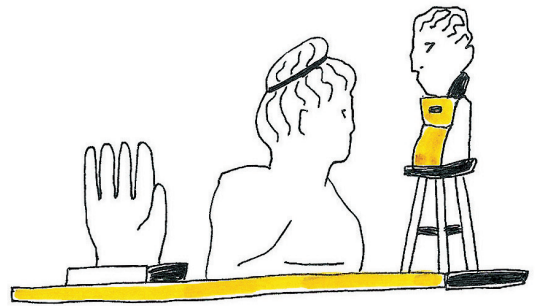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시설 중심에서 프로그램 중심으로의 이동은 인큐베이팅의 의미와 역할을 강조하도록 만든다. 안팎에 걸쳐 다층적으로 이뤄지는 현장전문가의 영입과 개입은 바람직한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의 결과를 예상토록 유도한다. 다만 과정이 아닌 결과를 지향하는 프로그램, 자연발생적이기보다 상부 하달식 프로그램의 개발, 탈공간 이후에 대한 무보장(사후지원제도 미비), 직업 전환과 고용창출로까지 이어지도록 하는 교량 역할에 대한 관심 부족, 공히 동일하다 해도 과언이 아닌 프로그램의 획일성 등은 향후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의 역할과 방향을 고민할 때 재고해야 할 점이라 해도 그치지 않는다. ^{2017년}

글 **홍경한** 미술평론가, 시각예술저널 〈아티클(article)〉 편집장, 월간 〈미술세계〉와 월간 〈퍼블릭아트〉 편집장을 지냈고, 국립현대미술관 자문위원, 두산그룹 두산연강예술상 심의위원, 서울시립미술관 전시평가위원, 서울시 미술관승급 심의위원 등을 역임했다. 현재 〈주간경향〉을 비롯한 여러 매체에 기고하고 있으며, 대림문화재단 사외이사, 부산비엔날레 집행위원, KBS라디오 〈문화한마당〉, KBS2TV 〈아침〉 등에 고정 출연하고 있다.
그림 **손민정**

인큐베이팅의 단계별 진화

새로운 예술, 발견과 발굴의 미학

예술가 발굴과 작품 창작을 지원하는 제도 운영이 점차 활발해지고 있다. 사실 이러한 시스템이 체계를 갖추기 시작한 지는 불과 10년이 되지 않았다. 프로젝트 지원에서 사람(창작자)을 지원하는 형태로, 직접지원에서 공간, 교육, 멘토링 등 간접지원으로 변화하는 경향으로부터 인큐베이팅 시스템은 예술가의 '성장 과정' 자체로 초점이 이동함을 알 수 있다. 장기적으로 볼 때 인큐베이팅은 과정과 성취 목표 모두에 포커스를 맞출 수 있어야 한다.



1999년, 예술 체제의 변화와 신진 예술가 등장
국내 예술정책에 '인큐베이팅'형 예술지원제도가 처음 도입된 것은 1990년대 후반이다. 당시 한국문화예술진흥원(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소관의 신진예술가 지원사업이 바로 그 효시라고 할 수 있다. 1990년대 후반 모습을 드러낸 신진 예술가 대상의 인큐베이팅형 지원제도는 우리 예술 현장 및 예술정책의 중요한 전환기적 이슈와 맞물려 있다. 1999년 '사전심의제도' 철폐를 전후로 한 예술 현장의 근본적 변화가 정책적으로 반영된 결과임과 동시에 '예술 작품'(예술창작 결과물) 중심의 전통적인 예술지원제도에 '예술가'(사람) 중심의 지원 방식이 새롭게 시도되었다는 점이다.

1999년까지 문화예술계에 존재했던 사전심의제도의 핵심적 요소는 예술단체 설립 허가제도와 예술표현활동(창작내용)에 대한 사전 검열제도였다. 예술단체로 활동하려면 구청이나 관할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했고, 어떤 내용이 예술적으로 표현 가능한지를 국가기관에서 결정해왔던 것이다. 예술에 대한 제도적 통제와 검열 시스템은 급진적이거나 전위적인 예술활동을 원천적으로 차단했으며, 결과적으로 체제 순응적인 기성 예술활동 위주로 예술계가 유지되도록 작동한 셈이다. 그러던 중 1999년 2월, '공연법' 전면 개정 등의 과정을 거쳐 우리 문화예술계의 압적 존재였던 사전심의제도가 비로소 철폐되었다. 이후 우리 예술계에 그동안 제도적으로 통제되었던 새롭고 낯설고 다양한 종류의 예술활동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예술의 확대와 예술 현장의 재편을 추동하게 된다. 바야흐로 '새롭고 낯선' 예술에 대한 집합적인 움직임에 일조했던 당시 20~30대의 예술가들은 '신진 예술가'로 호명되기 시작한다. 요컨대, 사전심의제도 철폐를 기점으로 한 1999년 예술 체제의 변화는 신진 예술가들과 새로운 예술의 등장을 촉발한 중요한 전환기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배경으로, 신진 예술가들을 대상으로 한 인큐베이팅형 지원제도가 예술정책의 주요 내용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신진 예술가와 새로운 예술,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의 도입과 전개

신진 예술가와 새로운 예술에 대한 주목과 관심은 예술 장르 전분야에 걸쳐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되었으나, 그중에서도 미술 장르의 경우에는 민간 부문이 주도한 '대안공간'

이 중요한 기폭제 역할을 담당했다. 예술 체제의 변화 시기와 맞물리는 1999년을 기점으로 사루비아다방, 루프, 폴 등의 1세대 대안공간이 등장해, 제도권 미술의 대안적 플랫폼으로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연극에서는 실험연극의 산실, '해화동 1번지'를 통해 젊은 연출가들의 발굴과 새로운 연극미학에 대한 시도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해화동 1번지는 1994년 이윤택·김아라·기국서 등의 연출가 주도로 설립되었고, 1998년 이성열·박근형·김광보·최용훈·손정우 등 30대 중심의 2기 동인이 결성된 이후 본격적으로 차세대 연극의 요람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더불어 1998년 '사전심의제 철폐'라는 슬로건을 전면에 내걸고 문화예술 전 장르의 젊은 예술가, 기획자들이 함께 참여했던 독립예술제(현 서울프린지페스티벌) 역시 신진 예술가들의 자율적 인큐베이팅 플랫폼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신진 예술가와 새로운 예술이 주목받기 시작한 1999년 전후, 초기 인큐베이팅형 프로그램은 민간 부문의 공간·축제를 매개로 한 자율적 인큐베이팅 플랫폼 유형과 한 국문화예술진흥원의 지원금을 중심으로 한 신진예술가지원제도 도입 등으로 특징지어질 수 있다. 초기적 양상을 지나 민간·공공 부문에서 다양한 형식의 인큐베이팅형 지원 프로그램들이 시도되었는데, 그중 예술의전당 '자유젊은 연극시리즈', 아르코예술극장의 '봄 작가 겨울 무대', 두산아트센터의 '젊은 창작자 육성 프로그램'의 사례를 조금 더 살펴해보도록 하겠다.

2005년 예술의전당에서는 공모를 통해 젊은 예술가들에게 작품 제작의 기회를 주는 '자유젊은연극시리즈'를 시작했다. 기존 지원금 중심의 단선적 지원 체계와 달리, 예술의전당은 실연 방식으로 심사(대본, 쇼케이스, 최종으로 선정된 작가에게 제작비와 공연장 대관을 제공)하며 제작비와 공연장을 통합 지원하는 방식을 처음 도입하게 된 것이다. 2005년 첫 공모에 당선된 서재형 연출가는 당선작인 <왕세자 실종사건>을 그해 10월 예술의전당 자유소극장에 올리며 주목받는 연출가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한편 2008년부터 시작된 <봄 작가, 겨울 무대>는 한국 공연예술센터에서 시작한 차세대 예술가 육성 및 발굴사업이다. 매년 신춘문에 희곡 부문에 당선된 신진 극작가들과 대학로 현역 연출가들을 매칭해 협업 방식으로 공연을 제작, 그해 겨울 아르코예술극장 무대에 올리는 방식이다.

지금까지 계속되는 독창적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신춘문에 당선 극작가들은 단막극으로 입문하게 되지만, 실제 상연되는 연극 작품의 대부분은 장막극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신진 극작가들이 단막극적 재능을 장막극 집필 단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연출가와 의 협업을 통해 무대 상연 과정까지 참여할 수 있게 이끌어 주는 속이 짝 찬 지원제도다.

비슷한 시기에 두산아트센터는 ‘젊은 창작자 육성’을 미션으로 제시하며 여러 가지 방식의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을 종합적으로 지원했다. 그중 ‘창작자 육성 프로그램’은 공모 방식이 아닌 기획발굴형 프로그램으로, 공공부문의 인큐베이팅 지원제도가 대부분 공모를 통해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방식인 데 반해, 예술 현장을 꾸준히 관찰해 직접 예술가를 발굴, 최소 3년 이상 제작비, 멘토링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동시에 운영되고 있는 <두산아트랩>은 신진 예술가들의 창작 아이디어를 개발해 워크숍, 쇼케이스까지 지원하는 R&D형 지원 프로그램이며, ‘연강예술상’은 만 40세 이하 예술인 중 공연과 미술 분야에서 가능성이 높은 예술가들에게 앞으로의 활동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상금을 제공하는 시상제 방식을 택하고 있다. 두산아트센터의 이러한 입체적 인큐베이팅 지원 프로그램은 특히 예술 현장의 신진 예술가들에게 매력적인 프로그램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많은 예술가가 발굴된 바 있는 대표적인 민간 지원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3단계로 변화·발전된 서울문화재단의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문화예술계 내외부의 변화 양상과 맞물려 서울문화재단 역시 신진 예술가 및 유망 예술을 대상으로 한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운영해오고 있는데, 편의상 서울문화재단의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은 세 단계의 변화·발전 과정을 거쳐왔다고 정리해볼 수 있다.

그 첫 번째 단계는 2005년 도입된 젊은 예술가 지원 프로그램, ‘나트(NaT, New Artist Trend)’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3개 분야로, 연극은 연출가, 무용은 안무가, 미술은 작가 및 큐레이터를 대상으로 지원했다. 당시 ‘나트’의 특징은 쇼케이스 형식의 실연 심사를 통해 사후 지원 방식을 취한 것인데, 이전 지원사업이 서류심사를 통해 지원금을 주고 작품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했다면, 실연 심사는 작품

에 대한 단계적 인증을 거쳐 최종적으로 사후심사를 도입한 최초의 시도라고 할 수 있다.

뒤이어 2008년에 시작된 ‘대학로 우수작품 인큐베이팅’ 사업은 대학로 문화 활성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도입된 것으로, 대학로 소극장에서 상연된 우수 공연들이 초연 이후 재공연을 통해 레퍼토리화할 수 있는 기회와 중극장 및 대극장용 작품으로 버전 업될 수 있는 제작 여건을 마련해주자는 취지에서 비롯되었다. 대학로 소재 서울연극센터에서 주관한 동 사업은 2009년 이후 남산예술센터와 연계 추진되었는데 1년 평균 3~4작품씩 꾸준히 지원하며, 카이로 국제실험연극제 대상을 수상한 바 있는 극단 죽죽의 <백베드>(김낙형 연출) 등의 작품을 발굴·지원했다.

NaT로 대표되는 서울문화재단 1기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은 2009년 문화예술 장르별 창작공간들이 조성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 창작공간의 조성과 함께 변화된 서울문화재단 2기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은 기존 지원제도와 맞물려 창작공간을 매개로 신진 예술가의 지원 대상과 범위를 폭넓게 확장시키게 된다. 이 시기에 이르러 서울문화재단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은 ‘지원금 중심의 직접지원’ 방식과 ‘공간을 매개로 한 간접지원’ 방식이 병행되는 입체적 포트폴리오로 전환되었다. 이후 NaT로 명명된 유망예술지원사업과 창작공간의 인큐베이팅 기능 상호간 시너지 효과를 통해 서울문화재단만의 차별화된 지원제도로 자리매김하기 시작했다.

3단계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의 전환기는 2012년 이후 현재까지로 볼 수 있는데,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이 창작공간을 기반으로 하는 지원사업으로 발전적 재편기를 맞이하는 시기다. 2012년 기존 유망예술지원사업(NaT)이 해당 장르 창작공간으로 이관되어, 지원금과 공간 지원 병행 모델로부터 지원금+공간 지원이 일체화된 통합적 지원 방식으로 변화를 모색하게 되었다. 그리고 2015년을 맞이해 직제개편 과정을 거쳐 유망예술지원사업뿐만 아니라 장르별 예술창작지원사업이 전제적으로 창작공간 운영사업과 통합적인 지원체계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서울무용센터(구 흥은예술창작센터)는 무용, 서교예술실험센터는 시각예술, 서울연극센터는 연극, 연희문학창작촌은 문학, 문래예술공장(구 음악·전통·다원예술 분야의 통합적 예술창작 플랫폼으로 그 역할을 강화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발견과 발굴의 미학,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의 의미와 존재 이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큐베이팅'형 지원사업은 신진 예술가들의 새로운 예술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그 대상과 목적이 분명한 도전적 예술지원제도라고 할 수 있다.

최근에 이르러 기존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은 내용적 측면에서 보다 정교하게 설계·운영되어가는 양상인데, 필자는 이를 '1-2-5' 법칙이라 부르곤 한다.

통상 예술계에 입문한 신진 예술가가 자신만의 예술적 형식과 내용을 형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5년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요컨대 본격적인 예술 창작활동을 시작한 시점으로부터 '신진 예술가'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게 되는 기간이 5년 내외라고 볼 수 있으며,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은 5년간 신진 예술가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지원 제도로 점진적으로 진화하고 있다.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의 '1-2-5' 법칙이란 1년차 예술계에 막 입문한 예술가들을 대상으로 한 최초 지원제도, 이후 시행착오를 거쳐 2번째 창작활동으로 전환되는 시기에 적합한 프로그램, 마지막으로 5년여의 예술적 경력개발 과정을 거쳐 기성 예술가로 안착할 수 있도록 견인해주는 최종 지원 단계를 의미한다.

서울문화재단 남산예술센터의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을 사례로 설명해보자면, 〈초고를 부탁해〉는 희곡을 쓰고 싶어 하는 예비 극작가들을 위한 최초 지원제도로써 누구나 상시 투고가 가능하도록 기회를 제공해주고, 그 후 워크숍을 통해 상연 가능성을 가늠해보고 〈남산희곡페스티벌〉 낭독공연의 기회를 제공해주는 한편, 최종적으로 발굴·완성된 작품은 남산예술센터의 시즌 프로그램으로 제작될 수 있도록 한 선순환적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더불어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은 과정 중심적 지원제도로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데, 현재 운영되는 인큐베이팅 프로그램들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공통적 구성요소들을 갖추고 있다. 첫 번째는 발굴과 선정 과정에서 예술적 재능과 잠재력을 가진 예술가를 찾는 것인데, 지원제도의 '공정성'이 특히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두 번째는 멘토링, 크리틱을 통해 선정된 신진 예술가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종의 코칭 과정인데, 이 부분에선 멘토 역할을



맡은 선배 예술가가 동료 입장에서 자신의 예술적 경험을 일방적으로 강요하지 않고 폭넓은 멘토십을 발휘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세 번째는 워크숍을 통해 실제로 작업을 펼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주는 것으로, 예술가로 성장할 수 있는 경험과 시행착오를 직접 체험함으로써 신진 예술가의 미학적 시야를 넓혀주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네 번째는 쇼케이스를 통한 시연 단계인데, 예비 관객·동료 및 선후배 예술가들에게 작품을 미리 선보이면서 최종적인 작품발표를 도와주는 과정이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작품 발표 전후 홍보 및 마케팅 지원, 해외 레지던시 참여 등의 국제교류 기회 제공을 통해 사후 지원과 연계해주는 것이다.

예술 분야에서 인큐베이팅의 근본적인 의미는 끊임없이 '신진 예술가'들을 발견하고 그들을 통해 '새로운 예술작품'을 발굴해내는 데 있다. 반복되는 이야기이지만 이를 위해서는 단발적인 지원이 아닌 '유망한 예술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과정에 충실한 목표지향적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과정과 목표 둘 중 어느 하나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두가지 요소가 조화롭게 통합된 상태에서 작동되는 예술 지원 프로그램으로 끊임없이 변화,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¹⁾

글 이규석 서울문화재단 창작지원본부장
그림 손민정

서울문화재단 예술 공간별 아티스트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예술가의, 예술가를 위한 9개의 플랫폼

서울문화재단은 유희 공간의 문화예술적 재생과 예술가들의 창작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08년 남산예술센터와 서교예술실험센터 개관을 시작으로 2015년 현재 15개의 창작공간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 공간은 시민이 문화예술을 더욱 가까이 만나는 공간인 동시에 예술가들의 작품활동을 지원하는 '산파' 역할에도 힘을 쏟고 있다.

아티스트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예술 공간은 9개. 연극, 무용, 다원예술과 사운드아트, 시각예술, 문학 등 예술 공간별로 각각 특화된 장르에 대해 작가와 작품활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소개한다.



문래예술공장 유망예술지원사업 'MAP'

실험의 최전선에 있는 신진 작가를 위한 MAP

2015 베니스 비엔날레에 초청된 한국 작가 중 한 명인 김아영 작가는 사운드 설치 및 보이스 퍼포먼스 작업인 <제페트, 그 공중정원의 고래 기름을 드립니다, 쉼3>를 선보였다. 이 작업은 물질이자 에너지원으로서 석유 및 석유 자본

과 이를 둘러싼 초국적 갈등에 대한 자료를 하나의 프로젝트로 구현한 작품이다. 지난 1월 문래예술공장에서는 이 작품의 '...쉼2'가 발표되었다. 이는 '2014년 유망예술지원 문래예술공장 MAP(Mullae Arts Plus)' 선정예술가 지원 공연이었다.

문래예술공장의 신진 예술가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이자 서울문화재단 유망예술지원사업 중 하나인 'MAP'은 다원예술, 음악·사운드, 전통기반창작예술 분야의 예술가(및 프로젝트)를 지원한다. 공간 및 제작비 등 직접지원 외에 문래의 MAP이 차별화되는 지점은 제작 과정 점검을 위한 중간평가제도와 집중적인 멘토링 및 크리틱 운영이다. 지원 작가 선정 후 심사위원들을 초청, 제작 과정에 대한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중간평가제도는 작업에 대한 책임감을 높이고, 이는 작품의 완성도 향상에 기여한다. 또한 집중적인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제작 경험이 부족한 예술가는 작업에 직접적인 도움을 얻고 작가 본인의 역량을 강화할 기회로 삼을 수 있다. 이러한 지원 시스템을 통해 2014년 선정작가 중 윤소진(its)과 윤상은, 김보용 등 신진 예술가는 정식 데뷔 혹은 공연예술계에 안정적으로 진입했고, 창작그룹 노니, 앞서 소개한 김아영 등의 경우 본인이 해오던 작업 스펙트럼을 확장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문래예술공장 MAP이 방점을 찍는 부분은 '젊은 아티스트'의 '프로젝트 참신성'과 '완성도'다. 이제 막 첫걸음을 떼는 아티스트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하나 얻기 힘든 것 중 하나가 먼저 경험한 이의 '조언'과 피드백일 터, MAP은 가장 필요한 것을 아티스트에게 지원하고 예술 장르 중에서도 실험적이고 비주류적인 다원예술 및 사운드아트 분야 창작자들이 의미 있는 실험을 이어갈 수 있도록 주목하고 있다.

김태원 | 2013년 MAP 선정예술가. 인간의 읽기, 쓰기를 주제로 작품 전시 <(새로운 유형의 시집) 펼친 책의 왼쪽 페이지> 발표(2014). 2014년 ARKOG가 주목하는 젊은예술가(AYAF) 다원예술분야 예술가 선정.

김용용 | 2013년 MAP 선정예술가. 2014년 2월 <결정된 우연에 반응하는 에피소드들 - 오호츠크해 고기잡> 발표. 2014년 국립현대미술관 고양창작스튜디오 입주 예술가 선정.

다페르투토 스튜디오 | 2013년 MAP 선정예술가. <다페르투토 서울> 발표.

서영란 | 2012년 MAP 선정예술가. 2013년 <지신은 불완전하게 올라온다> 발표. 2014년 ARKOG가 주목하는 젊은예술가(AYAF) 다원예술분야 예술가 선정.



서교예술실험센터 유망예술지원사업 99℃ 'Seogyo 30'

30세 미만 예술가들의 성장을 위한 플랫폼

대학을 졸업한 젊은이들의 취업난과 실업률이 놀랍지도 않은 시대, 미술대학 강사를 겸하던 한 중견 작가는 칼럼을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보다 불안한 이들이 '미대 졸업생'이라고 적었다. 취업 시장과도 거리가 멀고, 전업작가를 꿈꾸는 이들 역시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은 마찬가지기 때문이다. 문화예술계의 상징적인 공간인 '홍대 앞'에서 젊은 시각 예술인들과 호흡해온 서교예술실험센터가 청년작가의 인큐베이팅을 진행하는 것은 꼭 자연스러워 보인다. 2015년부터는 정체성을 더욱 분명하게 하기 위해 '99℃'라는 명칭 뒤에 'Seogyo 30'을 덧붙였다. '30세 미만'의 젊은 예술가를 지원한다는 의미다.

99℃ 'Seogyo 30'은 물리적 지원(지원금, 공간)과 내용적 인큐베이팅이 결합된 복합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젊은 작가들이 성장하는 데에 실질적인 역할을 하고자 한다. 지원작가로 선정되면 책임 멘토가 매칭돼 작업 방향 설정부터 작품 제작, 선정작가 단체전과 작가 개인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일대일 책임 멘토링이 진행된다(팀별 총 20회). 프로젝트 계획이 마련되면 선정자별로 필요한 개별 맞춤형 워크숍이 지원되고, 다양한 장르에서 활동하는 선배 예술가의 작업실을 찾아가 예술가로서의 삶과 작업활동 등 실질적 경험을 공유하는 통합 워크숍도 마련된다. 이러한 과정을 두루 거치며 선정작가들은 단체전(쇼케이스)과 개인전을 진행하고, 작가 개인의 성장과 작품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게 된다.

99℃ 'Seogyo 30'은 학교를 졸업하고 스스로 작가

의 길을 모색해야 하는 청년예술가들에게 그들의 첫 단계를 도전적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복합적인 지원을 해주어 실효성 있는 성장 플랫폼을 다져나가고자 한다. 다양한 분야의 젊은 아티스트와 기획자들이 가장 집약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지금, 서울의 문화예술'의 바로미터와도 같은 홍대 앞 공간은 젊은 예술이 유기적으로 성장하는 공간으로 여전히 유효하다.

이은새 | 2014 유망예술지원사업 선정작가. 프레임(인식의 창) 밖에서 일어나는 현실적 풍경들을 자신만의 감각적 레이어로 쪼개어 파장이 증폭되는 순간들을 포착해내는 작업을 보여준다.

서울무용센터 유망예술지원사업-무용 '닷(dot)'

무용가, 경계를 허물고 경험을 만들도록

무용 중심의 예술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서울무용센터(구 흥은예술창작센터)의 대표적인 아티스트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은 유망예술지원사업-무용 '닷(dot)'이다. 무용 분야 유망 예술가를 발굴 및 육성하는 이 사업의 2014년 지원 미션은 '극장이 아닌 공간에서 발표 가능한 작품'이었다. 극장이라는 가장 안정적인 인프라에서 벗어났을 때 공연은 공간과의 관계 설정, 관객을 원점에서 고민하게 된다. 그렇게 '닷'은 공연장을 벗어난 창작 방법론을 모색해 더욱 새로운 예술 흐름을 만들고자 한 것이다. 극장을 벗어난 공간에서의 춤과 공연은 어떤 부분을 고민하고 무엇부터 시작해야 했을까. 선정작가인 남현우, 황수현, 조형준 세 작가는 체계적인 통합 멘토링을 지원받아 이와 같은 고민에 대한 답을 조금씩 찾아가며 각자 공연을 완성했다.

무용 '닷'의 선정작가들이 프로젝트 진행 첫 단계 '통합 멘토링'에서 만나는 사람은 드라마 트루기(역할의 멘토)다. 무용예술가들에게 비교적 취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작품 구상 단계부터 전문가의 피드백을 받아 작품의 구조 및 흐름을 탄탄하게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다. 무용가가 일상 공간을 새롭게 해석하고 작품을 창작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은 작가의 작업 스펙트럼을 넓히는 과정과도 같다. 이후 작가들이 각자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완성해가는 단계에서는 조명, 음향, 공간 디자인 등 세부 사항에 대해 조언을 받을 수 있는 '개별 멘토링'이 이루어진다. 작품을 발전시키면서 봉착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과정은 완성도 제고는 물론 작가로 하여금 작품에 대한 책임감을 높이는 과정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와 같이 작품 창안부터 발전, 완성에



이르는 모든 과정은 안무가의 작가노트와 함께 자료집에 담겨 공연 후 프로모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다.

2014년 ‘닷’의 체계적인 인큐베이팅을 거쳐 탄생한 작업 중 황수현 작가의 <저장된 실제>는 2015년 페스티벌 봄에 정식 초청됐으며, 조형준·황수현 두 작가가 서울무용센터(구 홍은예술창작센터)와 교류하는 인도 아따갈라리 움직임연구소의 국제교류 레지던시 작가로 참여, 인도 ‘가티 댄스포럼’ 및 ‘아따갈라리 페스티벌’에 초청됐다.

황수현 | 2014년 무용 닷(dot) 선정예술가. 2012한팩 라이징스타 선정 무용가. 닷(dot)을 통해 발표한 <저장된 실제>로 2015 페스티벌 봄 초청. 인도 ‘가티 댄스포럼’ 및 ‘아따갈라리 페스티벌’ 초청.

조형준 | 2014년 무용 닷(dot) 선정예술가. 인도 ‘가티 댄스포럼’ 및 ‘아따갈라리 페스티벌’ 초청. 2015 국립현대무용단 예술감독 신작공연 <공일차원> <이미아직> 참여.

서울연극센터 유망예술지원사업 ‘뉴스테이지(NEWStage)’ 신작 발굴과 지원, ‘초고에서 공연까지’

신진 연극인을 발굴하고 작품 및 공연 발표를 단계적·입체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뉴스테이지(NEWStage)’ 프로그램은 2014년 처음 시작돼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서울

연극센터가 주관하는 뉴스테이지 역시 다른 장르의 유망예술지원사업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선정 연출가에게 작품 제작 비용과 창작 공간을 제공하고, 작품의 개발부터 공연으로 완성시키는 과정까지 각 단계에 필요한 워크숍과 전문가 멘토링을 지원한다. 여러 기관 및 재단 등에서 연극 분야에 다양한 지원사업을 하고 있지만 신진 연출

가의 작품을 개발 단계부터 실제 공연까지 논스톱으로 지원하는 경우는 ‘뉴스테이지’가 처음이다. 호평을 얻고 출발한 첫해에 이어 올해는 어떤 연출가의 참신한 작품이 탄생할지 기대해볼직하다.

뉴스테이지는 데뷔 10년 이내의 연출가 개인 및 단체를 지원 대상으로 해 지난해의 경우 7개월간의 작품 개발과 사전 제작 단계를 거쳐 1년 만에 세 연출가의 흥미로운 신작을 무대에서 만나볼 수 있었다. 작품의 개발 단계에서는 전문가 및 일반 관객을 대상으로 한 낭독 공연으로 작품의 가능성을 점검하고 전문가 모니터링과 워크숍을 거쳐 발전시켜 간다. 이 과정에서 창작자들과 창작자-멘토는 꾸준히 커뮤니케이션해야 하고, 연출가는 자신의 작품을 더욱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계기를 갖게 되는 것이다. 공연의 홍보와 프로모션은 물론 완성된 공연에 대한 피드백까지 이루어지는 통합 인큐베이팅 시스템을 통해 신진 연출가는 ‘검증된 신인’으로 성장한다. 2014년 지원 연출가인 김수정, 구자혜 연출가는 혜화동1번지 연극동인으로 선정되었고, 이 중 김수정 연출가는 <인간동물원초>로 제36회 서울연극제 미래야샷아라 부문 연출상을 수상했다.

2015년 뉴스테이지는 지난 3월 공모를 통해 세 명의 신진 연출가(박웅, 박정규, 정주영)의 작품을 선정해 창작 열기 후끈한 작품 개발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구자혜 | 2014년 NEWStage 선정연출가로 2015년 <디스 디스토피아> 발표. 혜화동1번지 연극인 동인 선정.

김수정 | 2014년 NEWStage 선정연출가로 2015년 <안전가족> 발표. 혜화동1번지 연극인 동인 선정. <인간동물원초>로 제36회 서울연극제 미래야샷아라 부문 연출상 수상.

이래은 | 2014년 NEWStage 선정연출가로 2015년 <날개, 돈다>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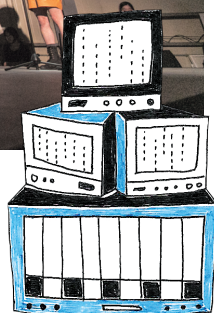


금천예술공장

예술과 기술의 경계를 허무는 시각예술 인큐베이터

금천예술공장은 국제적이면서 지역성이 강한 창작공간이다. 시각예술 분야 국제 레지던시 스튜디오로 시작, 해외작가 교환프로그램과 국제 공동프로젝트 등을 활발히 운영하며 교류 지역을 넓히고 지원 작가들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한편, 공간이 위치한 곳은 서울의 IT산업 지역으로 독특하고 분명한 특성을 지녔기 때문이다. 서로 다른 양극의 특성이 공존하며 시너지를 내기 때문일까. 금천예술공장은 역대 입주작가들의 국내외 전시·페스티벌 초청 및 국내 유수 미술상 수상 소식을 빈번히 접하는 창작공간 중 하나다.

금천예술공장은 시각예술 분야에서도 영상 등 미디어, 테크놀로지와 결합한 다채로운 장르의 작가들을 지원한다. 매년 공모를 통해 선정되는 입주작가들에게 '다빈치 크리에이티브' '상상력 발전소' 등 금천예술공장에서 직접 기획·운영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활발한 창작활동의 기회를 마련하고, 함께 입주한 국내 및 해외 작가들과 지속적인 교류를 지원한다. 또한 입주작가 전원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및 시각예술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해 작품에 대한 조언을 얻고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전문가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해외 평론가 및 큐레이터의 입주작가 비평문을 제공하고 협력기관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해외 크리티크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신진 작가들의 다양한 활동을 국내외 미술계에 노출하고 작가로서 성장하는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 이로써 2014년 한 해에만 베를린 영화제 초청(리오 삼리즈), 에르메스재단 미술상 후보(여다함), 국립현대미술



관 올해의 작가상 2014 후보(김신일) 등을 비롯한 다양한 성과를 얻다. 2015년 상반기에는 임홍순 작가가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한국 작가로는 최초로 은사자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2015년 들어 금천예술공장은 국제성을 더욱 강화하는 동시에 입주작가의 만족도가 높은 지원 프로그램을 심화해 독보적인 아티스트를 배출하는 인큐베이팅 시스템을 구축해가고 있다.

임홍순 | 금천예술공장 2·3기 입주예술가. 장르 구분에 얽매이지 않고 예술활동을 펼쳐왔으며 다양한 방식을 통해 이주노동자와 지역주민들의 삶을 기록하며 민중 혹은 대중의 이야기를 내용으로 삼는 작품을 선보여왔다. 아시아 여성노동자의 소외된 삶을 포착한 장편 다큐, 〈위로공단〉으로 국내 작가로는 최초로 베니스 비엔날레 '은사자상'을 수상했다.

하이브(HYBE) | 금천예술공장 5기 입주예술가. 한창민, 유선웅으로 구성된 인터랙티브 미디어아트 그룹으로 금천예술공장 다빈치 크리에이티브에 2011, 2012, 2014년 선정되었다. 기술과 예술이 융합된 인터랙티브 미디어 작업을 활발하게 벌이고 있다.

잠실창작스튜디오

작가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지원

우리가 위대한 예술가들을 기억하는 것은 대부분 그들의 작품을 통해서다. 신체적 장애를 가지고 있다 한들 그것은 예술가가 작품을 완성하기까지 극복해낸 많은 어려움 중 하나일 뿐이다. 실제 장애를 지닌 예술가들 역시 '장애예술가'가 아닌 그저 '예술가'로서 작품으로 인정받고자 고군분투한다. 물론 그 과정에는 신체조건, 교육환경, 경제적 여건 등 비장애인에 비해 여러 제약이 뒤따른다. 잠실창작스튜디오는 출발선이 다른 장애인들이 그들의 예술적 역량을 충분히 발휘해 '예술가'로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창작공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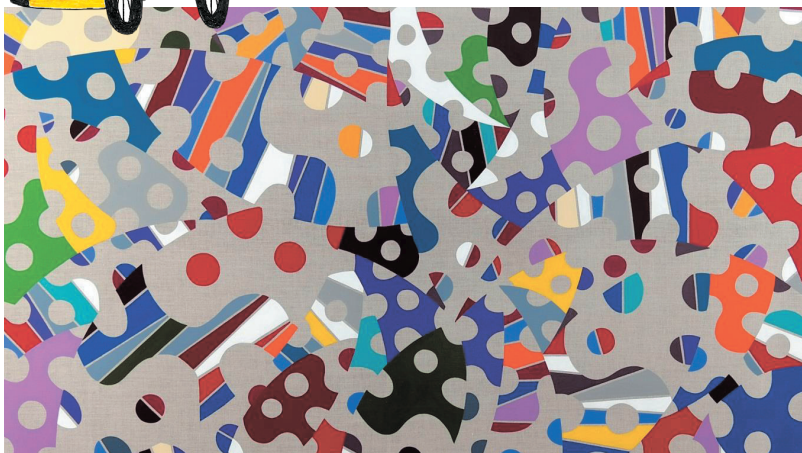
잠실도 연 1회 입주작가를 선발해 1년간 작업 공간 및 교육과 전시 등을 지원한다. 대상은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는 만 18세 이상의 시각예술 분야 장애예술가이며, 입주작가로 선정된 이들의 수요조사를 통해 작가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굿모닝 스튜디오'를 진행한다. 이 과정에는 미술이론 수업과 전문실기교육, 입주작가가 작품에 대한 평가와 조언을 받아 창작에 반영할 수 있는 작품 크리티크가 포함돼 있어 작가들의 만족도가 높다. 또한 2014년에는 기업후원으로 마련한 도예 기자재를 활용한 전문 도예 실기 프로그램 '반갑다 도예야'를 운영해 작가 작업 영역의

폭을 확대하고 아트 상품 제작 기회를 마련하는 등 작가의 역량 강화를 위한 다각도의 지원을 모색, 실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입주작가의 전시 활동 및 공모전 입상 등 크고 작은 성과가 이어지고 있다.

2015년에는 기존 지원 방향을 이어가는 동시에 입주 작가들의 창작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전문가의 크리틱 시간을 더욱 활성화하고 도예, 판화 등 실기 강좌도 확대해 작가들의 폭넓은 창작활동을 뒷받침하고자 한다.

허욱 | 프랑스 파리 국립미술학교에서 회화와 건축, 멀티미디어를 전공, 이 복합적인 요소를 작품에 투영해 회화와 건축의 모호한 경계를 보여주는 독특한 작품 세계를 구축하고 있다. 2014, 2015년 화랑미술제, 2015 아시아 컨템포러리 아트페어에 참여했다.

김명아 | 청각장애를 갖고 있으면서 청각장애 아동을 위한 미술심리 치료 교사로 일한 바 있는 김명아 작가는 '소통의 방법론'을 고민하는 작업을 보여준다. 2014년 개인전 <사람+사람>을 열었다.



신당창작아케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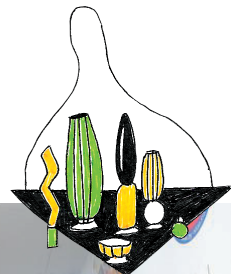
협업의 가치와 창작 이후까지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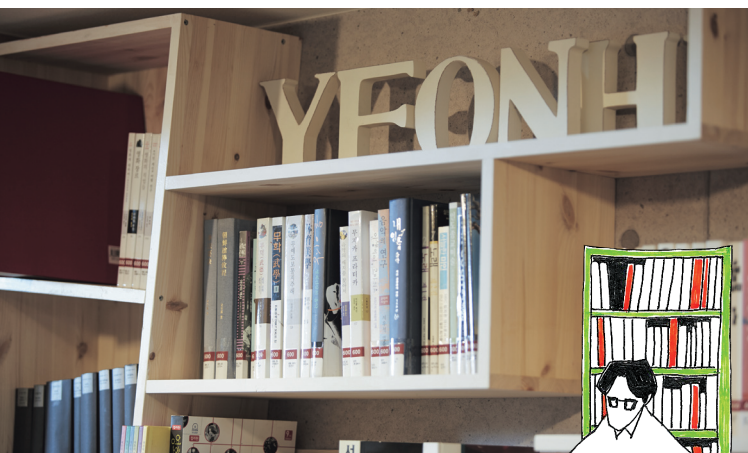
지난해 호주 클론스 북타운 페스티벌에 아시아 작가로는 최초로 초청된 안경희 작가(2013~2014 신당창작아케이드 입주예술가)는 본지와 인터뷰(2014년 7월호)에서 페스티벌 준비 과정에 신당창작아케이드 동료 작가들로부터 도움을 많이 받았다는 인사를 잊지 않았다. 사진과 북아트 작업을 함께 하고 있는 안 작가는 북타운 페스티벌에서 발견한, 신당에 적용하고 싶은 작가 교류 방식을 언급하기도 했다. 신당창작아케이드 역시 다양한 작가의 국제 무대 진출과 크고 작은 수상 및 브랜드 론칭 등의 의미 있는 활동이 이어지도록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다. 공예 분야에 특화된 이곳은 특히 작품의 상품성 획득과 홍보·마케

팅까지 인큐베이팅 과정에 포함해 작가가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돕는다.

황학동 중앙시장과 이웃한 신당창작아케이드는 재래시장의 빈 점포를 작가의 창작공간으로 활용하고 교육·전시·오픈 스튜디오와 더불어 다양한 분야 입주작가들의 공동 프로젝트와 상품 개발 등 창작 지원, 나아가 기업과의 아트 콜라베이션 및 아트페어 참가 등 작가들에게 절실한 홍보·마케팅 지원까지 진행한다. 특히 2014년에는 입주작가들이 생산자협동조합 '크라트(Crart)'를 결성해 공동 목표를 설정하고 사업 과정을 책임 운영하는 시스템을 각 사업에 적용, 운영하기 시작했다. 사업별로 참여하는 작가들이 각자 운영 전반 관리, 예산 및 정산 관리 등 사업에 필요한 업무를 분담해 작가의 실제 사업 대응 능력을 강화한 것. 또한 이들 사업은 입주 작가들로 하여금 기업과의 콜라베이션(넵스마스터피스 아트 콜라보레이션), 마케팅(서울국제핸드메이드페어), 판로 개척(시민나눔장터 카부츠데이) 등 다양한 경험을 쌓도록 했다. 이러한 신당의 인큐베이팅 시스템으로부터 지난해 안경희 작가 외에도 윤혜림 작가의 2014 밀라노패션박람회 화이트 전시 참가, 오화진 작가의 2014 국제공예트렌드페어 '올해의 작가상'(문체부 장관상) 수상 등 굵직한 성과가 이어졌다.

이성진 | 신당창작아케이드 6기 입주작가. 디자인 브랜드 '페코로부터(Frompeco)' 대표로 생활·문구 관련 제품 디자인을 기반으로 해 MoMA(뉴욕현대미술관), Guggenheim Bilbao Museum, Art Institute of Chicago, Paul Smith, Colette, Lafayette 등 세계 15개국의 유수의 디자인 스토어, 미술관, 편집숍에 제품을 입점하거나 협업작업을 진행했다. 2012년에는 미국 OPENNING CEREMONY Best Korean Brand에 선정됐다.





연희문학창작촌

글 짓는 작가의 방

음악, 미술, 무용, 연극 등 예술 분야의 모든 창작자들이 작품활동을 하는 데에 공통적으로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공간’이다. 창작 지원의 내용이 과거 작품 제작비 지원을 중심으로 하던 것에서 ‘공간’ 지원이 추가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추세는 현장 예술가의 요구를 반영한 결과다. 문학도 마찬가지다. 작가가 충분히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온전히 그를 위한 공간에서 글을 쓸 수 있다는 것은 축복이다. 연희문학창작촌은 소설가, 시인 및 평론가 등 문학분야 창작자에게 집필실을 제공해 작품 활동에 안정적으로 몰두할 수 있도록 돕는다.

연희의 입주작가 정기 공모는 연중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총 2회 진행된다. 집필실을 3개월간, 분기별 12명의 작가에게 지원하는 ‘창작지원’ 분야와 6개월간 3명의 작가에게 지원하는 ‘집중지원’ 분야로 나뉜다. 시, 소설, 아동문학, 희곡, 평론, 번역(집중지원에서는 평론과 번역 제외) 등의 분야에 걸쳐, 문학 전문 매체를 통해 등단한 문인이 지원 대상이다. 기존에 신진 작가를 중심으로 지원하던 것에서 2014년에는 ‘당해연도 작품집 발간 예정자’로 지원대상을 확대해 작가들의 창작 활성화를 유도했고 백민석, 정영문, 김성규, 박상, 김선우 등 소설가 및 시인을 비롯해 매년 50명 넘는 작가가 연희문학창작촌을 거쳐 가며 작품을 선보였다.

정용준 | 연희문학창작촌 2013년 하반기 입주작가. 2013년 단편 〈당신의 피〉로 문학과지성사 젊은작가상을 수상. 2014년 첫 장편소설 〈바벨〉을 출간했다.

남산예술센터 창작극 및 작가발굴 지원시스템

‘동시대, 실험적 연극 언어’를 부탁해

남산예술센터는 ‘동시대성’과 ‘새로운 형식’을 지속적으로 표방하며 참신한 시도가 돋보이는 작품들로 관객과 소통해왔다. 2009년 재개관 이래 이러한 흐름을 탄탄하게 구축하면서 관객과 평단의 신뢰를 쌓아온 바탕에는 남산예술센터만의 창작극 및 작가발굴·지원 시스템이 자리하고 있다. 이러한 작품 및 창작자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은 ‘초고를 부탁해’ ‘남산희곡페스티벌’ 그리고 ‘상주극작가 제도’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발굴의 첫 단계라 할 수 있는 ‘초고를 부탁해’는 국내 제작극장 최초로 운영하는 상시 투고 시스템이다. 기성 극작가나 극작가 지망생들이 작품을 투고하면 1단계 드라마터그 독회 및 2단계 관련 전문가의 검토가 진행되고, 각 과정에서 창작자에게 피드백이 전달된다. 1, 2단계를 거쳐 선발된 우수 희곡은 낭독공연으로 관객과 만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남산희곡페스티벌’. 작가에게는 작품을 관객에게 선보이는 기회로, 관객에게는 새로운 시선의 작품을 목소리로 즐기는 독특한 경험으로, 남산희곡페스티벌은 남산예술센터만의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낭독공연을 통해 호평받은 〈지금도 가슴 설렌다〉(이혜빈 작), 〈나와 할아버지〉(민준호 작), 〈뽕뽕뽕〉(김은성 작) 등이 연이어 무대화되었다. 상주극작가 제도는 남산예술센터의 비전을 공유할 젊은 창작자를 위임해 제작 시스템의 안정성과 예술적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2011년 시작됐다. 상주극작가는 활동기간 동안 무대 상연을 전제로 한 작품의 집필 계획을 수립하고 드라마터그의 관리 및 평가 과정을 거쳐 발표한다.

이혜빈 〈지금도 가슴 설렌다〉 정식 공연으로 제작(손기호 연출, 2013. 12. 13~2014. 1. 26 선돌극장)
2014년 ‘초고를 부탁해’ 선정작가 **박수진**, 2014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차세대예술인력육성사업 문학(희곡)분야 선정
2014년 ‘초고를 부탁해’ 투고작 **이철희** 〈조치원 해문이〉, 제4회 벽산희곡상 수상
2014년 ‘남산희곡페스티벌’ 낭독공연작 〈햇빛사위〉, 2015년 남산예술센터 시즌프로그램 선정



뉴미디어 아트그룹 하이브

‘어떻게, 왜’를 지켜 이야기를 만든다는 것

‘하이브(HYBE_Hive for Hybrid Environment)’는 한창민, 유선웅 작가가 함께 만든 미디어아트 그룹이다. 2011년 금천예술공장의 ‘다빈치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라이트 트리(Light Tree)>를 선보이고, 이후 금천 입주작가로 활동하면서 <아이리스(IRIS)> 등을 발표해 현재 미디어아트 관련 전시에서 가장 많은 러브콜을 받는 작가로 성장했다. 빛에 관한 전시 ‘은밀하게, 황홀하게’에 초청된 <아이리스(IRIS)> 앞에서 하이브를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뉴미디어 아트그룹’ ‘기술과 예술의 융합’ 등 그룹 ‘하이브’를 수식하는 문구가 많은데, 스스로는 어떻게 팀을 설명할 수 있나요?

한창민 하이브의 가장 큰 특징은 실용적인 대화를 나누려고 노력하는 팀이라는 겁니다. 현대미술의 철학적이고 담론적인 부분 때문에 대중과 소통하기 어려운 간극이 생겼는데, 그 상황을 역으로 이용해 처음부터 그 부분을 인식하지 않고 편안하게 접근하면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하이브를 한마디로 규정한다면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팀이라고 할까요. 어떤 것도 규정해놓지 않은 채 큰 틀에서 나온 아이디어가 미술계와 산업계 모두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에 처음엔 저희도 놀랐고, 또 고마웠습니다.

유선웅 저희 작업에는 ‘테크놀로지’라는 거창한 말이 전면부에 부각되는데, 사실 가장 많이 노력하는 건 ‘어떻게 하면 기술적인 부분을 감추고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을까’하는 점입니다.

오랫동안 직장생활을 하다가 예술가로 삶의 방향을 전환하셨는데, 특별한 계기가 있었나요?

한창민 저는 KBS에서 방송그래픽 작업을 오랫동안 했어요. 학부에서 디자인을 전공했는데, 학교 다닐 때는 방송국에 취직하는 것이 목표였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니 제 상상력과 아이디어 자체가 2차원적 프레임에 갇혀 버리는 데 한계를 느꼈어요. 방송 프로그램의 범주에서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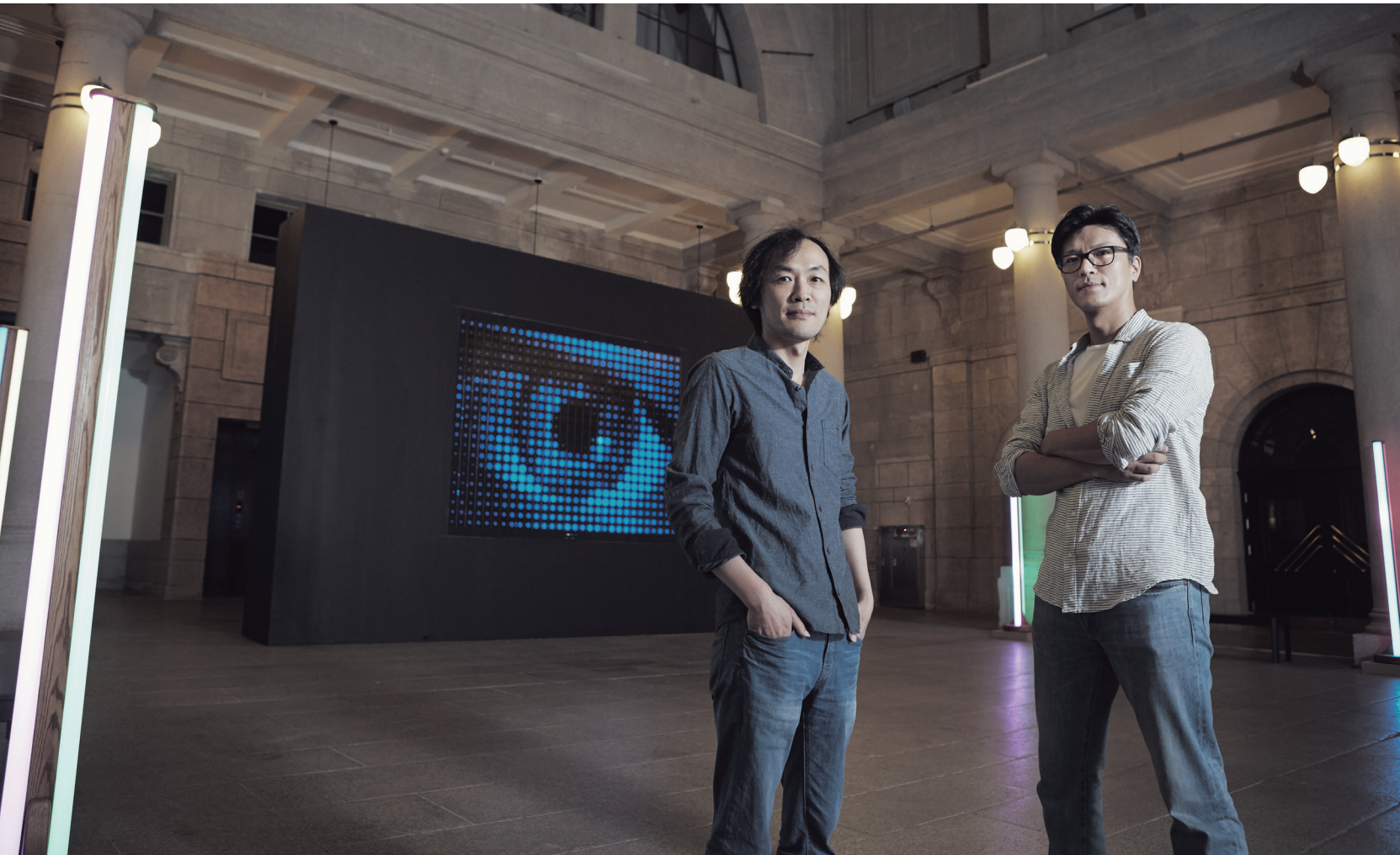
아이디어를 생각하게 되고, 또 시간에 맞춰 결과물을 계속 해서 만들어내야 한다는 게 싫었죠. 그러다보니 끝이 보이기 시작했고, 10년 뒤에도 이렇게 쫓기는 마음으로 도구의 노예가 된 상태에서 일하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그만두고 대학원에 진학했어요.

유선웅 저는 하이브에서 기술적인 부분을 맡고 있는데 원래 백그라운드는 사진입니다. 사진 작업을 할 때 가장 싫었던 부분이, 그때는 디지털 작업이 없던 때여서 페이퍼에 프린트를 하고, 사각 프레임을 만들어야 하고, 이런 것들이 답답하게 느껴졌어요. 사진 작업에서 벗어나는 일을 몇 가지 해보다 지금은 하이브에 안착하게 된 거죠.

2011년 ‘다빈치 아이디어 공모전’에 당선된 이후 지속적으로 금천예술공장과 관계를 이어오셨는데, 금천에서 받은 지원은 작업하는데 어떤 도움이 되었나요?

유선웅 <라이트 트리(Light Tree)>로 공모전에 당선된 이후 1년 6개월 정도 금천예술공장 입주작가로 있었어요. 금천이라는 지역은 제가 하는 분야와 맥락이 가장 잘 닿아 있는 장소예요. 가산디지털단지에서 작업에 필요한 모든 부품을 10분 내에 구할 수 있었거든요. 금천에 있으면서 작가로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었다는 게 가장 큰 의미를 가집니다.

한창민 제가 아는 한 작가는 외국 레지던시에 들어갔는데 현지에서 필요한 부품을 구하지 못해 한국에 들어왔어요. 현지에서 물건을 주문하고 받는 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결국 한국에서 작품을 다 만들어놓고 외국에선 발표만 했죠. 그런 면에서 금천예술공장은 저희 같은 작업을 하는 작가들에겐 최적의 장소입니다. 그리고 제 경우에는 주변에 작가 활동을 하는 친구가 많아서 미술계가 그리 낯설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우리가 만든 작품이 갤러리에 전시되는 것이 좀 두렵기도 하고, 또 ‘내가 여기에 들어가도 되는 건가?’ 하며 주저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금천예술공장에 입주해 있으면서 동시대 현대미술을 하는 작가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또 현대미술에 큰 영향을 미치는 평론가들이 우리 작품을 바라보는 관점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 미술계가 조금 편안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예전에는 현대미술에 대한 오해도 있었고 반발 심리도 있었는데, 이분들이 왜 이런 고민을 하고 이야기하려고 노력하는지 조금은 알게 되었습니다. 작업하기 위해선 여전히 동굴 속



문화역서울 284에 전시된 작품 〈아이리스(Iris)〉 앞에 선 하이브(유선웅, 한창민).

에 갇혀 있는 시간이 대부분이지만, 옆방에 있는 다른 작가들의 내면세계를 엿볼 수 있었던 게 좋았어요. 또 초반에는 뜻이 맞는 해외 작가들과 많이 놀러다니기도 했어요. 나중에 맨날 놀아달라고 해서 좀 힘들기도 했지만요. (웃음)

하이브의 작품에는 ‘복잡한 기술’과 ‘어려운 예술’이 융합되어 있지만, 관객들에게 ‘감성’적인 이미지가 먼저 어필되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사이(In Between)〉(2012)라는 작품을 보면서 머릿속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떠올라, 연극이나 무용 등 다른 장르와도 연결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하이브의 작품 중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어떤 건가요?

한창민 〈사이(In Between)〉의 원래 제목은 ‘자화상’이에요. 허름한 창고 같은 장소에서 누구인지 모를 발자국 한 쌍이 ‘탁탁’ 소리 내며 내 앞으로 걸어오죠. 예전에 알던 사람들은 저를 모션그래픽 디자이너로 기억하고 있을 테지만, 현재 제가 뭘 하고 있는지는 설명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예전에 남긴 발자국들은 이렇게 명확한데 말이죠. 나중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서 있을까 궁금해하며 만든 작품입니다.

유선웅 2012년에 발표한 〈아이리스(Iris)〉는 현재까지 여러 가지 버전으로 선보이는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문화역서울 284’에서 진행되고 있는 〈은밀하게, 황홀



〈사이(In Between)〉는 누구인지 모를 발자국 한 쌍이 '탁탁' 소리 내며 관람객 앞에서 걸어오며 말을 건네는 작품이다.

하계: 빛에 대한 31가지 체험〉 전시에서도 284의 중심공간인 1층 중앙홀에 설치되어 있죠. 처음에는 흔히 사용되는 발광다이오드(LED_light emitting diode) 말고 다른 표현장치를 찾아보고 싶었고, 그렇게 몇 번의 과정을 거쳐 액정표시장치(LCD_Liquid Crystal Display)를 변형해서 하나의 픽셀로 만드는 작업을 하게 됐어요. 테크놀로지를 부각하지 않더라도 물리적, 아날로그적이라고 할 수 있는 새로운 픽셀 표현 방법을 제시했다는 것이 가장 큰 의미였습니다.

한창민 아이리스에는 전략이 하나 들어 있어요. '다빈치 아이디어 공모전'의 모토가 '제품이 될 수 있는 작품'인데, 저는 이 부분에 한계를 느끼고 또 약간의 반발심도 있었어요. 그래서 정반대로 '작품이 될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보려고 했죠. 우리만의 아이디어를 펼 수 있는 캔버스를 만들어놓고 거기에 어울리는 콘텐츠를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거죠. 그 자체가 작품이기도 하지만, 또 저희의 생산물을 담을 수 있는 또 다른 도구이기도 한 거죠. 아이리스를 처음 제안할 때도 현재 발전하고 있는 밝고 정교하고 화려한 LED가 아닌, 저해상도에 색깔 없는 블랙 앤드 화이트로 이루어진 LCD를 사용하면서 완전히 기술의 흐름을 역행한 거였어요. 이런 로레줄루션(low-resolution), 올드 미디어 등 우리가 잊어버린 것들을 새롭게 활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죠.

작업하다보면 주변 관계자분들의 이야기 외에 일반 대중의 의견을 듣기는 어려운데요. 대중과의 소통은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한창민 하이브 홈페이지가 있는데, SNS는 하지 않아요. 사실 가장 인상 깊은 피드백은 구글링으로 '아이리스, 하이브' 등을 검색해보는 건데, 각종 논문에 아이리스가 많이 언급되고, 기술적으로 오픈소스 기반이라서 그런지 책을 쓸 때 굉장히 많이 인용되고 있어요. 저는 그게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또 다른 영감을 줄 수 있구나 하며 보람을 느끼죠.

5년 전의 하이브처럼, 지금 출발점에서 있는 많은 예술가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한창민 육하원칙 중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은 바꿀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예전에 금천예술공장에서 중학교 신입 교사들을 대상으로 강의한 적이 있는데, 교사분들께도 이야기했어요. 아이들에게도 '어떻게, 왜' 만큼은 건드리지 말아달라고요. '어떻게, 왜'는 자신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지, 현대미술이나 교육 시스템으로 재단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문화예술은 '허공에 삼킬한다'고 느껴질 만큼 스스로 동기부여가 되지 않으면 건디기 힘든 분야예요. 하이브가 이해하는 미디어아트는 '자기가 이야기하려는 것을 가장 잘 설득시킬 수 있는 매체를 찾는 일'입니다. 왜 이런 매체를 선택했으며, 또 이 매체를 통해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자기 스스로를 설득해나가면 분명히 많은 사람에게 영감을 줄 수 있는 작업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유선웅 다빈치 아이디어 공모전은 작년에 5회째였는데, 시작하는 예술가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공모를 통해서 그동안 아이디어에만 그쳐왔던 것들을 시도해보고, 새로운 역량을 보여주는 분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물론 실패하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그것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원금도 적지 않은데, 이런 프로그램들이 조금 더 확대되고 활성화됐으면, 또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가 확장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박지}

메모리[人]서울프로젝트

역사가 되는 목소리, 예술이 되는 스토리

메모리인서울프로젝트 창작판소리공연

삼풍백화점 창작판소리 '유월소리'

안숙선 명창 (작. 오세혁)

일시 | 2015년 7월 3일(금) 저녁 7시

장소 | 시청 지하1층 시민청 활짝라운지

메모리인서울프로젝트 기획전시

삼풍백화점 기획전시 < 이젠 저도 사랑을 시작할 수 있는 나이에요 >

일시 | 2015년 6월 24일(수) - 7월 5일(일)

장소 | 시청 지하1층 시민청 시민플라자

한강 기획전시 < 메모리인한강 >

일시 | 2015년 7월 1일(수) - 7월 17일(금)

장소 | 서울도서관 1층 - 4층



팟캐스트 <동대문> 녹음한 배우 문성근

“부끄러운 역사도 함께 기억해야”

‘메모리인(人)서울프로젝트’는 지난해부터 ‘서울을 기억하는 세 가지 방법’이라는 주제로 특별한 프로젝트들을 진행하고 있다. 이 중 ‘서울의 추억, 동대문’에서는 옛 동대문운동장에 대한 시민의 기억을 수집했고, 이를 엮어 지난 5월 팟캐스트 <동대문>으로 공개했다. 평범한 시민들의 이야기는 청취자들의 잔잔한 호응을 얻었는데, 여기에는 이야기의 진솔함을 더하는 내레이션이 한몫했다. 따뜻한 음성의 주인공은 배우 문성근. 30년 넘게 연기자이자 문화예술계의 지성으로 사회에 필요한 목소리를 내던 그는 팟캐스트 녹음 스튜디오에서 여전히 대본 한 자 한 자를 정성 들여 읽고 서울, 사람, 문화예술에 대한 애정을 솔직하게 드러냈다.



Good Bye!!
My Home



It must be lunch
time already
hahahah...



“아시아 야구선수권대회에서 최초로 우승한 적이 있죠. 그 때 멤버들이 김응룡, 하일, 박영길, 박현식이 국가대표 하던 시절이었거든요.”

“실제로 경기장에 가서 봤나요?”

“아! 물론이죠. 초등학교, 중학교 때 정말 많이 갔죠.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뭔지 아세요? 야간경기였어요.”

“야간경기요?”

“아~ 당시에는 야간경기가 흔히 있는 일은 아니었거든요. 그때가 1960년대였으니까 야구장에 조명탑이 처음 생겨서 더욱 그랬을 거예요. 보통 야구장에서 야간에 경기를 하면 그림자가 선수 아래로 떨어지지 않아요? 근데 그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아마 광량이 부족했든지, 설계가 잘못됐든지, 뭐 그랬다는 설이...”

패션과 디자인의 거리, 낮보다 밤이 더 화려한 지역. 을지로와 청계천, 종로가 만나는 교통의 요충지여서인지 항상 사람들이 북적거린다. 건축계의 아카데미상이라 불리는 프리츠커 건축상을 수상한 자하 하디드(Zaha Hadid)가 설계해 더욱 화제를 모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가 들어선 곳. 그곳은 동대문이다.

지금은 다 없어지고 남아 있는 예전의 동대문운동장의 흔적이라고는 조명탑이 유일하다. 1925년 경성운동장으로 시작된 동대문운동장은 지난 2007년 12월 역사의 뒀안길로 사라졌다. 80년 동안 한국 스포츠의 성지였던 동대문·동대문운동장에 대한 얘기를 듣기 위해 지난 6월 12일 마포구 용강동의 어느 작은 사무실에서 배우 문성근을 만났다.



OH!! My God ...
Traffic Jam



Today's Work is Photoshop..
Let's do it



lunch Time
My Favorite



love music
love music?



당신의 목소리가 서울의 역사가 됩니다

서울문화재단은 2013년부터 서울에 대한 시민들의 기억을 목소리로 채록하는 사업 '메모리인(人)서울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1927년부터 3대째 운영하고 있는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이발소부터 김두한의 양복을 직접 제작했다는 종로의 어느 양장점까지, 서울에 사는 시민의 소중한 이야기를 그들의 목소리로 담았다. 지난 3년 동안 참여한 사람만 1,000여 명, 모인 에피소드만도 1,500건이 넘는다.

작년부터는 '서울을 기억하는 세 가지 방법'이라는 주제로 '서울의 추억, 동대문' '서울의 아픔, 삼풍백화점' '서울의 환희, 2002월드컵'에 관한 기억을 채록했다. 이 중 동대문에 관한 기억 수집에는 <동대문운동장, 아파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하여>의 저자이면서 야구 칼럼니스트인 김은

식(42) 씨, 동대문운동장 보존 캠페인에 참여한 체육시민연대 소속의 허정훈(45) 씨, 중학교 때 핸드볼 선수로 동대문운동장에서 직접 경기를 했던 김희웅(56) 씨 등 25명이 참여했다.

작년 8월부터 진행된 이 프로젝트에 75건의 에피소드가 모였고, 지난 5월 26일에 드디어 2차 콘텐츠인 팟캐스트가 문을 열었다. <동대문>이라는 제목으로 총 3부로 제작된 이번 팟캐스트에서 문성근 배우는 내레이션을 맡았다.

그의 출연 소식에 처음에는 소정의 거마비만 지급하는 조건(?) 때문에 그냥 홍보대사 수준이 아닐까 생각했다. 그가 민주통합당 최고위원이자 당대표를 지낸 정치인 사였기에 인터뷰하기가 약간은 부담스러웠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내레이션이 진행되던 두 시간 내내 지켜본 그



팟캐스트 〈동대문〉을
녹음하고 있는
배우 문성근.

의 모습은 불필요한 짐작과 부담을 깨끗이 잊게 했다.

“흠… ‘그저 오늘을 살아가는 시민들’보다는… 이걸 어떨까요? ‘오늘을 살아내고 있는 가장 보통의 당신.’ 이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읽어야 할 원고 분량이 만만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두꺼운 뿔테 안경을 쓰고 깨알 같은 대본을 수차례 반복해 읽었다. 손에 쥔 빨간 펜으로 어느새 원고를 너털너털하게 만들 정도였으며 대사가 자신의 입에 감길 때까지 몇 번이고 반복해 읽었다. SBS TV 〈그것이 알고 싶다〉의 진행을 수년간 맡았던 그가 아니던가. 단순한 직업의식이라기보다 그것은 마치 본능의 움직임 같았다. 그에게 동대문과 서울에 관한 추억을 물었다.

“그 당시 장충체육관에서는 정말 다양한 경기를 했어요. 김기수 선수가 세계타이틀매치를 했던 것으로 기억해요. 그 경기를 보려고 학교도 그렇고 높은 건물 옥상에도 올라가고… 지금 생각해도 정말 대단했지…”

예순을 넘겨 흰머리가 성성한 그는 잠시 지그시 눈을 감았다.

“야구장은 꽤 좋았는데, 장충체육관인가? 실내에서 담배를 피웠어요.(웃음) 지금이야 상상도 못할 일인데 (당시에는) 금연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뭐 그뿐이었나?

(다른 통에) 소주를 몰래 담아서 들어가는 일도 부지기수였고, 술 마시고 싸우는 경우도 허다하고…”

술 얘기가 나오자 그는 한 가지 에피소드를 더 언급했다. 당시 신문에서 가장 즐겨 보던 코너가 ‘김성환의 고바우 영감’이라는 네 컷 만화였단다. 하고 싶은 얘기를 마음껏 하지 못하던 시절에 만화를 통해서 서민들이 대리 만족했을 터였다.

“만화 속에는 항상 오징어 한 마리와 소주가 등장했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오징어가 없어졌어요. 누군가 얘기하는데, 오징어를 일본으로 전량 수출해야 해서 쥐포로 바꿨다 하던데요. 뭐 별거는 아닌데, 왜 그게 그렇게 아쉽던지…”

“‘역사맹’ 안 되려면 부끄러운 역사도 지켜야”

문성근은 1953년 일본에서 태어나 2살 때 서울에 왔다. 서강대 무역학과(72학번)를 졸업했을 만큼 공부도 잘한 수재였다. 30년 이상 국민배우로 활동한 그가 연극영화과가 없는 서강대에서, 그것도 무역학과에 다니던 시절이 궁금했다.

“지금도 그렇지만 사람들이 ‘너는 꿈이 뭐냐? 너는 어떤 일을 했으면 좋겠냐?’라는 질문을 해요. 사실 고등학교

성적 때문에 무역학과를 갔어요. 지금도 대단하지만 제가 입학했을 당시 무역학과와 합격 점수가 제일 높았어요.(웃음) 고3 때 <진학>이라는 잡지가 있었는데, 커트라인 점수를 보니까 볼썽더라고요.(웃음) 그런데 1년 만에 알겠더라고요. 아, 내가 잘못 왔구나! 종합대학이 된 이후론 전과 자체가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연극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제가 행복해지는 걸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더 절실했던 것 같아요.”

연극, 영화를 비롯해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선배로서 조언과 쓴소리를 하면서 그의 목소리가 달라졌다.

“다른 얘기도 하고 싶어요. 사실 요즘 문화예술계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우리나라에 오랫동안 해결이 안 된 시설이 있어요.”

최근 문을 닫은 대학로극장을 비롯해 연극계의 상황이 밝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연극 산실로 여겨졌던 공연장이 하나둘 문을 닫기 시작한 것도 최근이고, 더욱이 문화지구 선정 이후 대학로 사정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예전에 한 군에 하나씩 문화회관을 보유하라고 했어요. 당시에는 공연장이라는 개념이 없었으니까, 그야말로 강당을 지은 셈이죠. 이것을 노무현 정부 당시 문화부장관이던 이창동 장관이 중단했어요. 이런 문화회관이 어떻게 보면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수도 있지만, 이런 (공연이 불가능한 수준의) 무분별한 건립은 폐해였다고 봐요. 공연을 해본 사람들은 그 느낌을 알거든요. 이곳이 공연할 수 있는 곳인지 아닌지를.”

사람들의 기억을 채록하는 ‘메모리인(人)서울프로젝트’에 내레이터로 참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최근에 찍은 영화, 참여한 행사를 볼 때, 그는 잊히는 것들에 관심이 많아 보였다.

“특별히 과거에 관심을 둔다고 보다는, 역사는 현재라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모든 것은 역사의 결과물이기도 하고요. 2015년 현재 대한민국이 어떤 현실에 처해 있는지 아세요? 현실을 직설적으로 논해야 미래에 대해서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는 역사를 제대로 안 가르치는 현실에 많은 섭섭함을 토로했다. ‘근현대사’라는 과목이 처음 생긴 것이 김대중 정부 시대부터라고 말하며 지금의 이런 현실이 국민을 ‘역사맹’으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후손들에게 역사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인식시켜야 합니다. 박종철 열사의 방은 유지되고 있는데, 남산의 정보국(예전 안기부) 같은 것도 솔직히 후손들에게 숨기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역사는 잊히는 것이 아닙니다. 지우려고 해도 지워지지 않아요. 자랑스러운 역사이든, 부끄러운 역사이든 지우려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인터뷰가 진행되는 동안 필자는 그가 살아온 과거부터 현재까지를 담은 한 편의 영화를 보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1970년의 동대문운동장에서 야구를 같이 봤고,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는 현재의 나를 발견했다. 인터뷰로 예정했던 한 시간을 훌쩍 넘겨 식사 시간을 지나쳤어도 오히려 헤어지는 순간을 아쉬워하는 인간 문성근이었다. 팟캐스트에서 그의 목소리가 더욱 감미롭게 들릴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이것은 장소와 시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내가 당신께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바쁜 당신, 오늘도 아침을 거른 당신,

봄비는 지하철 속에서 두 눈을 꼭 감은 당신,

꽉 막힌 도로 위에서 핸들을 손에 쥔 당신,

어제나 내일이 아닌 그저 오늘을 살아내고 있는

가장 보통의 당신,

그래서 당신은 어쩌면 추억이나 기억 속에서 빠져드는 문을 굳게 닫아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그런 당신께 기억을 걷는 시간을 열어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팟캐스트 <동대문>을 들으려면?

- 메모리인서울프로젝트 홈페이지 www.sfac.or.kr/memoryinseoul
- 팟캐스트 공유사이트 팟빵 www.podbbang.com에서 ‘동대문’으로 검색

글 이규승 서울문화재단 홍보팀장 | 사진 서울문화재단

(주)디씨엘 김용신 대표이사

예술과 기업의 친밀한 파트너십을 꿈꾸다

LED조명 제조·판매회사인 (주)디씨엘(DCL, Inc.)은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단국대학교 캠퍼스 내에 있다. 2012년, 김용신 대표이사가 설립해 지금은 산업용 무전기 분야의 웨어러블 시스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기업이다. 김 대표는 자사가 후원하는 연극에 해외 바이어를 초대하고, 공연 리허설 현장도 직접 찾는다. 기업이 예술 후원을 지속하는 동력은 무엇일까. 김 대표의 적극성은 이 질문을 곱씹게 한다.

탁 트인 대학 캠퍼스와 어우러진 현대식 건물에 첨단산업 분야 산학협력업체가 모여 있다. 이곳에 등지를 튼 기업 중 하나인 (주)디씨엘은 올해 처음 서울메세나사업에 참여해 뮤지컬 <꽃순이를 아시나요>(은세계씨어터)를 후원했다. 김용신 대표이사는 장기적으로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재단 설립을 계획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원래 복지재단이나 복지회 등을 통해 소년·소녀가장이나 장애인 분들을 후원해왔어요. 그러다보니 아쉬운 점도 생기더라고요. 후원하는 친구들이 어떻게 사는지 궁금한데 막상 찾아가볼 수 없는 게 원칙인 점이라든지, 국내 기부 문화나 시스템도 미약하다보니 자연스럽게 재단이나 사단법인을 직접 만들어보자는 데 생각이 닿았죠.”

문화예술 불모지에 살고 있었다는 김 대표가 문화재단 설립을 꿈꾸게 된 것은 예술가들의 세계를 접하고 난 뒤부터였다. 공대 출신으로 문화예술에 문외한이던 그는 우연찮게 대학로 주점에서 예술가 한 사람을 소개받는다. 그 예술가가 바로 은세계씨어터 대표였다.

“예술가는 그때 처음 만난 건데 충격적이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세상 사람들이었거든요. <꽃순이...> 공연도 여러 번 봤는데 공연을 보면 볼수록, 배우들을 만나면 만날수록 예술이 매력적으로 다가오더군요. 수업이 변변치 않아도 예술가들은 목표가 있기 때문에 ‘만족한 삶’이라고 했어요. 이런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과 소외계층을 위한 재단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구체화되기 시작했죠.”

김 대표는 일본 파트너 회사에서 손님이 방문했을 때 <꽃순이...> 공연에 초대했다. 예술 후원이 장기적인 파트너십으로 발전하려면 기업과 예술가 간 정서적 교류와 연대감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후원자가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교류 활동은 아직 미비한 편이다.

“일본 파트너들이 공연을 보고 한국의 뮤지컬은 에너지가 넘치고 극적이라며 매우 좋아했습니다. 전 집이 용인인데도 공연 끝나면 배우들과 서울 대학로에서 새벽까지 술자리도 종종 가집니다. 직원 몇몇이랑은 리허설에도 가봤어요. 바로 코앞까지 와서 대사를 하는데, 얼마나 많은





노력과 시간을 쏟아부었는지 생생하게 느껴지더군요.”

그는 특히 첨단산업 분야 기업에 예술이 더욱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직원 대부분이 공대 출신입니다. 생각하는 범위가 매우 일관되고 한정적이죠. 부품 사양이 이 정도라면 조립해 나온 완성품도 딱 그만큼이거든요. 예술은 우리가 가진 사고방식과 세계관 자체를 흔들어버립니다. 우리 생각의 범위를 깨뜨려 그 이상으로 나아가게끔 할 수 있어요.”

메세나 활동을 더욱 확산시키기 위한 조언을 구하니 그는 대변 ‘기업들이 어딜 가서 뭘 해야 할지 모른다’고 답하며 기본부터 접근할 것을 조언했다.

“상공회의소 홈페이지에 들어가보세요. 수많은 기업의 정보가 있습니다. 메일로 홍보 자료를 보내는 것도 서울 메세나를 알리는 좋은 시작이 될 겁니다.” ^{김창제}

연극 <꽃순이를 아시나요>

은세계씨어터컴퍼니, 2015. 4. 25~5. 25, 이화여고 백주년기념관

부모와 자녀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뮤지컬. ‘꽃순이’는 1970~80년대 청춘을 보낸 부모님 세대를 지칭한다. ‘꽃순이’를 주인공으로 20대부터 60대까지의 사랑, 꿈, 고난, 행복을 당시 대중문화를 대표했던 30여 개 히트곡과 함께 엮어 향수를 자극한다. 한국 정통 로커로 불리는 권인하-도원경이 출연해 화제를 모았다.

글 김수윤 서울문화재단 성북예술창작센터 대리 | 사진 김창제

연극 <햇빛샤워> 선보이는 극작가·연출가 장우재

다시 돌아와 무대 앞에 선 이야기꾼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방황’ 또는 ‘일탈’의 시간을 보내고 연극계에 돌아온 그는 예전보다 훨씬 견고해졌다. 그리고 <여기가 집이다> <미국 아버지> <환도열차> 등 화제작을 잇따라 발표하며 ‘제2의 전성기’를 맞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신작 <햇빛샤워>를 선보이는 극작가 겸 연출가 장우재다.

이야기꾼, 다시 무대에서 보파리를 풀다

장우재는 1994년 김광보가 연출한 <지상으로부터 20m>의 극작가로 대학로에 데뷔했다. 당시 대학생이던 그는 희곡을 들고 연희단거리패의 이윤택 예술감독을 찾아갔다가 연출가 김광보를 소개받았다. 대학생의 작품이었지만 펄떡거리는 힘이 느껴지는 희곡이 두 연출가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이다.

이후 그는 호기롭게 대학을 그만두고 아예 프로 무대에 뛰어들었다. 하지만 그가 연극계의 주목을 받기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다. 2003년 극단 이와삼의 창단작으로 선보인 <차력사와 아코디언>과 이듬해 <그때 각각>은 그를 대학로에서 촉망받는 극작가 겸 연출가의 반열에 올려놓았다. 특히 <차력사와 아코디언>은 삼류 인생들의 남루하지만 용기를 잃지 않는 모습이 관객들에게 큰 감동을 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2006년 김광보 연출로 선보인 극단 청우의 <악당의 조건> 역시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이즈음 그는 연극 <그녀를 축복하다> <양덕원 이야기>에 배우로 출연하는 등 예상치 못한 행보를 보이기 시작했다. 그러더니 2007년 한국영화아카데미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차력사와 아코디언> 이후 연극계에서 주목을 받았지만 오래전부터 먹고사는 문제에 대한 고민이 많았어요. 작품은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현실적으로 돌아오는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장르를 바꿔보면 예술활동에 대한 적당한 보상이 있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어릴 때부터 막연히 영화를 해보고 싶은 꿈이 있었던 데다 연극이라는 매체의 특

성상 관객이 한정될 수밖에 없는 한계도 크게 느끼던 시기였어요.”

연극계에선 재능 있는 인재를 떠나는 게 속 쓰릴 수밖에 없었지만 그의 고민을 아는 만큼 붙잡을 수는 없었다. 그래도 그가 이끌던 극단 이와삼이 문을 닫지 않은 채 2008년 김은성 작, 전인철 연출의 <시동라사>를 무대에 올리는 것을 보면서 어쩌면 그가 완전히 영화계로 떠난 것은 아닐지 모른다고 생각했다. 실제로 2010년 그는 서울시극단에서 직접 쓰고 연출한 <7인의 기억>으로 복귀를 알렸다. 그리고 같은 해 <이형사님 수사법>과 이듬해 <자스민광주>로 위명업을 마친 뒤 지금까지 자신의 극단 이와삼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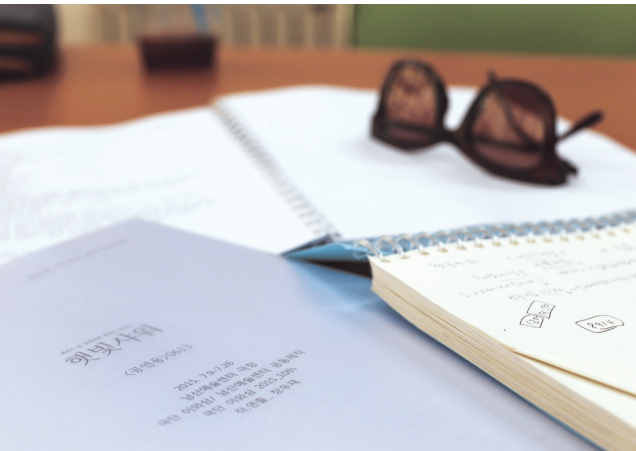
함께 활발하게 작품을 만들고 있다. 마치 그동안 연극을 떠나 있었던 것에 대한 보상을 하듯 왕성한 창작욕을 과시하고 있다.

“솔직히 영화계에서 자본의 쓴맛을 제대로 봤습니다. 제가 2009년 <과녁>이란 작품으로 영화진흥위원회 시나리오 공모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는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영화가 워낙 대규모 자본이 투입되는 분야인데, 최근 작가주의적인 작품이 설 여지가 정말 줄어들었어요. 그러다보니 제 작품도 초기 제작 과정에서 중단됐습니다. 사실 이렇게 중간에 엎어지는 작품이 한둘이 아닌데요, 그 기간에 저는 여기에 매달리느라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

데, 작업을 하지 않으니까 죽을 것 같더라고요. 돈 문제를 떠나서 작업이 아예 없으니 허전해서 살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가질 수 없는 것은 아예 버리자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제가 살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다시 연극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을 표현하기에 적당한 그릇은 연극이라는 것을 새삼 깨달은 거죠.”

연극계에 돌아온 그가 확실히 존재감을 알린 것은 2013년 초연된 <여기가 집이다>이다. 사회의 부조리한 단면을 보여주는 최근 그의 극작 스타일의 나침반 같은 작품이기도 하다. 이 작품은 고시원을 배경으로 다양한 인간 군상의 모습을 통해 집과 가족의 가치를 그리고 있다. 이야기





7월 9일 남산예술센터
드라마센터에서 선보이는
신작 <햇빛사위>로
장우재 연출은
바쁜 여름을 보내고 있다.

는 갑자기 세상을 뜬 주인 할아버지로부터 고시원을 물려 받은 손자 동교가 집의 ‘가장’으로서 월세를 받지 않겠다고 제안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사회 복귀를 목표로 삼았던 고시원 거주자들은 처음엔 의심쩍어하지만 점차 동교의 돈에 굴복해 현실에 안주하게 된다. 그러나 고시원에서 오래 지낸 장씨는 노력 없는 현재의 삶이 결코 희망이 될 수 없다며 반발한다. 관객에게 자신이 꿈꾸는 희망은 무엇인지 오래도록 곱씹게 만드는 이 작품은 대한민국 연극대상 대상과 희곡상, 올해의 연극 베스트 7에도 선정됐다.

“이 작품을 쓰게 된 계기는 특별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문득 보잘것없지만 ‘지금 살아가는 여기가 내 집’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같이 살고 있는 게 다 식구고 가족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야기를 만들어가면서 동교란 인물과 장씨란 인물이 보여주는 삶의 두 축 사이에 있는 인물들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생각해보고 싶었어요.”

장우재는 <여기가 집이다> 외에도 <미국 아버지>(2013 창작산실 대본공모 최우수작), <환도열차>(2014 동아연극상 희곡상)를 쉬지 않고 발표했다. 이들 작품은 무대 위에서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하는 것보다는 극중 인물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 사회에 대한 사유와 성찰을 이끌어내려 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햇빛사위>에서 이어지는 ‘삶’ ‘생존’을 향한 시선

7월 9~26일 남산예술센터 드라마센터 무대에 오르는 신작 <햇빛사위> 역시 이 같은 흐름 속에 있다. 지난해 남산예술센터가 주최한 <남산희곡페스티벌, 네 번째> 낭독공

연에서 첫선을 보인 이 작품은 달동네 사람들에게 연탄을 나눠주는 순진한 청년 동교와 살아남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하는 백화점 매장 직원 광자를 통해 비틀린 삶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두 주인공의 삶의 방식을 통해 희망은 과연 어디에 있는지 질문한다. 지난해 낭독공연에서 관객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이 작품은 이후 공동제작 공모 과정을 통해 올해 한층 수준 높아진 모습으로 돌아오게 됐다.

“<햇빛사위>는 원래 <여기가 집이다>에서 아이디어를 떠올린 작품입니다. <여기가 집이다>의 최씨 아내가 고시원에서 청소를 하다가 문득 좁은 창으로 들어오는 햇빛을 받아 몸에 발라보는 장면이 나와요. 그 장면을 우리끼리 ‘햇빛사위 신’으로 불렀는데, 이걸 제목으로 연극을 해보면 어떨까 생각했어요. <여기가 집이다>의 경우 내가 의도했던 것과 달리 관객 중에 작품을 낭만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어서 <햇빛사위>에선 가난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냉정하게 다루고 싶었어요.”

<햇빛사위>는 그의 말처럼 절망적이고 비극적인 이야기다. <여기가 집이다>에 이어 <햇빛사위>에도 나오는 동교는 매우 비현실적이고 이상적인 꿈을 꾸는 인물이다. 협동조합을 만들고 싶어 하는 그는 기존 체제에 의문을 던지지만 미숙할 뿐이다. 이에 비해 광자는 어릴 때 이름을 갖고 자신을 놀리던 친구를 칼로 찌른 뒤 감옥에 다녀온 전력이 있다. 자신의 불행이 이름 때문이라고 생각한 광자는 개명을 하면 삶을 바꿀 수 있을 거라 믿는다. 그리고 이를 위해 무슨 짓이든 거리낌없이 한다. 두 사람의 삶에 닥친 일련의 사건들은 과연 현대사회에서 우리 자신이 오롯이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는지 묻는다. 희곡을 업그레이드하는 과정에서 두 사람을 둘러싼 주변 인물들의 시선을 구체화한 것도 이 때문이다.

“체홉은 작품에서 삶 자체가 코미디지만 그래도 살아가야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저는 이렇게 살아가만 하는 것은 ‘생존’이라고 생각합니다. 현대사회에서 우리 개개인의 모습은 마치 우리 안에 갇혀 서로를 공격하는 쥐들 같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관객에게 생존으로서의 삶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들어보고 싶어요.”

이번 작품은 최근 그의 전작들과 마찬가지로 이야기 자체는 소소한 편이다. 사실 그의 극작은 구조적으로 탄탄하고 논리적으로 명료하기보다는 중간중간 일부러 비위



놓거나 드라마 전개를 비약시키기도 한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드라마틱한 내러티브 자체보다는 내러티브를 통해 우리 사회를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연극이 주로 엔터테인먼트로 소비되는 요즘 그의 시선은 진지하기만 하다.

“이야기만으로 연극을 파악하려는 자세는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 거라면 TV 드라마나 영화를 보는 게 낫죠. 연극에서 필요한 드라마성은 시대가 바뀌어도 읽혀질 만한 문학적 아닐까요? 그리고 연극을 엔터테인먼트 자체로 보는 시각에도 반대합니다. 물론 상업적으로 소비되는 작품도 있지만 그만큼 비상업적인 공연들이 두텁게 자리 잡고 있어야 해요. 그래야만 우리 연극 생태계가 튼튼해질 테니까요. 연극인들이 각자 나름대로 자신만의 방법을 찾아가면 된다고 봐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후배지만 이자람이나 양손프로젝트의 작업을 존경해요.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구상과 비구상의 균형감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의 창작열은 식지 않는다

연극계로 다시 돌아온 그는 이제 흔들리지 않는 것 같다. 영화를 공부하고 준비하던 시간은 분명 그에게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만큼 많은 것을 깨닫게 해준 모양이다.

“결과야 어찌 됐든 영화를 공부한 것은 큰 공부가 됐어요. 당연히 연극 작품에도 영향이 있고요. 영화와 연극의 내러티브 방식이 다른 게 당연하지만 제 자신은 어떤 공간에서 이야기를 풀어내는 문제에 대해 예전보다 과감해진 것 같아요. 물론 전통적인 무대 개념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젠 이야기적 공간 자체를 찾는 데 주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인지 연극이 점점 더 매력적으로 느껴집니다. ‘돌아온 탕아’를 받아주신 연극계에 정말 감사드려요.”

그는 앞으로도 하고 싶은 작업이 많다. 얼마 전부터 셰익스피어를 비롯해 고전을 새롭게 각색하고 있는 그는 서사극에도 큰 매력을 느끼고 있다. 그래서 창극이나 뮤지컬 등 음악극을 기존 방식과 다르게 써볼 생각이다.

“저는 연출가보다는 극작가일 때가 더 어울리는 편입니다. 연출가로서는 극장의 무대 운용 등에서 여전히 헤매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극작가로서는 쓰고 싶은 것이 너무 많아요.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제가 쓴 작품을 김광보, 이성열, 박근형 등 뛰어난 선배 연출가들이 연출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장우재의 창작열은 식을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⁵⁴

글 장지영 국민일보 기자, 공연 칼럼니스트 | 사진 김창제

연극 〈햇빛사위〉의 연습이 한창인 연습실.

메모리인(人)서울프로젝트 '서울의 아픔, 삼풍백화점'을 말하다

아픔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올해 6월 29일은 삼풍백화점 붕괴사건 20주기다. 도심의 대형 백화점이 부실 공사로 20초 만에 허물어진 사건은 개발만을 목표로 가속페달을 밟아온 한국 사회의 아픈 단면이었다. 메모리인(人)서울프로젝트는 '서울의 아픔'이라는 주제로 지난해부터 삼풍 사건과 관련한 시민의 기억을 수집하고, 이를 콘텐츠 연재와 전시로 이어가고 있다. 아픔을 기억하고 극복하고자 하는 이번 프로젝트의 참여자들이 모여 진행 과정과 의미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오진이

서울문화재단 시민문화본부장

자기 의지와 무관하게 닥친 사건·사고의 고통을 왜 개인이 평생 죄인처럼 짊어지고 살아야 하는지, 삼풍백화점 붕괴를 비롯해 많은 재난의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사회 오진이 서울문화재단 시민문화본부장
대담 엄광현 삼풍백화점 기획전시 큐레이터
김주영 다음(Daum) 뉴스펀딩 담당자
류진아 메모리인(人)서울프로젝트 기억수집가
임예원 서울문화재단 시민문화본부 공공예술센터
장소 서울문화재단 1층 책사랑

메모리인(人)서울프로젝트는 서울시민의 생활사를 채록해, 시민의 일상도 역사가 되게 하자는 취지로 서울문화재단에서 2013년에 시작한 사업입니다. 지난해 세월호 참사를 겪으며 공공 영역에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고민한 끝에, ‘서울의 아픔, 삼풍백화점’을 주제로 시민의 기억을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삼풍백화점 붕괴 20주기를 추모하며 기억 수집 내용을 바탕으로 전시와 뉴스 펀딩, 자료집 발간 등을 준비하게 됐는데요. 6월 29일 삼풍백화점 사건 20주기를 앞두고, 오늘은 프로젝트에 참여하신 분들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류진아 저는 2013년 처음 메모리인(人)서울프로젝트를 시작할 때부터 기억수집가로 참여해서 올해로 3년째 기억수집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작년에 재단에서 이 주제로 CoP(Community of Practice, 실행공동체)를 하면 좋겠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는 내키지 않았어요. 그때가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지 얼마 안 된 시점이어서 부담도 많이 됐고, 누군가 이런 작업을 하면 좋겠지만 굳이 내가 직접 하고 싶지는 않은 이 기적인 마음이 있었죠. 그런데 1기 기억수집가 몇 분이 모여 주도하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받았고, 처음에는 조금 미지근한 마음으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엄광현 저는 삼풍백화점 프로젝트의 기획전시를 맡고 있습니다. 삼풍백화점 사건을 오랫동안 잊고 지냈는데 서울문화재단에서 ‘이런 전시가 있는데 같이 만들어보지 않겠냐’고 제안하셔서 반가웠습니다. 전시를 위해 삼풍 사건에 대해 혼자 공부하면서, 분명히 그 당시에는 사건에 대한 기록이 많았을 텐데 사람들이 이를 많이 ‘잊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게 됐어요. 기억수집가 분들이 주로 관계자를 인터뷰해 조금은 주

관적인 기억을 기록한다면, 전시를 위해서는 당시 생산된 객관적인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김주영 저는 포털 사이트 다음(Daum)에서 뉴스펀딩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미디어 다음에서 세월호 사건 관련한 아카이빙 작업을 준비했는데, 당시에 그 일을 함께하시던 분 중 한 분이 메모리인(人)서울프로젝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에 대한 시민의 기억을 채록하고 전시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 ‘다음’을 통해 전시와 자료집 출간을 위한 펀딩과 함께 사건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도 받았으면 좋겠다고 먼저 제안을 주셨어요. 여러 면에서 저희 뉴스펀딩의 취지와도 잘 맞는 데다 의미도 깊은 일이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임예원 저는 서울문화재단에서 메모리인(人)서울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작년 8월부터 메모리인(人)서울프로젝트 기획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삼풍백화점을 주제로 한 기억 수집을 1, 2기 기억수집가를 비롯해 다양한 분들과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삼풍백화점 프로젝트 전시의 가장 중요한 자료는 기억 수집 내용이 될 텐데요, 시민을 만나 기억을 수집하는 과정이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류진아 기억수집가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은 인터뷰할 사람을 찾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신문, 잡지, 방송, 책, 논문, 판례 등 삼풍 사건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찾고, 15명이 분담해 리스트를 만들었어요. 구조나 의료와 관련된 분들, 검사, 경찰, 유가족, 생존자, 그리고 자원봉사자 등 사건과 관련된 여러 분야의 사람이 총 600명 정도 됐죠. 리스트는 모두 20년 전 자료에 근거한 것들이었고, 생존자나 유가족의 경우, 기록이 거의 남아 있지 않아 연락처를 찾는 게 쉽지 않았습니니다. 그리고 생존자나 유가족을 만나는 일은 저희도 처음엔 심적으로 부담이 됐고, 그나마 구조대나 의료진, 자원봉사자 등 관련자들은 연락처를 찾는 게 비교적 쉬웠던 터라 먼저 그분들을 만났어요. 그 과정을 2~3개월 정도 하고 나니 관련자들은 어느 정도 정리됐는데, 생존자나 유가족은 연락처를 찾기가 너무



류진아

메모리인(人)서울프로젝트 기억수집가

이 프로젝트가 하나의 이슈로 소비되고
끝나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 과정을 보시고 유가족이나
생존자분들이 조금 더 세상으로 나와
주변 분들에게 편하게 얘기하고 위로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올해 초부터 지하철 광고와 YTN에 자막 광고가 나가기 시작했죠. 작년 가을부터 올해 초까지 100여 명 정도 인터뷰를 진행했지만, 생존자와 유가족을 많이 만나지 못한 것이 가장 아쉬워요. 현재 삼풍유족회와 장학재단 등 삼풍 사건과 관련해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단체가 남아 있어요. 사실 저희가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그분들께 제일 먼저 연락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함께 진행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했던 점이 아쉽습니다. 유족회나 장학재단 관련 된 분들의 연락처를 찾는 과정이 쉽지 않았고, 어렵게 연락이 된 분들도 설득하기가 어려웠어요.

임예원 처음 연구 기간에는 관련 자료가 너무 방대해서 기업수집가 분들이 고생을 정말 많이 하셨어요. 연구 과정뿐만 아니라 계속 거절당하고 연락해나가는 과정이 정말 쉽지 않은데, 이를 감수하며 진행해주신 부분이 저는 가장 감사하고, 이분들이 저희의 가장 큰 자산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생존자, 유가족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인터뷰 의사를 타진하는 것 자체가 기억수집가, 제공자 모두에게 큰 부담이었어요. 섭외를 진행 하면서 좌절했다가도 유가족, 생존자분들이 직접 제보를 주시거나 저희 프로젝트 취지에 깊이 공감해주시고 참여 의사를 나타내주시면 또 함께 기뻐했다가, 그렇게 10개월을 보냈어요.

수많은 거절 속에서도 인터뷰가 성사된 예가 있지요. 무척 힘들었지만 보람이 컸을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펀딩 7화의 주인공이신 유가족은 실명을 공개하셨는데요.

류진아 7화 ‘비닐에 싸인 20년 전 삼풍의 명함’ 편 주인공 김문수 선생님은 희생자 유가족입니다. 당시 유족회에서 활동하셨는데, 사건 당시 유가족들이 지낼 체육관을 마련하고, 현장에 콘크리트 더미를 들어 올릴 중장비를 들여놓게 하는 데 큰 역할을 하신 분입니다. 너무나 고맙게도 저희에게 먼저 제보해주셨어요. 그래서 기억수집가가 찾아가 인터뷰하고 이분의 이야기가 다음 뉴스펀딩 7화에 공개됐지요.

임예원 기사가 올라가고 김문수 선생님이 기억수집가 분들께 ‘감사하

다’는 문자를 보냈다고 해요. 그래서 ‘오히려 폐가 될까 걱정했다’고 답장을 보냈더니, “전혀요. 전문가들이 하시는 일인데 오죽 잘하시려고요. 다들 많이 울었다고 연락 왔어요. 이런 아픔이 있는 사람인지 몰랐다고. 중국에 있는 동생에게 보냈더니 30분간 울었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답장이 왔어요.

류진아 김문수 선생님께서는 세월호 유가족들을 만나고 싶다고도 하셨대요. 그런 일을 먼저 겪었던 사람으로서 뭔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 또 해주고 싶다는 마음도 있다고요. 하지만 선뜻 다가가기 힘든 부분이 있어서 아직 세월호 유가족 분들을 만나지는 못했다고 해요. 그런 마음을 가진 분이 있고, 그분을 우리가 인터뷰해서 알게 됐다는 것 자체가 이 프로젝트의 성과였던 것 같아요.

다음 뉴스펀딩 이야기를 좀 더 이어갈게요. 어떤 주제의 글이 올라갈 때 네티즌의 호응이 있었나요? 처음 올라갔을 때, 20년이 지난 아픈 기억을 되돌린다는 것에 대한 회의적인 댓글 등 부정적인 내용이 눈에 많이 띄었습니다. 불편하고 낯선 기억에 대한 거부감인가 싶었는데요.

김주영 일단 1화(‘20초 만에 와르르 무너져 내린 백화점’ 편)와 2화(‘삼풍서 아이들과 살아나온 주부’ 편)의 반응이 가장 좋았고, 그다음이 방금 얘기한 김문수 선생님의 에피소드입니다. 물론 당시 공무원들의 이야기라든지 구조대 이야기도 독자들의 마음을 움직였지만, 아직도 명함이 상할까봐 비닐에 넣어 지니고 다닌다는 사연에 독자들이 많이 공감하고 펀딩에도 관심을 보였어요. 사실 포털 사이트의 댓글란이 청정지역은 아니에요. 포털 메인에 아무런 여과 없이 노출되는 콘텐츠이기 때문인데, 다른 기사에 비하면 뉴스펀딩 콘텐츠에 달리는 댓글은 굉장히 호의적인 편이지요. 세월호 사건과도 맞물려서 ‘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또 이런 일이 반복됐다’는 얘기가 빠지지 않고 나오거든요. 다른 기사들의 경우 소위 악플러들이 악플을 전문적으로 달면 여기에 적극적으로 반박하는 댓글이 없지만, 삼풍 프로젝트에 달리는 댓글에



김주영

다음(Daum) 뉴스편딩 담당자

삼풍 콘텐츠 댓글에는 세월호 사건과 맞물려서 '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또 반복됐다'는 얘기가 빠지지 않습니다. 악플에 반박하고 희생자 모독을 막으려는 자정의 움직임도 발견되지요.

는 악플에 반박하고 희생자 모독을 막으려는 자정의 움직임이 있어요. 사실 처음에 심한 댓글이 달리진 않을까 우려했는데 오히려 이런 움직임이 발견되고 있지요.

댓글의 자정작용이 있어 다행입니다. 이번엔 전시 쪽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를 주제로 전시를 준비하면서 어떤 방향을 잡으셨는지요.

엄광현 전시를 준비하며 찾아보니 알게 모르게 20년 동안 관련 자료가 꾸준히 나오고 있었더군요. 그런데 제가 느낀 것은 '하나도 바뀐 게 없다'는 점이었어요. 그 당시에 언론에서 한국 사회를 신랄하게 비판한 글이 무척 많고 발언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세월호 사건이 있었잖아요. '도대체 한국은 변한 게 무엇일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도 반성하게 됐어요. 전시를 준비하면서, 그 시대로 돌아가서 당시의 기억을 모아 우리는 과연 지금까지 뭘 생각하며 살았나 한 번 보여주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았습니다. 지금껏 망각해왔기 때문에 한 번 정도 데이터를 끄집어내 모으고 이것을 축적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과연 반성할 게 뭘까, 되짚어봐야 할 게 뭘까, 이런 점에 초점을 맞춰 전시를 준비하고 있어서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좋은 기회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어려운 것이, 저작권 동의를 얻는 과정에서 'no' 하는 데가 너무 많아요. 이렇게 자료가 모아지지 않고 산산이 흩어진다면 앞으로 100년, 200년 이 흘렀을 때 정확하게 축적된 기록이 없어 '그때가 옳았다, 아니다'라는 판명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런 점이 전시를 준비하면서 느끼는 아쉬움이죠. 재단에서 이런 기회를 마련해서 그나마 쌓는 게 있고, 앞으로 더 쌓아갈 것이 과제로 남은 것 같습니다.

삼풍 사건에 대해 알고 있던 것도 있지만, 이번 기회에 그 이면을 새롭게 알게 된 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독자들의 경우 뉴스편딩 글을 읽으면서 공감의 눈물을 흘리는 등 일종의 치유 과정을 겪는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엄광현 저는 20년 전 신문 자료를 많이 뒤졌는데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

이 많았어요. 신문 지면 윗부분에는 삼풍 사건에 대한 가슴 아픈 기사나 현장의 사진들이 게재됐는데 아랫부분에는 삼풍백화점이 내걸었던 '행복한 생활' '화려한 생활' 등의 슬로건을 담은 광고가 붙어 있는 거죠. 광고주와 신문사의 잘못은 아닐 것입니다. 다만 당시 우리 사회가 어땠는지 읽어볼 수 있는 자료인 거예요.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너무 빨리 잊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삼풍 사건이 무척 큰 사건이었기 때문에 최소한 한 달은 보도가 됐으리라 짐작했지만, 사건 발생일로부터 14~20일 지나니 사회면에 단순 사건 정도의 비중으로 실리는 걸 보면서 '한국 사회는 어떤 지점을 향해 가는 것인가'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됐습니다.

임예원 저는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기억제공자나 기억수집가 등이 프로젝트에 공감해주시는 분들이 프로젝트의 의미를 채워주시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뉴스편딩에 공감해주시는 네티즌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제가 받은 제보 전화 중에 '이 프로젝트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의 전화도 있었어요. 굳이 20년 전의 부끄러운 과거를 꺼낼 필요가 있느냐는 민원 형식의 전화도 많아서 예상했던 것과 다르다고 느꼈죠. 그러다가도 인터뷰를 진행할수록 의미를 되짚어주시는 분이 많았고, 가치를 채워주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런 데에 이번 프로젝트의 의의가 있는 것 같고요.

류진아 그래도 20년 전보다는 지금이 나올 거란 생각으로 프로젝트를 시작했는데, 저는 결국 한국 사회가 후퇴했다고 보게 됩니다. 일부 좋아진 부분은 있지만,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는 더 나빠졌거든요. 뉴스편딩 6화('삼풍백화점 붕괴... 피 흘리는 희생 사람들' 편)에 의뢰된 분들을 만난 내용을 썼는데 삼풍백화점 사건을 계기로 그나마 나아진 부분이 있다면, 병원마다 응급센터가 생기고,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생겼다는 점, 긴급구조 시스템이 119로 통합됐다는 것 정도예요. 삼풍 사건을 계기로 자원봉사 단체가 많이 생겨났고, 이것이 지역사회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큰 역할을 담당하게 됐지만, 이런 정도로 '나아졌다'고 하기엔



임예원

서울문화재단 시민문화본부 공공예술센터

‘이 프로젝트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의 민원도 있었어요. 굳이 20년 전의 부끄러운 과거를 꺼낼 필요가 있느냐는 전화도 많았지만, 인터뷰를 진행할수록 의미를 되짚어주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피해가 너무 컸어요. 그런 정도로는 발전이라 말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참 어렵고 아쉽게 느끼는 부분은 유가족이나 생존자가 숨어 살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뉴스편당 1, 2화까지는 ‘이씨’ ‘김씨’ 등으로 적어 콘텐츠에 실명을 공개하지 않았어요. 포털 사이트에 공개되는 것보다보니, 인터뷰를 해준 생존자나 유가족이 댓글 등으로 아픔을 다시 겪는 상황은 최대한 막아야 한다는 생각에 저희가 먼저 ‘어떻게 하면 숨겨줄 수 있을까’ 고민한 것이죠. 20년 동안 스스로 숨어 살아왔는데 지금도 우리는 그분들을 숨겨줘야 하는 거예요. 유가족이나 생존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정리하면서도 이해관계가 상충돼 논란이 될 만한 부분들은 최대한 뺐고요. 그러다보니 이 이야기가 ‘큰 고통을 겪었던 사람들의 수기를 넘어서지 못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부분은 논란이 되도록 얘기를 좀 더 해서 ‘우리가 그때 할 수 있던 일이 무엇일까’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게 분위기를 만들었어야 하는 건 아닌가, 그저 마음 아프고 슬픈 얘기로만 마무리하는 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개인적으로 들더라고요.

김주영 사실 저는 삼풍 사건에 대한 기억 자체가 없어요. 당시에 초등학생이어서 뉴스에 보도된 단편적인 이미지만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프로젝트를 진행하다보니 저 같은 세대에게는 이게 갑자기 현실화돼서 보이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댓글에도 많습니다. 저희 독자층에는 10~20대도 많은데, 세월호 피해자들과 같은 나이대인 그 친구들에게는 삼풍 사건이 마치 세월호 사건과 평행이론처럼 보이는 거죠.

류진아 저희가 만난 몇 안 되는 생존자나 유가족 분들은 어느 정도 스스로 치유하신 분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락을 주시고 인터뷰에 나설 수 있던 것이죠. 제가 만난 생존자 중 한 분은 백화점에서 나오다가 사고를 당했어요. 그분은 지하철 광고를 보고 저희에게 연락을 주셔서 만날 수 있었어요. 아무도 기억하지 않고 다 잊어버린 줄 알았는데, 삼풍백화점 사고를 기억하는 작업을 해줘서 고맙다고 이야기하셨고, 저희 역시 연락을 주신 게 너무나 고맙았죠. 그런데 그분이 가족들에게 인

터뷰 얘기를 했을 때 반응이 굉장히 부정적이었던 거예요. ‘왜 쓸데 없이 그런 데 연락해서 인터뷰를 했느냐’며 인터뷰한 것을 취소할 수 없다고 했다더군요.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생존자나 유가족들은 아직 이렇게 쫓겨 숨어 계세요. 세월호 사건 피해자들도 이제 점차 숨기 시작하는 것 같고요. 피해자들은 숨고, 또 누군가는 이분들을 숨겨야 하는 사회라는 게 안타깝습니다. 큰 아픔을 겪었으면 그때 정말 힘들었고 지금도 힘들다는 얘기를 주변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돼야 하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 서로 위로하고 보듬어주는 사회 분위기가 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역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라는 질문이 무겁게 남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기억 수집 내용이 다음 뉴스편당 콘텐츠와 전시로 이어지고, 삼풍 이야기 중 일부가 오세혁 작가의 작창을 거쳐 안숙선 명창의 판소리로 공연됩니다. 이처럼 기억 수집이 여러 예술 콘텐츠로 확산되는 데에 의미가 남다른데요. 다른 장르나 방식으로 어떻게 하면 공유의 폭을 넓힐 수 있을까요.

임예원 판소리 대본을 쓴 오세혁 작가님이 한 인터뷰를 통해 말씀하시길, 이번 작업을 마치기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다고 해요. 쓰기 쉽지 않은 이야기라서 펜을 들기까지 너무 힘들었다고 하면서, 하나의 스토리를 만들어야 하기에 조금밖에 다룰 수 없는 게 안타깝다고 하시더라고요. 100여 명의 이야기를 살피며 깜짝 놀라고 울기도 하면서 준비하셨는데 이 이야기를 20분의 한 판소리에 담을 수밖에 없다는 게 너무 아쉽고, 기회가 된다면 연작으로 하고 싶다고까지 하셨어요. 이처럼 예술가 분들이나 이야기를 확산하고 싶은 분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고, 또 그렇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임광현 전시에서는 시민 참여 코너를 만들어요. 전시를 보시는 분들이 메시지를 남길 수 있게 할 예정인데, 재단에서 가능하다면 이번에 만들어놓은 데이터를 보관하셨다가 20년 뒤에 다시 공개한다면 어떨까 합니다. 일종의 타임캡슐이잖아요. 삼풍 사건 이후 20년 동안 변화된 것



엄광현

삼풍백화점 기획전시 큐레이터

우린 너무 빨리 잊고 지워버린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프로젝트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억들을 보관하고 수집하는 작업이 꾸준히 진행되는 계기로 작용했으면 합니다.

과, 20년 뒤에는 어떻게 변했을까를 보는 전시를 만들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30~40년 뒤 삼풍 사건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에게는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계기가 될 수 있을 테니까요.

9·11테러가 일어난 장소인 '그라운드 제로'에 다녀온 적이 있는데, 그들은 참사의 아픔을 숨기지 않고 그대로 내보이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시민의식을 고양합니다. 반면 한국 사회는 흔적을 지우고 감추는 데 연연하죠. 삼풍백화점이 있던 자리에 워킹탑 세우는 것도 반대에 부딪혀 사고와 무관한 '양재 시민의 숲'으로 쫓겨가고 그 자리에는 주상복합아파트가 들어설 정도인데요. 사회적 트라우마에 대응하는 방식은 20년 동안 한발도 나아가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 시점에서 반성과 다짐을 마무리로 들겠습니다.

엄광현 이 프로젝트는 삼풍 사건의 기록을 수집하고 보관해 사회적으로 발언하는 계기입니다. 우린 너무 빨리 잊고, 지워버린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국 근현대사를 보면 삼풍 사건뿐만 아니라 성수대교 붕괴 사건도 있고, 최근에는 세월호 침몰이라는 큰 사건도 있었는데, 아픈 일은 우리 사회에서 너무 쉽게 잊히죠. 이번 메모리인(人)서울프로젝트가 앞으로의 세대를 위해서 자잘한 기억들을 여러 기관에서 보관하고 수집하는 작업이 꾸준히 진행되는 계기로 작용했으면 합니다. 이번 전시 역시 한국 사회가 과연 미래를 위해 뭘 준비해야 할까, 그리고 뭘 남겨줘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볼 수 있는 전시가 되었으면 하고요, 재단에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원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류진아 뉴스펀딩을 시작하면서 기대 반, 우려 반이었어요. 댓글의 반응이 궁금하면서도 두렵기도 했죠. 세월호 유가족을 대하는 태도와 삼풍백화점에 관련된 이야기를 대하는 태도가 크게 다르지 않더라고요. 공감 능력이 정말 없는 게 아닐까, 그리고 그런 일이 나에겐 일어나지 않으리란 확신을 어떻게 가질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과 이 상황이 과연 나아질 수 있을까, 사실 반신반의합니다. 어쨌든 콘텐츠가 10화로 마무리되어도 그저 하나의 이슈로 소비되고 끝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래서 이런 과정을 보시고 숨어 있는 유가족이나 생존자 분들이 좀 더 세상으로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한 분이라도 마음이 좀 편안해져서 그런 얘기를 주변 분들에게 편하게 얘기하고 위로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주영 뉴스펀딩이 크라우드펀딩의 하나이긴 하지만 단순히 돈을 받는 플랫폼은 아니에요. 온라인에서는 영화 한 편도 몇 백 원이 넘어가면 안 보게 되는데, 여기에 1,000원, 1만 원을 낸다는 것은 보시는 분들의 마음이 움직여서 기꺼이 응원하겠다는 아름다운 움직임이라고 봅니다. 125명 정도가 후원했는데, 저는 이게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특히 돈을 내기가 쉽지 않은 온라인 상황에서는요. 이 125명이 어떤 선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세월호를 포함해, 다시는 이런 프로젝트를 오픈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가 오길 바랍니다.

임예원 메모리인(人)서울프로젝트는 서울에 대한 기억을 수집하고 이를 문화 콘텐츠로 만드는 것을 하나의 목적으로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 기저에는 '경청과 공감의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바람이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기억을 제공해주신 김문수 선생님께서 지인으로부터 '이런 아픔을 가진 사람인지 몰랐다'는 문자를 받았다고 하셨잖아요. 이 프로젝트가 사람과 사람 간에 점점 줄어드는 공감과 경청의 문화를 조성하는 계기로 작용했으면 좋겠고, 또한 꺼내기 힘들어 문힐 수밖에 없는 이야기들을 용감하게 걸어올린 메모리인(人)서울프로젝트가 앞으로도 이런 역할을 계속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구체적인 이야기를 함께 나누니 감회가 새롭고, 소중한 일들을 해주시고 있다는 고마운 마음이 듭니다. 삼풍백화점 기록 프로젝트가 연말까지 이어지는 만큼 이번 전시와 공연을 계기로 지금까지 숨어 있던 많은 생존자와 유가족이 메모리인(人)서울 프로젝트 앞으로 다가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리 이정연, 이아림 | 사진 김창제



첫 번째 개인전 <PRESENCE+ing>에서 전시한 작품 중 <Now, we are.>
(부암동 윤동주 문학관. 이소진 건축가(이들리에 리움 대표) 작업).

건축사진가 진효숙

건축물과의 대화를 빛으로 그리다

사진을 ‘빛으로 그린 그림’이라 일컫는다. 그것이 또한 작가가 피사체와 나눈 대화의 기록이라면, 건축사진은 건축가의 고민에 사진가의 해석이 함께 응축돼 탄생하는 기록이자 작품일 것이다. 집과 ‘삶의 환경’에 대한 관심이 커지며 대중문화의 영역으로 한발 들어선 건축. 그 건축을 사진으로 담는 일 역시 세심한 관찰과 고민이 필요한 작업이다.

아직 생소한 ‘건축사진가’로 일하기까지

‘좋아하는 것을 직업으로 삼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나는 매우 운이 좋게도 가장 좋아하고, 하고 싶고, 잘하는, 사진 찍는 일로 먹고산다. 더욱 운 좋게도 내게 일을 주며 함께 좋은 작업을 만들어가고자 하는 클라이언트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고 좋은 에너지를 나눈다.

대학 재학 시절 신문방송학을 전공하며 ‘보도사진연구회’라는 국내 동아리 활동으로 꾸준히 사진을 찍을 수 있었다. ‘사진을 찍는다’는 행위의 매력과 사진을 찍는 ‘작업’으로부터 보고 생각하고 알게 되는 많은 일 덕분에 나는 졸업 후에도 사진 찍는 일을 해야겠다는 꿈을 갖게 되었다. 휴학 후 1년 동안 광고사진교육원에서 사진교육과정을 수료하면서 교육과정의 말미에 다양한 전문 분야의 사진 작업을 접했는데 그 중 건축사진을 실습하는 과정에서 ‘내가 찾던, 원하던 사진의 길이 이것이다!’라는 느낌을 받고 건축사진을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돌이켜 보면 좀 낮간지럽지만 말이다.

본격적인 작업을 하기 전에 건축사진 전문가 선생님을 따라다니며 2년 반가량 수업을 받기도 했다. 현장에서 작가 선생님의 작업을 보고, 간혹 과제를 내주시면 고민해보고 사진을 찍어 그 사진에 대해 얘기하는 방식의 수업이었다. 그때만 해도 건축사진은 건축 분야 내에서도 그 전문성이 잘 알려지지 않아, 건축가들도 전문가에게 사진을 맡기는 것이 익숙하지 않을 때였다. 소개로 일을 조금씩 시작하면서 후에 건축잡지에서 일하게 됐지만, 처음에는 일하기가 매우 어려웠고 시간이 많을 때엔 틈틈이 책을 읽으며 내가 할 수 있게 된 어떤 일에도 감사했다. 시작할 때는 정말 하루하루 사진을 찍고 싶었다. 그 절실한 마음을 지금도 잊지 않으려고 한다.

건축을 전공하지 않았다는 점이 부족한 점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고민도 많았다. 사실 나는 사진가이기에 건축물을 이미지로 이해하고 이해를 넘어서는 감동을 받도록 사진 찍는 것이 일이지만, 부족하게 느끼는 부분은 책과 강연의 도움을 많이 받아 극복하려고 한다. 다행히 요즘에는 다양한 주제와 콘셉트의 건축 관련 책이 출판되고 있어 건축가의 고민과 지향하는 가치관, 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세미나와 강연, 전시회에서 함께 고민해볼 수 있는 얘기를 듣는 것도 좋다.

건축가의 의도와 사진가의 고민이 만나는 건축사진

건축사진가의 활동 분야로 가장 일반적인 것은 역시 건축전문잡지다. 건축사진가 대부분이 다양한 매체와 함께 작업을 하고, 나 역시 프리랜서로 여러 잡지의 의뢰를 받아 작업했으며 지금은 건축전문지 <와이드>의 전속작가로도 활동 중이다. 여러 건축가의 의뢰를 받아 촬영하기도 하는데, 요즘엔 건축가들도 다양한 매체에 노출되면서 사진작업을 많이 의뢰하는 편이다.

건축가가 표현하고자 한 그 건축물의 본질적인 모습을 사진에 아름답게 담는 것이 사진가의 일인 만큼 나는 내가 찍어야 할 건축물과 처음 만나면 여러 가지 상상을 한다. 어떤 모습으로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어 이미지화할 것인지를 생각하는 것이다. 전체적인 흐름을 고민하고 그 대상을 가장 잘 표현할 공간과 면과 부분을 찾는다. 그리고 가장 적절한 빛과 만나는 시간을 찾는다. 가장 좋은 시간대에 가장 좋은 모습을 찾아 담는 것이 사진을 찍으면서 늘 신경 쓰는 부분이다.

건축사진 작업은 기본적으로 상업적인 사진 활동이다. 의뢰인인 건축가가 있고 사진가는 촬영할 대상을 의뢰받아서 찍는데, 그럼에도 결과물의 많은 부분이 사진가의 고민과 결정에 의해 만들어지는 편이다. 물론 사전에 건축가와 되도록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공간과 디자인 의도를 이해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며, 이를 바탕으로 사진가의 해석을 더해 작업을 완성한다. 상업사진이지만 작업 과정에 사진가의 작가적 고민이 반영되는 것이 건축사진의 가장 큰 매력인 듯하다.

건축사진을 일로 삼은 후 내가 살고 있는 환경과 공간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크게는 계절의 변화부터 작게는 하루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까지 세심한 관심을 가져야만 보고 느낄 수 있는 많은 것을 알게 된 것이다. 건축사진 작업은 피사체가 외부에 있고 계절별로 대상의 분위기가 다르기에 이를 고려해 환경의 변화에 민감해야 하며, 하루 해가 뜨는 시간부터 지는 시간까지 빛의 작은 변화에 따라서도 달라지는 모습을 사진에 담아야 하기에 빛에 대한 세심한 관찰이 필요하다. 건축사진 작업은 이런 관찰에 감성이 더해져 이루어지기에,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사는 주변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도 작업의 큰 매력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이 최선일까’... 끊이지 않는 고민으로부터

모든 일이 그렇듯 좋아하는 일이든 그렇지 않은 일이든 스트레스는 있기 마련이다. 현장에서 촬영할 때에는 ‘왜 이것을 찍는 것일까’ ‘더 좋은 위치는 어디일까’ ‘이것이 과연 최선일까’ 하는 생각을 멈추지 않는다. 나만이 할 수 있는, 더욱 뚜렷한 생각이 담긴 작업을 해야 한다는 강박 관념도 있고, 가끔은 내가 좋아하는 일을 더는 직업으로 가질 수 없는 때가 온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걱정도 한다. 그래서 개인 작업에도 게으름을 피워서는 안 되겠다고 마음의 끈을 조인다. 때때로 내가 고민 하는 주제와 맞닿은 대상을 만나면 상업적인 활동 안에서 개인적 작업도 동시에 진행한다. 작년에는 개인전을 열어 그렇게 작업한 사진도 전시했다. 이 모든 일, 생각, 고민, 걱정이 즐거움과 적절히 섞여 작업의 원동력이 되는 것이라 믿는다.

건축사진가로서의 바람이 있다면, 건축사진이 자료일 뿐만 아니라 건축을 표현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더욱 많은 사람이



조재원 건축가(01_studio 대표)가 작업한 집 'Floating-L'(제주도 소재)을 촬영한 작품 <Floating-여름>.

알았으면 하는 것이다. 요즘에는 건축 관련 책과 매체가 다양하고 일반 대중도 많은 관심을 갖는 추세여서 사진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는 것을 실감한다. 사진가가 어떻게 사진으로 담아내느냐에 따라 건축물이 가진 매력이 달리 보인다. 앞으로 사진가에게 작업을 의뢰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해본다.

건축사진가가 되려면?

- 1 건축사진가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반드시 사진을 좋아해야 한다.
- 2 돌아다니는 일도 즐길 수 있어야 하기에 든든한 체력과 건강은 빠질 수 없는 조건이다.
- 3 주위 환경에 대해 세심하게 관찰하는 관찰력도 필요하다.
- 4 부지런함을 갖추면 더없이 좋다.

글·사진 진효숙 도시와 집과 사람을 찍는 건축사진가이자 사진가. 도시와 건축 안에 사람의 향기와 마음을 담기 위해 고민한다. 새것만큼이나 낡고 황폐한 것이 주는 아름다움에 빠져 있다. 책 작업으로는 우리나라의 오래된 아파트를 사진 기록으로 남긴 <대한민국 아파트 발굴사>(장림중·박진희 공저)와, 집 '잔서완석루'에 대한 3년여의 시간을 사진으로 담은 <제가 살고 싶은 집은>(송승훈·이일훈 공저)이 있다. 중요하고 넓은 아파트의 현재 진행형의 모습을 담은 사진들로 <PRESENCING>(원도시 건축갤러리) 전시회를 열었고, 2012년 건축사진가들의 단체인 <건축도시기행>(헤이리 모아갤러리)에 참여했다. 2014년 월링앤딜링 갤러리에서 제1회 개인전 <PRESENCE+ing>을 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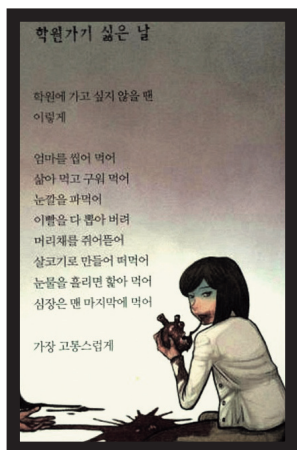
텅 빈 서울

서울역 고가도로



초등생의 ‘잔혹동시’ 논란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

아이들이 처한 ‘잔혹한 현실’을 바로 볼 것



‘잔혹동시’ 논란은 ‘초등생의 잔혹동시 충격… 그것을 책으로 낸 어른들’이라는 어느 신문 기사에서 시작됐다. 이모(10) 양의 동시집 <솔로강아지>에 수록된 ‘학원 가기 싫은 날’이라는 시를 문제 삼은 것이다. ‘심장은 맨 마지막에 먹어/ 가장 고통스럽게’로 끝나는 시에는 입가에 피를 묻히며 심장을 먹는 소녀의 삽화도 곁들여졌다. 출판사는 어린 작가의 의도를 생각해 가감 없이 실었다고 설명했다. 초등학교 5학년인 이양은 이전에도 시집을 낸 적이 있다.

‘잔혹동시’ 이슈는 온라인 기사로 퍼지면서 포털 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들었다. 주요 일간지는 물론 방송 뉴스에서도 이를 다뤘다. 논란이 증폭되자 해당 출판사는 시집을 전량 수거해 폐기하기로 결정했다. 이

학원에 가고 싶지 않을 때
이렇게

엄마를 씹어 먹어
살아 먹고 구워 먹어
눈깔을 파먹어
이빨을 다 뽑아 버려
머리카락을 쥐어뜯어
살코기로 만들어 씹먹어
눈물을 흘리면 찾아 먹어
심장은 맨 마지막에 먹어

동시 ‘학원 가기 싫은 날’ 중

지난 5월 5일 어린이날 한 일간지에 게재된 기사로부터 초등생의 ‘잔혹동시’ 논란은 촉발됐다. 시의 충격적인 표현 때문에 SNS를 통해 급속도로 퍼진 해당 기사와 동시는 ‘이 시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와 함께 다소 공격적인 논쟁 속에 결국 출판사의 시집 전량 수거 및 폐기 조치로 일단락됐다. 논란이 한풀 꺾인 뒤, 10대들은 이를 어떻게 바라봤는지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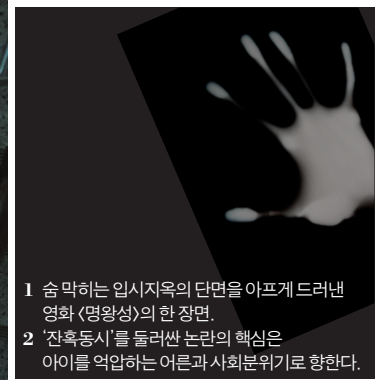
양의 부모는 이에 반발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시집 회수 및 폐기 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페이스북 등을 통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 시는 아이들을 숨 실 틈도 주지 않고 학원에서 학원으로 돌리는 한국 사회 현실에 대한 비판적 우화입니다. 패륜 동시로 여론 물의를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런 분위기들이 아이들을 창의적이고 개성적으로 이 나라에서 자라지 못하게 하는 토양인 것입니다.”

잔혹동시 논란은 분분했다. 문제의 시를 제외한 다른 시에서 재능이 빛난다는 찬사를 보내는 이들도 있었고, 그 정도 수준의 동시를 쓰는 어린 시인은 이미 많으며, 문제의 시는 문학적 가치를 거론할 가치가 없다는 반박도 있었다. 평론가 진중권은 ‘순수한 동심’이라는 어른들의 판타지를 깬 것이 ‘잔혹동시’ 논란의 핵심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하지만 시를 쓴 이양을 두고 ‘패륜’ ‘사이코패스’라는 인신공격성 악플이 달리고, 일부 종교 단체에서 ‘아이의 시적 영감이 사탄의 영에 의해서 온다’는 비판까지 나오자 결국 이양의 부모는 출판사의 폐기 결정을 받아들였다. 이양은 거센 논란 탓에 한동안 학교에도 가지 못했다. 이양은 잔혹동시보다 더 잔혹한 현실과 마주한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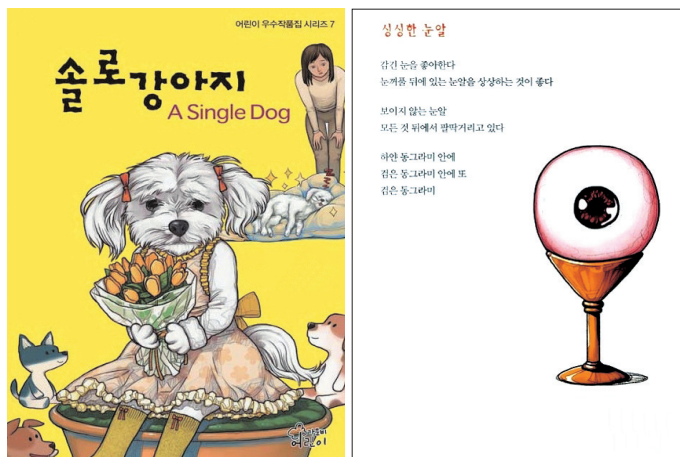
필자는 10대들을 위한 주간 신문 <소년중앙>의 편집장을 맡고 있다. ‘잔혹동시’ 논란이 한풀 꺾인 뒤 조심스럽게 독자에게 의견을 물었다. “극단적인 표현에 충격을 받아 잠이 안 왔다”는 소감부터 “10대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더 잘 반영한 시”라는 공감의 글까지 다양한 답이 나왔다. 이번 사태가 이양의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건 공통적이었다. 어릴 때부터 숨 실 틈 없이 학원을 전전하는 현실, “어쩌면 잔혹동시보다 더 과격한 표현을 해야 할



1 숨막히는 입시지옥의 단면을 아프게 드러낸 영화 <명왕성>의 한 장면.
2 '잔혹동시'를 둘러싼 논란의 핵심은 아이를 억압하는 어른과 사회분위기로 향한다.

정도로 극심한 억압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겠냐”는 아이들의 질문 앞에서 어른들은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

<소년중앙> 토론방에는 엄마들이 불쑥 끼어들기도 했다. 내 아이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잔혹동시'를 이슈로 다룬 것 자체가 불쾌하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다행히 진지한 토론 속에서 성난 엄마의 기세는 한풀 꺾였고, 아이들의 의견을 정리한 기사는 SNS에서 활발히 공유됐다. 기존의 잔혹동시 논란에서 흔히 보였던 악플 대신 “아이들에게 배운다”는 댓글이 달렸다. 필자 역시 읽으며 감탄했던, 잔혹동시 현상을 잘 꼬집은 <소년중앙> 학생기자의 글을 함께 소개한다.



논란이 된 동시집 <솔로강아지>의 표지(앞·뒤면).

잔혹동시에 담긴 우리들의 일그러진 자화상

친구들, 선배들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포래들의 생각은 “학원이 진짜 지긋지긋했나보다”였습니다. “표현이 좀 무시무시하긴 하더라”는 얘기도 있었죠. 학생들은 자의, 타의로 이 학원 저 학원을 전전합니다. 그리고 자의에 의한 것이라고 해도 스스로의 부족함을 채우려는 적극적인 배움의 자세보다 다들 다니는 학원을 혼자 안 가면 안 될 것 같은 기분에 다니는 친구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마시를 쓴 학생 역시 학원에 대한 압박은 남달랐을 겁니다. “가서 한 자라도 더 배우는 게 좋잖아”라는 엄마의 뜻을 앞에서 대충고 싶다고는 못 했을 겁니다. 엄마 말이 틀리진 않으니 까요. 아마 어디에서라도 이 감정을 배출하고 싶었을 것이고 그게 격하게 나오다보니 우리가 읽는 시가 되었을 겁니다. 딱 일기는 일기장에 썼으면 좋았을 것을 말이지요.

문제는 시인인 엄마가 이 시의 ‘가치’를 알아봤다는 데 있을 겁니다. 그러니 평범한 부모라면 펼쳐 될 표현이 담긴 두툽한 습작노트를 시집으로 냈겠지요. 특별 스펙을 다만드는 요즈음에(대회를 만들어 자기 자녀를 1등으로 만드는 일도 한다고 들었습니다) 시집은 꽤 고상한 스펙이 될 테죠.

벼랑 끝에 서서 압박에 안 남은 아이가 소리를 지르는데 부모는 그 광경이 멋지다며 사진을 찍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기막힙니다. 부모는 아이의 앞길을 생각을 하긴 했는데 너무 ‘나만의 방식’을 들이댄 것 같아요.

이런 부정적인 사건에서 언론은 언제나 좀 더 극적인 상황이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야 독자와 시청자의 눈을 붙잡아두니까요. 읽는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훈훈한 미담보다는 ‘어머머, 개가 그랬대? 미친 거 아니냐?’하는 가십성 기사에 더 열광하죠. 그리고 더욱 더 상처를 heap는 기사를 부르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언론이나 독자나 반성할 부분입니다. 문학은 어떤 식으로든 그 시대를 반영합니다. 이번 일은 액자 구성의 콩트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많이 일그러진 콩트.

이도겸(서울 공진중 2) <소년중앙> 학생기자

글 이경희 중앙일보 기자, 키즈팀장. <소년중앙> 편집장 겸 키자니아 매거진 편집장

인디스페이스와 부산국제영화제 지원금 삭감 논란

영진위의 거듭된 ‘자가당착’ 행보

지난해 부산국제영화제와 부산시의 갈등은 ‘꺼지지 않은 불씨’에 불과했다. 영화진흥위원회가 민간 독립영화 전용관인 인디스페이스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부산국제영화제의 예산 규모 역시 예년의 절반 수준으로 삭감하며 영화계 탄압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영화 진흥’과는 반대 방향으로 향하는 영진위의 행보가 우려스럽다.

“이사가 지겨워요.” 이현희 인디스페이스 사무국장이 말했다. 지난 5월, 이사를 앞둔 광화문의 독립영화 전용관 인디스페이스는 서울환경영화제를 치르는 자원봉사자들로 북적였다. 인디스페이스는 6월 종로구 서울극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2007년 국내 최초의 독립영화 전용관으로 명동의 중앙시네마에 자리를 잡은 게 시작이었다. 2009년 12월까지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의 위탁으로 운영되다 갑작스레 공모제로 바뀐 후 참여하지 않고 휴관했다가 여러 영화인의 후원으로 민간기구로 독립해 광화문에 자리 잡은 게 2012년이다. 이번이 세 번째 이사인 셈이다.

렵다. 최근엔 더욱 힘 빠지는 일이 있었다. 영진위가 지원금을 끊었기 때문이다. 영진위가 발표한 ‘2015년 영화발전기금 사업계획’을 보면 8억9400만 원 규모의 ‘독립영화 전용관 운영지원 대상’에서 기존에 지원을 받던 인디스페이스와 아리랑시네센터가 제외되었다. 영진위가 직접 운영하는 독립영화 전용관 인디플러스와 한국영상자료원의 시네마네코FOA 2관, 신생 지역 독립영화 전용관 한 곳, 이렇게 세 곳만 지원 대상에 선정됐다. 인디스페이스는 그간 대관료 명목으로 연간 5000만 원을 지원받았다. 아리랑센터는 지난 5년간 매년 7590만~1억5000만 원을 받아왔다. 두 민간 독립영화 전

지원금 삭감, 근거 불충분하고 절차상 문제 있어

1호 독립영화 전용관의 부침은 독립영화계의 어려움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독립영화의 경우 만드는 일이나 상영하는 일이나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



용관이 탈락한 표면상의 이유는 ‘지역 독립영화 전용관 신설’ 때문이었다. 당사자들로선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였다. 지역에서 전용관이 늘어나는 건 환영하지만 왜 기존의 지원금을 삭감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특히 인디스페이스를 찾는 관객 수는 전체 독립영화 전용관의 40% 가까이 된다. 영진위 관계자에게 문의한 결과 지역 영화관은 아직 선정되지도 않았다. 5월 말 기준, 부산이라는 지역만 특정된 상태로 아직 사업을 수립하는 단계였다. 어디에 들어설지 모르는 예비 영화관을 위해 기존의 지원금을 삭감한 것이다.

영화계에선 사업예산 운영의 비효율성을 지적했다. 2011년 영진위가 독립영화 전용관 운영에 직접 참여한 이후 관련 예산의 75% 이상이 직영 전용관인 인디플러스에 집중되어왔다.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브로드웨이시네마의 1개관을 대관해 운영 중인 인디플러스의 좌석은 70석이다. 영화계는 성명서를 통해 “2014년 예산을 기준으로 하면 좌석 1석당 1320만 원의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셈이다. 아무리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예술영화관이라고는 하지만 70석짜리 1개 영화관에 7억여 원의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라고 지적했다. 예산 편성을 효율적으로 조절한다면 나머지 두 개 관의 계속적인 지원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지원금 문제로 난감해진 건 독립영화 전용관뿐만이 아니다. 영진위는 부산국제영화제 지원금을 지난해 14억6000만 원의 절반 수준인 8억 원으로 삭감했다. 국제적인 위상을 가진 영화제라 충격이 더했다. 이번엔 자생력 강화가 이유였다. 심사위원들은 “부산국제영화제는 이미 글로벌 영화제로 위상을 점유하고 있어서 자생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다수 의견에 따라 부분 감액했다”라고 밝혔다. 감액 규모에 비해 간단하고 추상적인 설명이었다. 20주년을 앞둔 부산영화제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더구나 중국·일본 등의 아시아권 영화제로부터 견제가 심해지는 상황이다. 당장 선정 과정의 불투명성이 도마에 올랐다. 부산국제영화제 측은 35억 원에 해당하는 지원금 배분을 결정하면서 서면상으로 의결해버렸거나, 결과 공지를 하루 앞둔 야간에 전화상으로 최종 결정을 내린 점 등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했다. 회의가 비공개로 진행됐다는 사실도 지적했다. 영화 단체들은 즉각 성명서를 내고 반발했다.

표현의 자유 침해는 곧 관객의 권리 침해

영화계는 정치적 논란이 유난히 잦은 분야다. 최근의 잇단 지원금 삭감에도 정치적인 이유가 있다는 추측이 나온다. 그만큼 삭감의 근거가 추상적이거나 납득하기 어렵다. 그간의 정치적 갈등을 짚어보면 오히려 답이 명쾌하다. 부산국제영화제와 부산시의 갈등이 대표적이다. 지난해 세월호 사건을 소재로 다룬 영화 <다이빙벨>을 영화제에서 상영하기로 하자 부산시는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작품이라며 상영 취소를 요구했다. 부산국제영화제 측은 영화제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일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영화계 역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이라고 반발했다. 부산시가 지도점검에 나섰고 이



- 1 영화계의 논란이 점화된 것은 영화 <다이빙벨> 상영과 관련해 잡음을 겪은 지난해 부산국제영화제부터라고 볼 수 있다.
- 2 박근혜 대통령을 풍자한 영화 <자가당착>.
- 3 세월호 사건을 소재로 다룬 영화 <다이빙벨>.

용관 집행위원장이 사퇴 압박을 받기도 했다. 인디스페이스는 지난 1월 영진위와 직접 갈등을 겪었다. ‘2015 으랏차차 독립영화’전을 준비하며 박근혜 대통령을 풍자한 <자가당착>을 비롯해 등급 미분류 영화 3편에 대해 등급 분류 면제추천을 신청해 영진위의 승인을 받았다. 영화제나 기획전에서는 등급 미분류 영화를 상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취지다. 얼마 뒤 영진위는 전체 상영작 11편 중 3편만 신청했다며 승인을 취소했다. 이후엔 등급분류 면제추천 제도를 개정하려는 움직임마저 보였다. <다이빙벨>이나 등급분류 면제추천제를 둘러싼 일련의 움직임 모두 큰 틀에서 표현의 자유를 위축하는 일이다. 한 영화계 관계자는 “부산시와 영진위의 문화 인식에 대해 참담한 심정이다. 그들은 더 이상 ‘문화’를 논할 자격이 없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영화에 대한 판단은 관객의 몫이다. 영화 상영을 제한하는 건 관객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다. 그런 면에서 한국 영화의 진흥이라는 책무를 가진 영진위의 최근 행보가 우려스럽다. 무엇보다 악재 속에서도 고군분투하고 있는 영화인들의 사기가 꺾일까봐 걱정이다.

글 임지영 <사사N> 문화팀 기자 | 사진 제공 서울극장, 부산국제영화제

2015 서울예술교육포럼 ‘노년의 삶과 문화예술교육’

노년에도 잘 노닐기 위해 필요한 것은

65세 이상 노령인구 비율을 나타내는 노령화지수가 처음으로 100을 넘어섰다. 노년기의 삶은 타인의 이야기가 아닌, 누구에게나 적용될 ‘내 미래’의 이야기다. 2015 서울예술교육포럼의 첫 주제는 ‘노년의 삶과 문화예술교육’. 노년의 삶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함을 모두가 공감한 자리였다.



“이번에 동네 주민센터에서 어르신 대상으로 이런 문화 프로그램 한대서 갔더니 약기도 배우고 밥 같이 먹을 친구도 사귀고 좋더라고. 하모니카에 푹 빠진 김 영감은 앞으로 끈대가 아니라 ‘꽃대’가 될 거라나 뭐라나. 나도 앞으로 이런 행사 준비할 때 같이 불러줬음 좋겠네. 아무래도 자네보다 내가 우리 동네도 잘 알고 우리 나이 먹은 친구들도 잘 모이지 않겠나? 사실 우리가 가만히 앉아 있는 건 선생님이 하도 ‘알아서 해드릴 테니 가만히 계시라’고 해서지, 내가 앞이 안 보이길 해 걸질 못해?”

위 대사는 노년에 대해 연구했거나, 노년을 대상으로 각종 프로그램을 진행해본 이들의 증언을 모아 재구성한 가상의 어르신 말씀이다. 이분들을 지난 5월 27일 대학로 마로니에공원 옆 예술가의 집에서 만날 수 있었다. ‘노년의 삶과 문화예술교육’을 주제로 한 <2015 서울예술교육포럼>에서다.

이번 포럼은 올해 두 차례 진행되는 <2015 서울예술교육포럼>의 첫 번째 순서로 노년의 삶을 이해하는 한편 노년의 행복한 삶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의 방향을 집중 탐구하고자 기획됐다. 이미 많은 논의를 통해 성장 단계별로 발전한 어린이 문화예술교육에 비해 노년의 그것을 나눌 자리는 별로 없었던 게 사실이다. 그 때문인지 포럼 장소는 준비한 자리가 모자라 의자를 계속 꺼내야 할 정도로 문화기획자와 예술인으로 가득 찼다.

모두가 언젠가는 맞이할 ‘노년의 삶’ 그리고 문화예술

노인 취급 받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심지어 경로당에서 ‘내 나이가 어때서’를 즐겨 부르는 어르신들도 같은 생각일 것이다. 하지만 모든 사람은



죽을 때까지 나이 들고, 사실 태어난 순간부터 노화는 진행되고 있다. 첫 주제 발표는 이런 노인의 특성을 비롯해 노년기 삶 전반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 한국노년교육학회 한정란(한서대 노인복지학과 교수) 회장이 “노화는 발달의 반대말이 아니라 동의어”라며 ‘전 생애 발달의 관점’에서의 노년기 삶과 특징, 그리고 교수 학습 원리에 대해 차근차근 설명했다. 가장 취약한 위치에 있는 이들의 입장에 맞춰서 교육해야 한다거나, 즉각적인 성취를 경험할 수 있게 프로그램을 기획해야 한다는 등의 실용적인 조언도 곁들였다. 한 회장은 첫 주제 발표를 마치며 “문화예술이 다른 영역에 비해 세대를 넘나들기 쉬운 분야인 만큼 노인과 다른 세대가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을 확대해갈 것”을 제안했다.

이어 (사)문화다움 추미경 대표는 ‘국내외 노인 문화예술교육 추진동향 및 이슈’를 주제로 2006년부터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독립적 정책으로 시작된 국내 노인문화예술교육의 역사와 현황, 문제점을 진단했다. 이 발제에서 지방문화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광명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등이 각 지역의 노인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자체의 첫 독자적 노인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은 2008년 시작된 서울문화재단(서울시)의 ‘꿈꾸는 청춘예술대학’임을 언급했다. 올해부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인생나눔교실’ 시범 사업도 소개했다. 각 사업마다 다양한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노인을 바라보는 관점이 각기 다르다는 점을 비교할 수 있었다.

노인에 의한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할 것

다음으로 뜨거운 라운드 토론이 이어졌다. 라도삼 서울연구원 도시사회연구실장의 사회로 고정직 문화평론가, 김서준 발광아트컴퍼니 대표, 백경 경희대 경영대학원 교수가 각각 미리 준비한 질문을 던지고 일반 참가자와 함께 의견을 나눴다.

라운드 토론에서 진정한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들을 수 있었다. 노인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이 아니라 노인에 ‘의한’ 문화예술 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장려할 것, 프로그램을 마칠 때마다 교육 결과를 단순한 수치로 환산하는 결과(output) 측정이 아니라 노인들과 교육 전문가가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장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성과(outcome)를 측정할 것과 같은 생산적인 의견이 나왔다. 스스로를 ‘어르신 실버 레크리에이션 강사’로 소개한 노년의 강애옥 씨가 마이크를 잡고 무대에 나가 노인 왕따 문제를 다루는 법에 대해 이야기하자 발제자들이 오히려 고개를 끄덕거렸고, “고정직 문화평론가가 알려준 ‘꽃대(곤대의 반대 의미)’라는 단어는 바로 써먹을 수 있겠다”고 말해 객석에 웃음을 주기도 했다.

포럼에 참석한 한 경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직원은 “우리 센터도 교육과 지역특성화 사업과 관련해 지원을 많이 하고 있지만 노인과 관련된 사례는 아직 많지 않아 참고가 필요해 참석했다”며 “포럼에 참석해보니 노인



에 대한 개념부터 시작해 현장을 찬찬히 이해할 수 있었고, 참가자들과 고민을 나누다보니 문제도 계속 발생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 다른 참가자는 설문지에 “서울예술교육포럼은 매년 시의성 있는 주제를 선정하는 것 같아 다음 주제도 기대가 된다”는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다.

고령사회, 문화예술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노인 문화예술교육이 시작된 지 이제 10년. 처음부터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문화예술교육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노인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건너뛰고 수혜적 관점으로 대상화한 경향이 크다고 한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이 분야는 발전할 여지가 많고, 또 더욱 많은 실험이 이루어져야 하는 분야다. 앞으로 10여 년 후 다가올 고령사회는 구매력을 지닌 성인 중 절반이 노인일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우리 사회 구성원은 빠르게 노인 중심으로 변하고 있다. 지난 5월 8일 서울시 등은 65세 이상 노령인구 비율을 나타내는 노령화지수가 처음으로 100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생산가능인구보다 부양해야 할 노인인구가 더 많아진 것이다. 2018년부터는 시민 14%가 노령인구인 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령사회가 고작 3년 앞으로 성큼 다가온 만큼, 이제는 ‘시민’이라는 문화예술교육 대상에서 아무도 모르게 소외받곤 했던 ‘노년 시민’들을 진정으로 챙기기 시작해야 할 때가 아닐까. ‘노년기의 행복한 삶을 위해 문화예술교육은 무엇을 할 수 있고,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가’, 문화기획자들이 이 질문을 반드시 곱씹어봐야 할 이유다. ^{1) 2)}

글 이준걸 서울문화재단 홍보팀 | 사진 서울문화재단



전시장을 나온 미술
미술이 남긴 것

관념을 포착하다

작가에게는 세상에 작품을 선보일 기회를, 시민에게는 생활 속 예술 감상의 기회를 주는 아트 캠페인 '바람난 미술'. 이번 호에서는 일상의 물건을 사진으로 포착해 관념적 이미지로 재탄생시킨 이운성 작가의 <대체된 풍경>과 이미지의 홍수 속에서 '실재'보다 '상상의 기호'에 가까운 이미지의 속성을 드러낸 임노아 작가의 <순응자>를 소개한다.



임노아

순응자
(Conformist)

피그먼트 프린트
70×22cm
50만 원

임노아 작가는 개인 앨범 사진이나 인터넷, 영화와 같은 대중 매체 이미지를 조사해 그 속에서 파생되는 기호나 상징적 요소들이 시대적 환경, 사회적 혹은 정치적 맥락 속에서 의미가 변화하는 것을 보여준다. 이미지 홍수 속에서 이미지의 진실된 의미보다 하나의 빈 기호처럼 떠돌아다니는 현상을 바탕으로 사람들의 인식과 기억의 변화를 보여준다. 이 작업은 '금지된 환상'이라는 시리즈 중 <순응자>라는 작품이다. 영화와 인터넷에 떠도는 북한 사진들을 가지고 하나의 상상적 빈 기호들을 만들었다. 이 이미지들은 북한의 실재를 의미하기보다 그저 상상의 기호일 뿐이다.



이윤성
대체된 풍경
(Replaced by Landscape)

디지털 C-프린트, 디아섹
58×76cm
2013
120만 원

이윤성 작가는 일상의 물건을 사진으로 촬영해, 개별 물건에 깃든 따스함, 쓸쓸함 등 여러 감정에 대해 이야기한다. 〈대체된 풍경〉 시리즈에서는 일상적인 물건을 하나의 풍경으로 구성한다. 다양한 휴지를 촬영한 뒤 포토샵을 이용해 합성, 보정을 거쳐 안개와 구름 등을 덧입혔다. 평범한 물건은 한 폭의 동양화와 같은 관념적 풍경으로 재탄생한다. 산업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은 주로 대량생산품을 사용한다. 대량생산품은 누군가의 소유가 되었을 때 사용한 사람의 흔적이 남으며 2차 가공의 과정을 거친다. 〈대체된 풍경〉은 거대화되고 첨단화된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구성원의 쓸쓸함을 환기시킨다. 한글서체

‘바람난 미술’ 사용법

- 나는 시민입니다. 작품을 구매하고 싶습니다.
 - 우리는 기업입니다. 작품을 구매 혹은 대여해서 우리 회사의 예술지수를 높이고 싶습니다.
 - 나는 작가입니다. 내 작품이 시민과 만나면 좋겠습니다. 대여와 판매의 길도 찾고 있습니다.
- * 서울문화재단 시민문화팀(02-3290-7140)으로 문의하세요!



연희문학창작촌 '이웃문학다방'

책과 함께, 시간이 느리게 가는 곳

도심 속 전원형 문학촌. 작가들이 조용히 집필의 열기를 지피는 '연희문학창작촌'의 문학미디어랩이 달라졌다. 책장 넘기는 소리만 들리던 적막한 공간이 문학을 즐기기 위해 찾아온 이웃의 발걸음으로 북적이기 시작한 것. 브런치와 책읽기가 함께하는 프로그램 '이웃문학다방' 때문이다.

주민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는 '이웃문학다방'

연희문학창작촌 이웃문학다방은 올해 처음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주민이 이웃을 위해 직접 기획·운영한다'라는 취지로 첫걸음을 뒀다. 지난 3월 시범적으로 시작한 <맛있는 책다방> <느리게 책읽기> <커피의 향기 문학의 향기> 프로그램은 참여자들의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냈고, 이러한 호응에 힘입어 2015년 연중 기획으로 운영하게 되었다. <맛있는 책다방>에서는 브런치를 나누며 그림책을 읽고, <느리게 책읽기>는 책장에 묵혀둔 두꺼운 책을 꺼내와 함께 읽으며, <커피의 향기 문학의 향기>는 바리스타인 강사와 함께 핸드드립 커피를 내려 마시며 커피 이야기가 녹아 있는 문학작품을 읽는 프로그램이다.

이웃문학다방의 중심에는 서대문구 문학 전문 마을공동체 '우듬지'가 있다. '우듬지'는 문학과 관련한 자발적 모임을 10년 넘게 진행해오고 있는 지역 주민 모임이다. 이들이 연희와 첫 인연을 맺은 것은 지난 가을이었다. 우연한 기회로 연희문학창작촌에 마을 나온 우듬지 회원들은 향긋한 커피 향기 속에서 다양한 문학서적을 하루 종일 접할 수 있는 문학미디어랩 '창작카페 연희'의 분위기에 매료되었고, 이를 계기로 그동안 예산이 부족해 무인으로 운영되던 '창작카페 연희' 자원활동 운영자로 나섰다. 약 6개월간 공간을 지켜온 이들은 이웃과 문학을 좀 더 친근하게 함께하고자 2015년 시민 대상 프로그램 기획을 제안하고, 그렇게 주민-이웃-문학의 연결고리가 생겼다.

프로그램을 처음 시작하며 우여곡절도 많았다. 가장 어려운 부분은 무엇보다 '홍보'. 시범 운영 당시 생각보다 온라인 신청이 저조하자 아날로그 방식의 직접 홍보를 진행하기로 했다. 연희의 운영진은 전단지들을 만들고, 우듬지 회원들은 동사무소, 인근 도서관, 카페 등을 찾아다니며 '발로 뛰는' 홍보를 했



- 1 연희문학창작촌의 3동 산책로.
- 2 <맛있는 책다방>을 위해 준비된 브런치.
- 3 <느리게 책 읽기>는 두꺼운 책을 함께 읽는 시간이다.

다. 주민들이 많이 보는 신문에도 전단지를 끼워 넣어 프로그램을 알리며 애정 어린 지역 밀착 홍보가 진행되었다. 그렇게 내 이웃에게 다가가려는 연희의 소식지가 지역 곳곳에 전해지며 따뜻하고 친근한 '이웃문학다방'이 시작되었다.

책 읽기가 '부담'에서 '설렘'으로 바뀌는 시간

수요일 오후, 연희동의 마스코트 '사려가 슈퍼마켓'에서 분주히 장을 본 우등지 회원들은 서둘러 맛있는 브런치를 준비한다. 복숭아잼이 발린 오곡빵과 달걀, 향긋한 원두커피가 <맛있는 책다방>의 참여자를 맞이하는 아침. "오늘은 아이와 함께 왔어요. 괜찮죠?"라며 한 시민이 환하게 웃으며 들어왔다. <맛있는 책다방>은 아이와 엄마가 함께할 수 있다. 이렇게 아이에게 그림책을 읽어주고 싶은 엄마뿐만 아니라, 조금 더 쉬운 그림책으로 문학적 감수성을 나누고 싶은 이들이라면 누구든 참여할 수 있다.

그런데 왜 하필 '그림책'일까. "아이들이 읽는 그림책 속에는 단순하고도 넓은 세계가 가득합니다. 그 속에는 삶의 다양한 모습이 아주 쉽지만 깊이 있게 나타나 있어요." 프로그램을 기획한 조미환 씨의 말이다. 이러한 문학적 반전을 비롯해 그림책의 숨은 매력을 발견하며 <맛있는 책다방>의 시간은 정오를 향해 달린다.

또 다른 프로그램인 <느리게 책 읽기>는 두 번은 펼칠 엄두가 나지 않는 두툼한 책이 문학미디어랩 책상 곳곳에 놓여 있고, 이 책을 함께 읽는 시간이다. 첫 시간의 주인공 도서는 인문학을 다룬 이반 일리치의 <과거의 거울에 비추어>. 무려 400페이지에 달하는 두꺼운 책을 이웃들은 왜 선택했을까. 또 인터넷을 열면 정보가 넘쳐나는데 도대체 이 읽기 쉽지 않은 책을 왜 읽으려 할까. "평생 두 번은 안 읽을 것 같은 두꺼운 책을 이번 기회에 천천히 여유를 가지고 끝까지 읽어보고자 신청했어요. 바쁜 삶의 속도를 잠시 늦출 수 있는 시간일 것 같아요." "무엇보다,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 읽는다는 것에 매력을 느꼈어요. 책은 혼자 조용히 읽는 것이라는 편견이 사라졌어요. 즐겁고 기대됩니다." 프로그램 참여자들이 육중한 책을 앞에 두고 느끼는 것은 부담이 아닌 설렘이다. 새로운 문학에 대한 호기심은 이렇게 '함께'라는 가능하다.

서로의 일상,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려는 이들이 편하게 들르는 사랑방처럼 연희문학창작촌의 '이웃문학다방'은 연중 계속된다. 작가와의 만남, 인근 산자락 산책, 도서관 방문 등의 다양한 일정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커피향과 문학, 수더분하게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은 이들이라면 이 다정한 책다방에 한번 둘러봐도 좋겠다.



연희문학창작촌

느리게, 고요하게 문학의 시간을 느끼고 싶다면 연희문학창작촌에 들려볼 것을 권한다. 물론 입주작가들의 조용한 집필 환경을 지켜주는 예절은 기본이다.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연희문학창작촌은 시민에게 열려 있다.

연희문학창작촌 문학미디어랩 및 산책로 이용시간

- 평일 오전 10시~오후 5시
- 모든 자료는 공간 내에서만 열람 가능

프로그램 관련 문의

- 연희문학창작촌 운영사무실 02-324-4600, 4690

글 이지는 서울문화재단 서울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 사진 서울문화재단

젊은 예술가들의 질문이 모이는
프로젝트 공간 '구탁소'

당신의 먹고사니즘은 안녕하신가요

'뭐 먹고 살지?' 오래된 불황과 저성장 속에 많은 이들이 입버릇처럼 달고 사는 말일 것이다. 예술가들에게 이는 더욱 절실한 물음이기도 하다. 작업실 한 칸에 커뮤니티 공간을 꾸린 '구탁소'의 세 동갑내기 작가들은 그 질문을 프로젝트를 통해 더욱 구체적으로 던지고 있다. 예술가라는 직업이란, 그리고 직업의 예술적 가치란 무엇일까, 라고.

동갑내기 세 작가가 모였다. 2014년 5월이었다. 작업실을 찾던 이들에게 이슬람사원 근처 한남동은 임차료가 저렴하면서도 세 사람 모두에게 접근성이 좋은 동네였다. 몇 년 새 유동인구가 크게 늘어난 우사단길은 수년 전까지 회화 작가들이 작업실을 찾아 모여들었던 곳인데, 임차료가 오르자 작가들은 근처 골목 안쪽이나 도깨비시장 쪽으로 더 내려가 자리를 잡고, 공방 등 판매를 겸할 수 있는 작업을 하는 이들이 새로 들어와 지금의 우사단길을 형성했다고 한다. 설치미술(김민경, 송민정)과 영상작업(김민경), 장난감 제작(김현주)을 하는 세 작가의 자리는 시장 쪽이었다. 10년 가까이 비어 있던 낡은 공간을 그들은 품을 들어 살뜰히 손봤다. 10년 만에 세입자를 찾은 주인아주머니는 지하 공간도 쓰지 않겠냐고 권하했다. 공간이 넓어졌다. 재미있는 것을 하고 싶어졌다. 전에 이곳에 세탁소가 있었다기에 공간 이름을 '구탁소'로 지었다. 작가들의 작업실이자 프로젝트·전시 공간인 구탁소는 이렇게 시작됐다.

예술가의 직업에 대한 고민이 응축된 '직업예술 프로젝트'

"매달 아티스트 한 명의 전시를 하자." 작가들은 약속했다. 쉽게 하면 안 될 약속이었음을 깨달은 것은 나중의 일이었다. 그러나 젊은 작가들에게는 꺼내고 싶은 이야기가, 구탁소 지하에는 매력적인 구조의 공간이 있었다. 작년 가을, 그들은 가장 현실적이면서 묵직한 질문을 프로젝트를 통해 던져보기로 했다. 친구들과 모여 어떤 대화를 나누다가도 '기-승-전-무엇 먹고 살지'로 수렴되던 때였다. 예술가도 직업이라 할 수 있을까, 다른 직업에 종사하는 이들은 그들의 일에 얼마나 만족하고 예술에 대해 얼마나 이해할까, 직업도 예술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등. 작가들은 '직업'에 대해 다양한 질문을 던지며 '직업예술 프로젝트'를 구체화했다. 그 결과 한 달에 작가 한 사람과 다른 직업 종사자 한 사람이 만나 서로 예술과 직업의 관계에 대해 소통했고, 그 결과를 매월 마지막 주 구탁소에서 전시를 통해 공유하기로 했다.



- 1, 2, 3 페인터인 작가(김수연)와 식물 연구원(한지수)이 함께한 '3월의 직업예술' 전시 장면. 구탁소의 전시공간은 구조가 독특하고 곳곳에 자투리 공간이 숨어 있어 전시마다 다양한 방식으로 공간을 활용하곤 한다.
- 4 설치미술가(김동현)와 디자이너(권소연)가 함께한 '4월의 직업예술' 전시물.
- 5 '5월의 직업예술' 전시에서는 관객으로 하여금 가상의 회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체험을 제공했다.



그렇게 2015년 1월부터 12월까지 짝 채워 기획한 예술가-직업인 라인업은 지난 1월부터 차근차근 활동을 진행했고, 이 ‘빡센’ 프로젝트는 현재 중반을 막 넘어섰다,

지금까지 설치미술가와 아르바이트생(2월), 페인터와 식물연구원(3월), 일본화 화가와 서예가 겸 대학박물관 계약직원(5월) 등 흥미로운 예술가-직업인의 프로젝트가 진행됐다. 구탁소의 세 작가는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필요할 때 개입하고 커뮤니케이션을 도우며 많은 것을 배운다고 한다. 5월에 진행한 일본화 화가(아다치 쇼헤이)와 대학박물관 계약직원(이종은)의 프로젝트 전시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회사〉에서는 관객이 가상의 회사와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는 체험을 마련했다. 관객은 ‘신선하다’ 했지만 근로환경, 계약조건 등이 명시된 현실의 계약서를 보며 작가들은 생각이 많아졌다.

“한 번쯤은 고민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했어요. 작가에겐 근로환경이나 정해진 급여라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고민하지 않는 게 예술가들에겐 오히려 당연시되는 것 같아요.”(김민경)

젊은 작가의 고민이 읽힌다. 거의 모든 것이 금전적인 가치로 환산돼 ‘돈이 없으면 꿈꾸기도 어려운’ 시대에 유독 예술 활동에는 합당한 가치를 지불하지 않는, 사회의 이중적인 면모에 대한 고민이다.

“전시가 진행되면 큐레이터, 디렉터, 설치를 도와주는 사람 등 참여하는 모든 이들이 임금을 받는 데, 정작 전시의 주체인 작가만이 돈을 제대로 받지 못해요. 그게 당연시되고 있고요.”(송민정)

‘기-승-전-먹고사니즘’의 작은 돌파구

구탁소는 사실 최근 미술계의 경향을 다루는 글에서 적지 않게 언급되는 곳이다. 그 경향이란 젊은 작가들이 직접 공간을 마련해 프로젝트를 진행하거나 교류의 플랫폼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반지하, 교역소, 800/40, 300/20 등이 구탁소와 함께 언급되곤 한다. 이런 흐름도 젊은 작가들의 고민에서 나온 일종의 자구책으로 볼 수 있다. 이미 형성된 판에 편입되기보다 그들이 보여주고 싶은 작품을 직접 관객에게 꺼내 보이기 위해 이들은 공간을 마련한다. 물론 공간을 운영해서 수익을 기대할 수는 없다.

“처음에는 기금에도 지원해봤지만 차라리 운영비를 최소화해서 우리가 소화할 수 있는 상태로 가야 원하는 방식의 프로젝트를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 초기에 하고 싶었던 방식과는 거리가 멀어질 거예요. 일부 ‘대안공간’들이 그랬던 것처럼요.”(송민정)

여기에는 아이러니도 있다. 정작 그 공간에서 전시를 여는 창작자에게 ‘작가비’를 지급할 수 없다는 점이다. 구탁소의 세 작가는 그 미안함을 전시 오프닝 때 음식을 준비해 나누는 것으로나마 채우려 한다. 점점 모든 게 자본 중심으로 재편되는 시대에 젊은 작가들은 그들만의 힘과 생각으로 예술을 하고, 말한다. 역시 ‘기-승-전-먹고사니즘’의 대화를 나누면서.

직업예술 프로젝트의 하반기에는 안무가와 플로리스트(7월), 일러스트레이터와 도예가(9월), 설치미술가와 문학비평가(11월) 등의 프로젝트가 남아 있다. 프로젝트는 하면 할수록 더욱 예측할 수 없기에 더 기대하는 즐거움이 있다고 세 작가는 입 모아 말한다. 구탁소의 전시 공간은 1층 작업실에서 지하로 통하는 계단을 따라 내려가면 나온다. 가파른 이 동네 지형의 특색 덕에, 지하 전시 공간은 또 다른 지상을 마주하고 있다. 생각지 않은 공간이 위아래에서 유기적으로 숨 쉰다. 오래된 건물이기에 손이 많이 갔지만 예상치 못한 공간은 손님 이들에게 예술에 대해 새롭게 고민할 기회를 주었다. 그 기회는 이 공간을 찾는 다른 작가와 관객의 몫이기도 하다. 이들의 남은 직업예술 이야기에 귀 기울여보길 권한다. 내 일의 예술적 가치에 대해 질문하는 이들에게, 예술가의 직업적 가치에 의구심을 품은 이들에게, 혹은 그저 도깨비시장 길에 있는 공간이 궁금한 이들에게, 구탁소는 어지간하면 열려있다.

글 이아림 | 사진 제공 구탁소(Gutakso, www.facebook.com/Gutakso)

연극 <햇빛사워>와 <먼 그대>

독신 여성의 삶, 사실적이거나 우화적이거나

서울의 1인 가구 비율은 24.4%다.

네 가구 중 한 가구가 독신 가구라는 얘기다.

그러나 '화려한 독신'이라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 말잔치로 끝날 뿐,

이들의 삶은 대개 고독하고 팍팍하기 일쑤다.

빈곤(貧困)이란 단어와도 떼어놓을 수 없다.

많은 TV 드라마의 화려한 묘사와는 달리,

연극에선 그 현실의 고통에 근접하는

작품을 몇 편 찾아볼 수 있다.

두 작품 다 독신 여성이 주인공이다.



햇빛, 이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햇빛사워>, 남산예술센터 드라마센터, 7. 9~26

커피가 대단히 도발적이다. “광자는 쌍년입니다.” 반지하 셋방에 사는 20대 후반의 독신 여성 ‘광자’는 부모를 잃은 고아다. 누구 하나 의지할 사람도 없다. 백화점 말단 직원으로 취직해서 악착같이 살아간다. 직장에선 ‘일처리가 깔끔하고 근태가 성실하다’는 평을 듣고, ‘겨울에 피는 꽃 같은 젊음의 생기가 있다’는 얘기를 들을 만큼 여성으로서의 매력도 있다.

그런데 왜 ‘쌍년’일까. 광자에겐 사연이 있다. “나 학교 다닐 때 어떤 논다는 년이 있었는데 그녀가 날 자꾸 미친년이라 부르더라구. 내가 옆에만 있어도 재수가 없대. 그래서 내가 면도칼로 그어버렸어.” 광자가 광자(狂子), ‘미친년’으로 인식되면서 그녀의 삶은 뒤틀린다. 한번 전과자가 되고 나니 가릴 것도 없다. 회사 돈을 횡령하고, 직장의 남자들과 가리지 않고 잠자리를 함께하며 돈을 번다. 승진을 위해 선 잘못을 남에게 뒤집어씌우는 거짓말도 주저하지 않는다.

미친 듯이 돈을 모으는 일차적 이유는 개명(改名)이다. ‘미친년’으로 인식되는 이름만 바꾸면 승진도 하고 과거의 삶도 바꿀 수 있을 것이라 믿기 때문이다. 함부로 몸을 굴리고 욕이 입에 붙은 캐릭터지만, 수렁 같은 과거와 현실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는 세속적 의지의 소유자이기도 하다. 특이한 것은, 그녀에게 ‘가난’이란 본인보다 오히려 다른 사람이 불편해하는 개념이라는 점이다. 그녀는 말한다. “너 가난이 뭐 줄 알아? 니가 아니라 너 옆 사람이 불편한 거야. 니 부모, 니 친구, 니 형제, 니 이웃. 너랑 관계돼 있는 사람들 다.”

하지만 그녀가 알면서도 외면하는 것이 하나 있다. 광자의 진짜 뜻은 광자(光子), 즉 ‘빛의 여자’라는 것이다. 종종 광자가 거처하는 셋방으로 쏟아지는 햇빛은 진정한 ‘희망’을 상징한다. 지나치게 착해서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는, 주인집 아들인 남 주인공 ‘동교’는 이 같은 광자의 또 다른 면에 호소하는 인물이다. 그를 통해 언뜻 드러나는 광자의 순수함이야말로 이 작품의 주제와 통하는 모습인 듯하다.

공연 시작 전 미리 이 작품의 대본을 읽어봤다. 극작과 연출을 맡은 장우재의 전작과 비교해보면, <한도열차>보다는 훨씬 시공간이 좁혀졌고, <여기가 집이다>에 비해서는 웃음기가 대폭 빠졌다. 그래도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재미가 있다. 밀바닥 현실의 리얼리티가 물씬 풍기는 작품이 제대로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 1, 2 연극 〈햇빛사위〉는 세속적인 의지의 소유자 '광자'와 그와 대비되는 순수 청년 '동교'의 드라마 같은 삶을 그린다.
- 3, 4 윤석화의 모노드라마 〈먼 그대〉는 '한 남자에 대한 지독한 사랑'을 인생의 가치로 삼는 주인공 '문자'를 통해 홀로 살아가는 이들의 생의지를 그려낸다.

낙타, 나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련다

〈먼 그대〉, 산울림소극장, 6. 18~7. 5

“하지만 그 자신감은… 아주 높은 곳에 있는 그 어떤 존재와 겨루면서, 몇 만 리나 되는 고독의 길을 혼자 걸어왔고, 또 걸어가야 하는 외로운 길이었죠. 그 사막 같은 외로운 길에서, 아주 가끔… 내 마음속 깊은 곳의 낙타를 만나기도 합니다.”

분명 셋집에서 혼자 살아가는 직장 여성이라는 점에선 〈햇빛사위〉의 '광자'와 같다. 온 힘을 다해 열심히 산다는 점도 뭔가 공통점이 있는 듯하다. 그러나 모노드라마 〈먼 그대〉의 '문자'가 성취하려는 것은 세속적인 욕망과는 거리가 멀다. 출판사 교정 직원으로 10년 동안 쉬지 않고 일하며 유행 지난 옷 차림을 곳곳이 고수하고, 세간 하나 들여놓을 줄 모르며, 모든 불편한 환경을 꼭 참고 그저 묵묵히 일한다. “타인의 눈에 형편없이 초라하게 보이는 것을 의식할 때마다 나는 차라리 침묵을 선택했고, 그 침묵이 오히려 나를 위로합니다.”

이 지고지순(至高至純)의 캐릭터가 인생의 가치로 삼는 것은 '한 남자에 대한 지독한 사랑'이다. 그 남자는 유부남이고, 한 번도 경제적으로 자신을 도와준 적도 없으며, 오히려 몰래 낳아 키우던 아이를 빼앗아 데려가기까지 한다. 그런데도 그를 위해 문자는 정성을 다한다. “그 사람이 내게 올 수 있는 날은 오직 일요일 저녁뿐이었지만, 내게는 시령 위에 걸려 있는 등불 같은 한 줄기 빛이었습니다.”

그것은 그저 무모하고 대책 없는 애정 행각일 뿐이었을까? 〈햇빛사위〉의 상징인 '햇빛'처럼, 〈먼 그대〉에선 '낙타'가 중요한 상징이 된다. 그것은 고통스러운 구도(求道)를 견디게 해주는 긍정적인 삶의 의지다. 결국 인생의 목표는 남자에 대한 애정 자체가 아니라 바로 그 '낙타'에 있는 것이었다. “나에게 준 사랑의 고통조차 철저히 더 사랑함으로써 복수할 테야. …이런 운명을 마련해놓고 내가 못 견뎌 신음하면 자비를 베풀려고 기다리는 신에게도 나는 멋지게 복수할 거야.”

32년 전 서영은의 원작 소설이 이상문학상을 받을 때도 '우화적'이란 평을 받았을 만큼, 상징과 비유를 걷어내고 이 작품의 줄거리를 온전히 받아들이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모든 걸 다 떨쳐내더라도 결국 남는 것은 홀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불꽃같은 생의지(生意志)다. 임영웅 연출 60주년 헌정작인 이 작품을 위해 각색, 연출, 주연을 도맡아 5년 만에 무대에 선 윤석화의 연기엔 원숙미가 깃들여 있다. 사진: 김지영

글 유석재
2003년부터 조선일보 문화부에서 주로 학술과 출판을 담당했다. 2000년대 중반에 AV칼럼니스트로 암약했고, 1991년부터 초야의 공연 마니아로 있다가 2014년 1월 조선일보 공연 담당 기자로 활동 중이다.
사진 제공 서울문화재단, 극단 산울림

전시 <은밀하게 황홀하게>와
<열은 공기 속으로(Into thin air)>

빛과 어둠의 다른 조화, 다른 재미

‘이미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지만
더욱 격렬하게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때,
이 전시 관람을 권한다. 수학 문제처럼
미술 작품 속에 숨어 있는 개념을 찾느라
머리 쓸 일도 없고, 현란한 색채의
향연에 눈이 피로할 일도 없다.
무뚝뚝한 남자가 말없이 내준 듬직한 어깨에
기대듯, 무장해제하고 쉬었다 가면 된다.
문화예술 전시 공간으로 탈바꿈한
문화역서울 284(옛 서울역사)의
<은밀하게 황홀하게: 빛에 대한 31가지
체험>전과 금호미술관에서 열리는
<열은 공기 속으로(Into thin air)>전이
그것이다. 빛과 어둠, 흑과 백으로 채워진
두 공간의 전시는 묘하게 닮았다.
같은 작가의 같은 작품도 버전을 달리해
각각 전시됐다. 두 전시장을 나올 땐 비슷한
느낌이 든다. 가슴속에 잔뜩 끼어 있던
먼지를 털어낸 것 같은, 잠시나마 잘 쉬었다
간다는 느낌.



만지고 느끼고 즐기는 ‘빛’

<은밀하게 황홀하게>, 문화역서울 284, 6. 11~7.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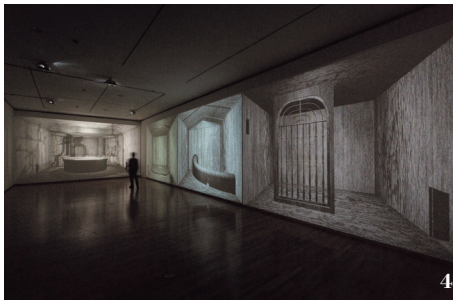
공간에 따라 작품을 달리 보이게 할 수 있다는 건 전시 공간으로서 문화역서울 284가 가진 최대 장점이
다. <은밀하게 황홀하게>전은 심리학자이자 연세대학교 교수인 신수진 씨가 문화역서울 284 예술감독
으로 부임해 선보이는 첫 전시다. 1500평에 달하는 공간을 두어 달 만에 딱딱 143점의 작품으로 채워
냈다.

전시에는 그간 다른 미술관이나 상업 갤러리에서 선보인 작품들도 있다. 빛을 소재로 작업한 주요
작가들의 근작들을 한자리에 모았기 때문이다. 옛 서울역사 공간은 이러한 작품들을 한데 그러모아 새
로운 의미를 부여했다. 바로 ‘빛’이다. 시각예술의 모티프인 빛을 다양한 감각으로 느낄 수 있도록 했다.
색채도 흑과 백으로 제한됐다. ‘빛에 대한 31가지 체험’이라는 부제처럼, 이 전시는 빛을 탐색해나가는
여정으로 관람객을 안내한다. 어둠을 더듬어 빛을 만나거나, 빛을 느끼거나. 또는 빛과 어둠의 경계를
탐색하거나, 빛이 있는 그대로 발하거나. 한국 작가를 포함해 프랑스, 독일, 미국, 대만, 이탈리아, 벨기
에, 헝가리 등 총 8개국에서 온 31팀의 작가가 전시에 참여했다. 장르도 사진, 설치, 영상, 미디어아트
에 공연 예술로까지 외연을 확장했다.

전시장에는 흑백사진이 많이 걸렸다. 한국 흑백사진의 대가인 주명덕과 민병헌의 작품들이 걸렸
다. 만 레이, 앙드레 케르테츠 등 20세기 아방가르드 거장들의 흑백사진 30여 점도 대거 소환됐다. 아
방가르드 사진 예술가들의 방 한 칸에서는 프랑스 아티스트 팀 ‘스테노프레스(STENOP.ES)’의 영상
작업이 눈과 귀를 사로잡는다. 카메라 옵스큐라로 담은 파리의 정경이 옛 서울역 레스토랑의 굴곡진 벽
면에 투영된다. 아름다운 피아노 선율과 함께 상들리에 사이로 흑백 무성영화처럼 펼쳐진다. 장태원 작
가의 컬러 사진들도 독특하다. 낮 풍경 같지만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캄캄한 밤에 찍은 사진들이다.
최대 8시간까지 장노출로 빛을 추적했다. 빛과 시간으로 빛은 사진 예술이다.

인터랙티브 미디어아트로 한창 뜨고(?) 있는 작가 팀 ‘에브리웨어(Everyware)’는 관람객이 작품
을 갖고 놀며 빛을 직접 체험하도록 했다. 손전등을 벽에 비추면 감춰져 있던 영상이 튀어나온다거나,
설치 작품의 천을 누르면 색깔이 변하는, 빛과 촉각을 연결한 작품들을 보여줬다. 동양의 산수화에 미
디어아트를 접목하는 작가 이이남의 작품 <빛-장식품>과 <조춘도-보이지 않는 빛>은 가구디자이너
하지훈의 크롬 의자에 앉아서 볼 수 있다. 하지훈의 의자 시리즈는 바닥에서부터 울룩불룩 솟아오른 듯
높이가 다른 곡면으로 이뤄진 작품이다.

전시는 7월 4일까지. 전시 기간이 한 달도 채 안 된다는 게 아쉽다. 여름, 딱히 할 것 없고 하고 싶은
것 없는 이들에게 딱인데 말이다.



- 1 에브리웨어 〈Soak〉
(2011, Interactive table)
- 2 장태원 〈스테인드 그라운드〉
(2013, Inkjet print, 127×161cm)
- 3 (영상)카입+김정현 〈In the Land of Nowhere〉
(오디오 비디오 설치, 2015)
(바닥)하지훈 〈Jari_labs〉
(진공성형, 1000×2000×400mm, 2014)
- 4 홍범 〈5개의 방〉
(5채널 비디오, 가변 크기, 2014)

서늘하고 유려한 흑백의 환영

〈열은 공기 속으로(Into thin air)〉, 금호미술관, 5. 27~8. 20

전시는 지난 5월 금호미술관에서 먼저 열렸다. 다행히 이 전시는 8월 23일까지 계속된다. 빛과 어둠, 흑백으로 채워진 다소 으스스한(?) 공간에서 펼쳐지는 ‘납량 특집’ 같은 전시는 북촌의 뜨거운 햇살을 피하고 싶은 이들에게 권한다.

전시장에 들어서는 순간 서늘해진다. 아이러니하게도 눈부시게 발화하는 빛 때문이다. 전시장 1층 공간에는 박기원 작가의 작품이 들어앉았다. 천장에서부터 바닥까지 내려오는 여러 겹의 얇은 비닐 커튼 뒤에 밝은 조명을 설치했다. 빛이 폭포처럼 쏟아진다. 그래서 작품 이름도 〈낙하(Falling)〉. 바닥에는 뽕뽕한 에어튜브를 깔아놨다. 그 위에 앉아도 좋고 누우면 더 좋다. 그러나 발을 디디는 순간 불안하다. 몸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에어튜브가 뽕 터져버릴까 말이다. 걱정하지 말 것. 관객의 체온이 닿는 그 과정 또한 작품의 일부다. 공기가 빠지면 또 채워 넣으면 그만이다.

2층에서는 음악예술가 카입(Kayip, 본명 이우준)의 오디오 비디오 설치 작품을 볼 수 있다. 광활한 자연 풍경 이미지를 재조합해 파노라마처럼 펼쳐놓고, 이 이미지들을 소스로 사운드를 제작했다. 망망대해 같은 풍경이 세 벽면을 둘러싸고 있는 한가운데에는 역시 하지훈의 의자 작품이 있다. 전시 콘셉트에 맞게 이번엔 검은색 버전이다. 비스듬히 기대앉아 한동안 멍하니 있어볼 것. 이 공간에서는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이 미덕이다. 서양화가 이기봉은 한 폭 수묵화 같은 설치 작품을 전시장에 내놨다. 유리 너머 밀폐된 공간에 연무기를 놓고 안개를 피웠다. 천천히 돌아가는 축 처진 나무 한 그루. 유리 밖에서 보이는 오브제의 이미지는 모호하면서도 감각적이다. 명상의 시간을 이어가게 만든다.

‘납량 특집 같은 전시’라는 평이 따르는 것은 홍범 작가의 영상 작품과 김상진 작가의 사운드 조각 작품 때문이다. 홍범의 〈5개의 방〉은 오래된 집 이미지를 3D 프로그램을 이용해 드로잉으로 입체화한 후 애니메이션 기법으로 벽면에 투사한 작품이다. 빛이 명멸하듯, 어두운 전시 공간 안에서 이미지들이 뺄거덕거리며 나타났다 사라지기를 반복한다.

바로 그 옆 방이 하이라이트다.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깜깜한 이 방은 아직 암순응을 하지 못한 동공을 확장시키며 바짝 졸게 만든다. 이어지는 사운드에 잔털이 쭈뼛 선다. 김상진 작가는 어두운 전시장에 1m 격자 간격으로 98개의 소형 스피커를 매달아놨다. 스피커에서는 사무엘 베케트의 희곡 〈고도를 기다리며〉와 애국가 가 흘러나온다. 다양한 사람의 목소리를 채집해 재생했다. 스피커는 위치에 따라 각각 다른 볼륨을 내며 기괴한 불협화음을 빙는다. 깜짝 놀라 공간을 뛰쳐나왔다면 마음을 가라앉힌 후 다시 공간 속으로 고개를 들이밀어볼 것. 불협화음의 하모니가 음악처럼 귀에 꽂히는 순간이 있다. 금속 스피커가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모습도 별빛처럼 보인다.

글 김아미 헤럴드경제 라이프스타일부 기자
사진 제공 문화역서울 284, 금호미술관

책 <여성의 남성성>과 <젠더 무법자>

‘완전한 여성’ 혹은 ‘완전한 남성’이라는 허상

지금 대한민국은 ‘김치녀’와 ‘김치남’의 세상이다. 김치녀는 그 옛날의 된장녀처럼 호락호락하지 않고, 김치남은 한층 날카로워진 여성의 목소리가 피곤하기만 하다. 이런 상황에선 남성 진영에도 여성 진영에도 안식은 없다. 유일한 안식은 우리 모두가 실은 완전한 남성도, 완전한 여성도 아니라는 가능성에 있다.

남성성은 남성만의 것일까 주디스 헬버스탐 <여성의 남성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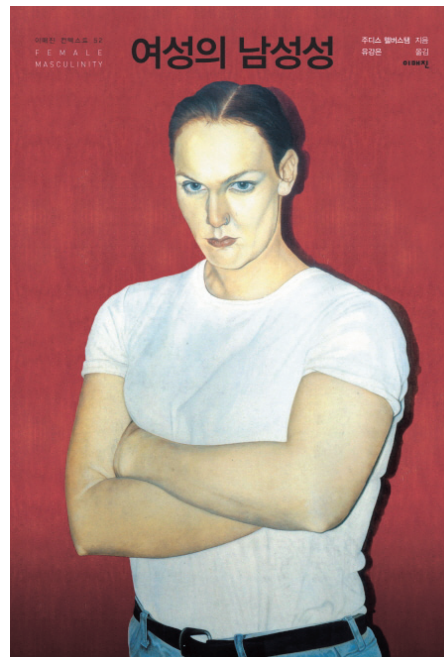
1995년 영국에서 제작된 영화 <신주쿠 보이즈>는 일본 ‘오나베’를 소재로 한 영화다. 오나베란 남장 여자란 뜻으로 영화에선 여성 성노동자 중 행동이나 복장이 남성에 가까운 이들을 지칭한다. 오나베의 주 고객층은 남자가 아닌 여자다. 이 여자들은 남자가 아닌 여자와 관계를 맺고 싶어 하지만 자기 파트너에게서 소위 여성성이 폴폴 풍기는 것은 바라지 않는다.

오나베와 그 고객들을 보고 있다면 여성성과 남성성에 대한 의문이 든다. 여성성 없는 여자를 원하는 이들의 욕구는 어떤 것일까. 여성성을 싫어하면서 굳이 여자와 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 이유는 뭘까. 남자의 경우 남성성 없는 남자와 관계 맺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원하는 건 남성의 몸인가, 여성적 성향인가.

이 질문들은 ‘여성성과 여성’, ‘남성성과 남성’이 각각 동전의 양면처럼 딱 달라붙어 있으리라는 생각이 우리 사이에 폭넓게 퍼져 있음을 일깨운다. 주디스 헬버스탐의 <여성의 남성성>에 따르면 ‘여성성과 여성’ 혹은 ‘남성성과 남성’의 관계는 그다지 긴밀하지 않다. 주디스 버틀러와 함께 여성, 젠더, 퀴어 연구자로 이름을 날리고 있는 헬버스탐은 다분히 음모론적인 태도로, 우리가 살고 있는 문화가 여성의 남성성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며 심지어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이유는 남성의 남성성을 ‘진짜’로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남성이 만든 남성성만이 진짜이고 온전한 것이며 여성이 만든 남성성은 모방이나 자투리에 불과하다는 생각에 대해 저자는 “(남성성은) 남자와 여자 둘 다의 육체를 거쳐, 두 육체를 가로질러 만들어진 산물”이라고 말한다.

헬버스탐이 역사적 사료에서 찾아낸 여성의 남성성 사례는 충격적이면서 흥미진진하다. 여기서 남성성은 남자다운 성격이 아닌 주로 침대 위에서의 역할, 즉 여성에게 성적 쾌감을 선사하고자 하는 행동, 성향, 방법, 의지의 총체를 뜻한다. 1811년 영국의 한 여학교에서 여학생 한 명이 두 여교사의 ‘추잡한 성적 행위’를 고발했다. 학생에 따르면 두 교사는 한밤중에 서로의 침대를 찾아갔으며 “침대가 흔들리는 느낌이나 거친 숨소리, 그밖에 수상쩍은 소리와 묘한 대화”를 사방에 흘렸다. 소리는 “물 묻은 병의 목에 손가락을 집어 넣은 것 같은 빠른 소리”였으며 대화는 “잘못 집어 넣었어” 같은 것들이었다.

당시 판사들 중 이 말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었다. 남성의 성기 없는 성교를 상상할 수 없었던 그들은 학생이 ‘인도계’였다는 데 주목, 인도의 특수한(혹은 문란한) 성적 문화 때문에 학생이 교사들을 오해한 것이라고 몰아붙였다. 저자는 사회의 주류 계층인 판사들이 ‘삽입기관 없이 오로지 여성의 남성성에 의해 이뤄지는 성관계’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남성성 발전의 역사에 여성이 참여한 부분을 쏙 빼버렸다고 주장한다. 이 같은 ‘배제’는 지금도 반복되고 있으며, 생물학적 성과 사회적 성의 일치를 의무화하는 목소리에 힘을 보태주고 있음은 말할 것도 없다.



모든 이에게는 젠더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

케이트 본스타인 <젠더 무법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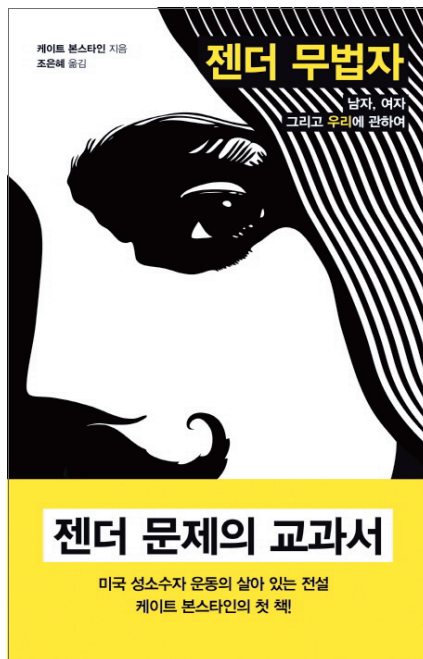
헬버스탐이 “남성성은 남자만의 것이 아니며 남성적 여자들은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고 외친다면 케이트 본스타인은 아예 젠더 분류 자체를 거부한다. 먼저 본스타인의 성별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백인 남성으로 태어난 그는 성기절제술을 받아 여자의 몸을 갖게 됐다. 그렇다면 트랜스젠더라 부르면 되겠지만 그의 성적 취향은 남성이 아니라 여성이다. 그럼 트랜스섹슈얼 레즈비언인가? 그런데 본스타인의 애인은 여성에서 남성으로 젠더 전환 과정을 거치는 중이라고 한다. 그럼 이 사람은 여자인가 남자인가? 여자를 좋아하는가, 남자를 좋아하는가? 어쩐지 점점 짜증이 실리는 독자의 질문에 본스타인의 대답은 느긋하다.

“많은 사람이 ‘성별 정체성’이 자연스럽다고 생각한다. ‘남성임’ ‘여성임’을 느낄(feel) 수 있다고 말이다. (...) 나는 ‘여자’가 뭘 느끼는지 전혀 모른다. 소녀나 여자라고 느낀 적이 없으며, 내가 소년이나 남자는 아니라는 확신이 있었을 뿐이다. 젠더 전환에 확신을 준 것은 느낌의 존재라기보다 부재였다.”

단지 ‘느낌의 부재’라는 이유만으로 인종 피라미드의 최상위층-백인 중산층 남자-자리를 걸어 차버린 본스타인은 한층 더 과격하게 말한다. 진짜 여자 혹은 진짜 남자라는 것은 애초에 없으며 모든 개인에게는 젠더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그러면서 스스로를 여자 혹은 남자라고 굳게 믿는 사람들을 향해, 혹시 지배문화에 설득당한 적은 없는지 찬찬히 생각해볼 것을 권한다. 우리의 젠더를 지정하는 지배문화의 기준은 생각보다 매우 허술하며,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아래 기득권에 대한 집요한 욕망이 깔려 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그에 따르면 젠더는 가장 근본적이고 거대한 계급이다.

“위계질서의 틀로 사용할 성별이 없어지면 젠더 체제의 거의 절반에 이르는 구성원은 아마 어쩔 줄 몰라 할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타인들에게 휘두르는 권력이 좋은 것이라고 믿으며(내 생각엔 어리석은 짓이다!) 그걸 유지하고 싶어한다. 그 때문에 그 좋은 권력을 잃을까봐 공포에 질려 있다. 난 여기서 ‘남성 특권’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다.”

젠더 체계가 무너지면 당장 저녁 밥상에서 누가 젓가락을 놓아야 할지 싸워야 하는 현실 앞에서 본스타인의 주장은 사막의 신기루처럼 요원해 보인다. 그러나 그 말만은 얼마나 위안이 되는지. 이게 이 시대의 진정한 힐링 서적이다. ^{59/63}



글 황수현 한국일보 문학 기자. 패션과 음식을 거쳐
문학과 미술까지, 문화 전반을 10년째 취재 중이다.
사진 제공 바다출판사, 이매진

별자리 운세도 신통치 않을 때

예술적으로 상담해드립니다

“똑똑똑... 여기가 ‘예술적 상담소’ 맞나요?”

여러분의 어떤 고민도 예술적으로 상담해드리는 ‘예술적 상담소’.

페이스북 탭으로 별도 공간을 마련해 고민 상담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올려주신 고민에 대한 예술적 대책을 찾아 답변을 달아드리니 페이스북 탭에 자주 방문해주세요!

다른 사람의 고민에 댓글을 달 수도 있습니다.

채택된 질문은 [문화+서울]에 게재되며, 소정의 상품을 발송해드립니다.



박주희

문학치료사가 되기 위해

어떤 공부를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고3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평소 ‘문학치료’에 관심을 갖고 왔으므로 그 분야에서 활동하고자 합니다. 그런

데 사실 문학치료사란 직업은 대중에게 익숙하지도 않고 또 관련된 활동도 적다고 느꼈는데요. 그래서인지 문학치료사가 되기 위해 어떤 구체적인 일을 해야 할지 생각할 때마다 막막했어요. 그때 바로 [문화+서울]을 읽고 예술교육에 대한 지식을 조금 얻어서 큰 힘이 됐어요. 더 넓은 시선으로 세계 예술교육기관을 배우는 기회이자, 서울문화재단 또한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니 읽는 내내 가슴이 벅찼습니다.

앞으로 제가 문학치료사가 되기 위해 ‘국어국문과’ 또는 ‘문예창작과’에 진학해도 큰 무리가 없을까요? 저는 지금까지 문학치료를 하기 위해 어떤 공부를 해야 하는지 길을 찾지 못해서 고민이 돼요. ‘문학치료’를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기관에서 어떤 식으로 이런 활동을 운영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혹시 지금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소개해주실 수 있을까요?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학으로 하여금 마음이 치유되는 것을

느꼈다면

문학치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다니 무척 반갑습니다. 저는 공인문학치료사이며 공인저널 치료사인 이봉희 나사렛대학교 교수입니다.

평소에 문학을 많이 좋아하고 책 읽기를 즐기시는가 봅니다. 혹시 그 동안 소설이나 시 등 문학작품을 읽으시다가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거나 문제가 해결되는 체험을 하신 적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평소 좋아하는 문학을 통해 누리는 즐거움과 치료적 혜택을 혼자서만 누리기가 아쉬워서 그것을 많은 분에게 알리고, 또 주변의 이런저런 마음의 상처로 힘든 사람들을 문학으로 돕고 싶으신 것은 아닌가 생각도 해 봅니다.

말씀하신 대로 문학치료는 다른 표현예술치료(미술, 음악, 연극, 동작)보다는 상대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진 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중에게 그렇게 익숙한 예술치료는 아닙니다. 하지만 역사가 짧은 만큼 오히려 더 미래에 할 일이 많은 분야이기도 합니다. 대중에게 잘 알려진 치료사가 아닌 만큼 문학치료사가 되기 위해 어떤 구체적인 교육을 받아야 할지도 막막하셨을 것 같습니다.

문학 창작과 문학치료는 조금 다릅니다

우선 문학치료가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학치료란 치료자(‘촉진자’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와 내담자와의 치료적 상호작용을 위해 문학과 창조적 글쓰기를 활용하는 분야입니다. 좀 어렵게 들리신다면 쉽게 풀어볼까요? 문학치료는 혼자서 책을 읽고 마음에 변화가 오거나 문제의 답을 찾거나 마음의 상처를 해결하는 것(독서를 통한 치료)과 달리 중간에 상담처럼 치료자가 개입합니다. 문학과 독자의 일대일 관계가 아닌 거지요. 하지만 상담과 다른 점은 문학치료는 치료자와 내담자



<http://bit.ly/ltAX44>



사이의 대화를 위해 문학작품과 글쓰기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문학작품을 제시하고 그것으로 인해 내담자가 보이는 여러 개인적, 정서적인 반응을 토대로 치료적인 대화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이때 말로 하는 대화와 함께 더 중요한 요소는 ‘글쓰기’를 활용한다는 점입니다.

문학치료에서의 글쓰기에는 창조적인 시 짓기도 있지만 저널 기법을 활용한 다양한 글쓰기, 감정을 표현하는 자기표현 글쓰기도 있습니다. 보통 학교에서 배운, 타인과 소통하기 위한 글쓰기와는 다르지요. 어려서부터 독자를 의식한 글을 쓰는법을 배웠고 그렇게 교육받고 검열받아왔기 때문에 자신과 소통하기 위한 글쓰기는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를 짓는 창조적인 행위는 치료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만 이때 (치료를 목적으로) 쓰는 시는 예술적 가치를 중시하지 않습니다. ‘글을 잘 쓰는가’ ‘재능이 있는가’와 같은 자질은 문학치료에서 받는 치료적 효과와 연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예술적인 글을 써오거나, 혹은 국문학을 전공한 경우 시를 보면 분석하려고 하는 참여자 혹은 촉진자들은 문학치료 시간에 오히려 방해가 될 때가 있습니다.

문학치료사가 되려면 이런 공부를

문학치료사가 되기 위한 교육은 보통 대학원 문학치료학과에서 합니다. 대학원의 커리큘럼과 실제로 개설되어 강의가 이루어지는 내용을 잘 보시면 대학원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문학치료도 사람의 마음과 아픔을 다루는 것이므로 문학치료사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반드시 ‘상담’과 ‘심리’에 대한 여러 공부가 필요합니다. 대학원에서 그런 것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만으로는 부족한 부분을 실습과 슈퍼비전을 통해서 훈련받으셔야 합니다.

학부에서 문예창작이나 국문학을 전공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문학에 대한 애정과 기본적인 이해 능력, 그리고 문학작품에 대한 방대한 독서 자원이 문학치료사로서의 필수적인 자질 중 하나이며 또한 글쓰기의

힘에 대한 믿음과 체험은 반드시 필요하므로 학부에서 그 전공을 하시려는 계획은 찬성하고 권장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참여자들에게 시를 강의하거나 치료자의 해석을 교육하는 것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문학치료사로서의 교육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문학치료 워크숍에 참여하셔서 본인의 갈등과 마음의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받는 체험은 살아 있는 교육이 됩니다.

치료사로서 직업은 다른 예술치료사와 동일합니다. 개인상담(치료)을하실 수도 있고 그 외 여러 기관(어린이집, 도서관, 교정시설, 양로원, 교육기관, 방과 후 프로그램 등)에서 창조적으로 프로그램을 활용해 다양하게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간략한 설명이나 궁금증이 조금 풀리셨나요? 마지막으로 내가 왜 문학치료사가 되고 싶은지, 그 동기가 무엇인지, 내 안의 어떤 자질이 있는지, 나는 문학과 글쓰기를 좋아하는지, 기꺼이 남을 돕고자 하는지, 왜 그런지, 내게 공감 능력이 있는지, 내가 문학치료사로서 기대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럴 경우 얻는 것은 무엇이고 마이너스는 무엇인지 등을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찌 보면 막연한 이런 질문과 답에 길잡이가 필요하다면 한번 직접 체험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다면 여러 신빙성 있고 학문적으로 검증받은 글들, 즉 학술 논문이나 책을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때로 인터넷에 개인적으로 올린 글들 중에는 오류가 많은 내용이 있을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시고 늘 본인의 주관적 판단을 가지고 자료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다시 한 번 문학치료에 관심 가져주셔서 반가웠습니다. ^{이봉희}

답변 이봉희 문학박사, 미국공인문학치료사(CAPF)/공인저널치료사(CJF), 나사렛대학교대학원 문학치료학과 교수, 한국글쓰기문학치료연구소 소장이며 책 <내 마음을 만지다: 이봉희 교수의 문학치유카페>를 지었다.



〈사진1〉종로구 세종로에 있던 국제극장.



‘특별한 추억’을 새겨준 서울의 극장들

종로 ‘국제극장’, 충무로 ‘대한극장’... 옛 극장의 추억

누구나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추억의 영화’가 있습니다. 50대 이상 중년 남성들은 극장에서 쌍절곤을 돌리는 이소룡과 <외팔이 드라곤> 시리즈의 왕우를 보고 나와 친구들과 ‘거리 대결’을 벌인 기억이 있을 겁니다. 중년 여성들도 <로마의 휴일>과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닥터 지바고> 등 고전 명작을 보며 웃고 울던 추억을 간직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은 대형 멀티플렉스 체인이 곳곳에 있고, 다양한 영화가 매주 쏟아져 나와 영화를 보는 일이 큰 즐거움으로 느껴지지 않지만 예전에는 극장에 가기 며칠 전부터 잠을 못 이룰 정도로 설렘했습니다. 극장 예매 시스템이 없던 시절에는 영화를 보기 위해 극장 매표소 앞에 줄을 서야 했습니다. 특히 화제작이 개봉할 때는 그 줄의 길이가 매우 길었습니다. 매표소 앞에서 시작된 줄은 극장 인근 주택가까지 구불구불 이어져, 뒤쪽에서 있는 사람들은 ‘이 줄이 극장 매표소 줄이 맞나’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였습니다. 당시에는 암표상도 많았습니다. 암표상들이 노리는 대상은 주로 데이트하는 남녀였습니다. 데이트 상대를 줄 세워놓는 게 미안한 남성들이 생색을 내기 위해 지갑을 잘 열었으니까요.



〈사진2〉 중구 퇴계로에 위치한 대한극장의 1958년 모습.

원조 '영화 1번지' 종로와 충무로

우리나라에 극장이 처음 들어선 것은 1910년대였습니다. 서울 종로에 우미관과 단성사가 처음 생겼고, 을지로 국도극장(개관 당시 이름은 '황금연예관'이었다가 광복 이후 개칭)도 그 시기에 개관했습니다. 1930년에는 충무로에 스카라극장(처음에는 '약초극장'이었다가 광복 후 '수도극장'으로 이름이 바뀌었으며 1962년에 다시 개칭)이 생겼고, 광복 후 중앙극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또 1957년에는 충무로에 명보극장도 들어섰고, 종로3가 피카디리극장과 세기극장은 1960년에 개관했습니다. 세기극장은 1979년 서울극장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사진1〉은 서울 종로구 세종로 현 광화문빌딩 자리에 있던 국제극장 전경입니다. 1956년 국제문화관으로 문을 연 이 극장은 1959년 3월 국제극장으로 이름을 바꾸고, 본격적인 영화 개봉관으로 재탄생했습니다. 개관을 앞두고 '근일개관(近日開館)'이라는 간판을 붙여놨네요. 당시 개관 기념작으로 앤서니 만 감독이 연출한 마리오 란자 주연의 〈세레나데〉가 상영됐습

니다. 1,600석 규모의 이 극장에서는 〈자유부인〉 〈연산군〉 등 유명 한국 영화를 비롯해 〈러브스토리〉 〈대부〉 〈타워링〉 등 대작 외화들이 관객과 만났습니다. 국제극장은 1985년 서울시의 재개발계획에 의해 헐릴 때까지 20여년간 800여 편의 영화를 상영하며 2,000만 명 이상의 관객을 모았습니다.

서울 중구 퇴계로에 위치한 대한극장은 1956년 1,900여 관람석을 갖추고 개관했습니다. 이 극장에서는 〈벤허〉 〈사운드 오브 뮤직〉 〈킬링 필드〉 〈마지막 황제〉 등 주로 대작들을 상영했습니다. 〈사진2〉는 1958년 대한극장의 모습입니다. 당시 이 극장에서는 〈위성내습〉이라는 SF영화를 상영했습니다. 이 영화는 잭 아널드 감독이 연출한 3D영화인데 영화 제목 앞에 '입체영화(立體映畵)'라고 한자 약자로 써놓았어요. 이 영화의 원제는 '잇 케임 프롬 아우터 스페이스(It came from Outer Space)'로 외계인이 인간을 조종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2000년 5월 신축 공사를 위해 잠시 문을 닫았던 이 극장은 2001년 12월 지하 1층, 지상 8층 규모의 8개 상영관을 갖춘 멀티플렉스로 재탄생했습니다.

위에 거론된 극장들은 모두 개봉관입니다. 개봉관에서 처음으로 상영된 영화는 재개봉관으로 넘어간 후, 마지막으로 한 번 들어가서 두 편을 볼 수 있는 동시상영관에서 그 '생명'을 마감했습니다.

필름이 끊어지면 격려의 박수를 보내던 옛 극장의 추억

요즘 멀티플렉스 극장들은 안락한 의자와 온몸을 감싸는 음향 등 최첨단 시설을 갖췄습니다. 또 영화 화면에 맞춰 의자가 움직이고, 바람과 물이 나오는 특수 상영관도 생겼습니다. 이런 극장에서 영화를 보면 매우 편안하지만 옛날 극장처럼 추억이 쌓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에 다니던 1970년대에 아버지, 어머니 손을 잡고 처음 극장에 간 날이 지금도 또렷하게 생각합니다. 영화 제목은 생각나지 않지만 대형 화면에서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 자체가 신기했습니다. 상영 중간에 필름이 끊어져 한참을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짜증을 내지 않고, 영사 기사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냈습니다. 영화 상영 중에도 이동 판매원이 과자와 음료수를 팔러 다녔습니다. 사이다 한 병을 사주시며 "재미있느냐"고 물으시던 어머니의 밝은 얼굴이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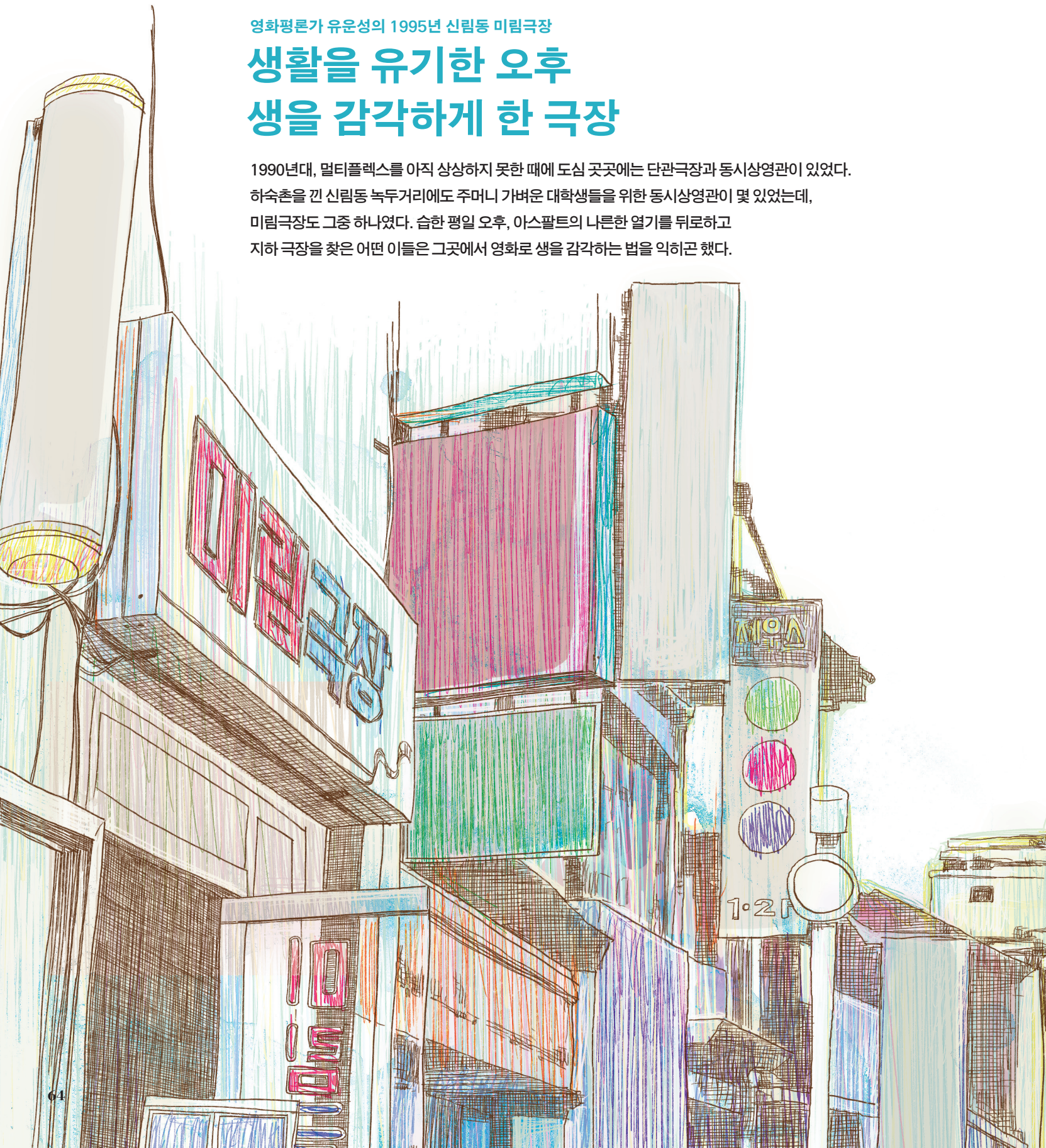
물론 지금 어린 세대들은 멀티플렉스가 추억의 갈피에 자리 잡겠죠. 그래서 훗날 '내가 어릴 때 극장이 이랬어'라고 말하며 흐뭇한 미소를 지을 겁니다. 필름 끊기

사진 김현길 전 AP통신 기자. 1950년부터 38년 동안 서울지국 사진기자로 일하며 격동기 한국 근현대사를 생생하게 기록했다.
글 김구철 문화일보 문화부 기자. 대중문화팀장으로 영화를 담당하고 있다.

영화평론가 유운성의 1995년 신림동 미림극장

생활을 유기한 오후 생을 감각하게 한 극장

1990년대, 멀티플렉스를 아직 상상하지 못한 때에 도심 곳곳에는 단관극장과 동시상영관이 있었다. 하숙촌을 낀 신림동 녹두거리에도 주머니 가벼운 대학생들을 위한 동시상영관이 몇 있었는데, 미림극장도 그중 하나였다. 습한 평일 오후, 아스팔트의 나른한 열기를 뒤로하고 지하 극장을 찾은 어떤 이들은 그곳에서 영화로 생을 감각하는 법을 익히곤 했다.



기억은 내 머리에 깃드는 일을 점점 가소롭게 여기는 것 같다. 그가 늘 그랬던 것은 아니지만 몇 년 전부터 서서히 나와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했던 것만은 분명하다. 그러니까 1995년 초여름 어느 오후, 지금은 사라지고 없는 신림동의 미림극장에 간 적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오일 가능성이 없지 않다. 다행히도 소설가 김경욱이 <미림아트시네마>에서 그곳의 풍경을 미리 묘사해둔 바 있어 그걸 지침으로 삼아 술쩍 기억이란 놈을 붙잡아본다. “신림 사거리에서 관악산 방면으로 들어오다 보면 시흥 쪽으로 나가는 갈림길이 나타난다. 그 분기점 귀퉁이에 있는 건물 지하에 미림극장이 있었다. 미림극장은 두 편의 영화를 동시 상영하는 허름한 재개봉관이었다. [...]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주말이면 그는 미림극장에 갔다. 그곳에서 그는 간혹 아는 얼굴들을 발견하곤 했다.”

“세상의 경쟁으로부터 한 발짝 비켜선” 극장

미림극장에 드나들기 시작한 것은 기숙사를 나와 신림동에 하숙집을 얻은 1993년부터였다.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주말’보다는 다들 무슨 일인가에 바쁜 평일 오후에 그곳을 찾곤 했다. 영화가 끝나고 지상으로 통하는 계단을 올라 극장 입구를 나섰을 때 여전히 환하게 내리쬐는 햇빛 아래 홀로 있고 싶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영화가 자신을 지켜보는 이들에게 요구하는 생활의 유기(遺棄), 그 버림을 감수한 자들에게만 약간의 죄책감과 더불어 선사하는 생의 감각을 만끽하고 싶어서이기도 했다.

평일 오후의 미림극장, 지하로 통하는 계단을 내려가면 표도 팔고 영사기사 노릇도 하는 아저씨가 친구로 보이는 아저씨 두서너트와 로비의 소파에 앉아 담배를 피우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그런데 정말 소파가 있기는 했던가? 탁자는 있었던가?) 한 아저씨가 매표원 겸 영사기사에게 묻는다. “오늘 상영하는 영화는 뭐야?” 그러자 매표원 겸 영사기사는 벽에 걸린 포스터를 술쩍 훑어보고는 답한다. “응, <고공침투>네.” 상영작 제목을 묻은 아저씨는 재차 묻는다. “뭐? <007 II>라고?” 나는 그날 정말 <고공침투>가 상영되었는지 어떻게 알지 못한다. (또한 이 대화가 내가 직접 들은 것인지 나처럼 가

끔 미림극장을 찾던 친구에게서 전해 들은 것인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 김경욱이 묘사한 대로 “느슨한 분위기, 무엇보다 세상의 경쟁으로부터 한 발짝 비켜선 듯한 영락의 기미”로 가득한 곳이긴 했다. 하지만 이것만은 분명히 기억하는데, 무슨 프로그램이 상영되건 상관없이 그곳의 분위기에 그저 몸을 적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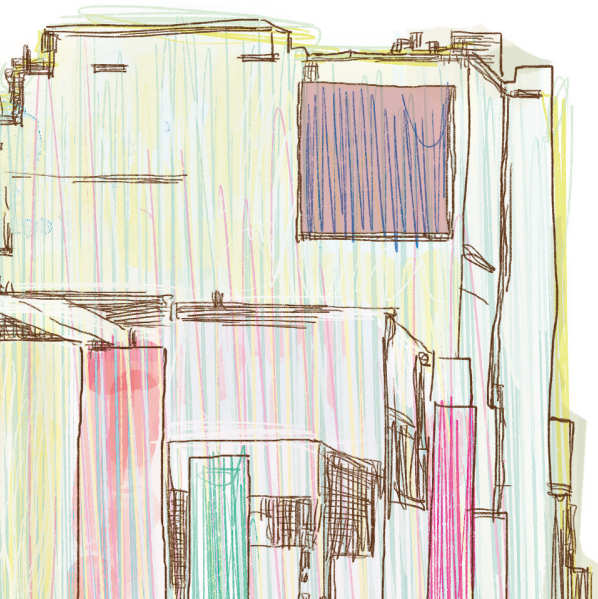
위해 미림극장을 찾은 적은 없다.

어딘가에서 이미 본 영화들 가운데 생활의 유기를 거쳐서만 생의 감각에 가 닿게 만들 것처럼 느껴지는 영화가 상영될 때, 오직 그런 때에만 나는 미림극장을 찾았다. 여느 동시상영관과 마찬가지로 미림극장 프로그램 또한 대체로 액션영화나 에로영화로 꾸러졌지만 다소 이례적인 영화들이 상영되는 경우도 없지는 않았다. 소문으로만 듣던 이런저런 예술영화들이 비디오테크에서 상영되거나 하나둘씩 뒤늦게나마 극장에서 개봉되곤 했던 때라, 그런 영화들이 상영되는 장소에 앉아 있으면 스크린을 향해 종교적 정념을 투사하거나 마비된 듯한 자세로 엄숙한 경배의 제식에 입회 중인 이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었다. 1986년 작품이지만 이런저런 영화잡지를 통해 한껏 소문이 부풀려진 끝에 1994년에야 개봉된 레오스 카락스의 <나쁜 피>도 그런 영화 가운데 하나였다. 그런데 제목부터가 ‘오염’의 모티프를 강조하고 있는 이 영화를 그처럼 불온함이 ‘멸균된’ 환경에서 보는 건 온당치 않은 일처럼 여겨졌다. 미림극장은 이런 영화를 위해 마련된 작의(作意) 없는 아트 갤러리나 다름없었다.

1995년, 불온함을 먹고 영화가 자란 시간

미림극장 로비를 지나 상영관으로 들어서면 한 편의 영화가 상영 중이다. 그것이 어떤 영화였는지 나는 기억하지 못한다. 동시상영관에서 으레 상영되곤 하는 영화들은 정작 그 공간의 음습함 자체를 버텨내지 못했다. 보는 이에게 생활의 유기를 요구하기도 전에 스스로를 유기해버리는 영화들, 이런 영화들은 그저 우리를 생활로 돌려보낼 뿐이다. 이제는 기억하지 못하는 영화가 끝나고 비로소 <나쁜 피>의 상영이 시작된다. 다섯이 채 안 되는 관객이 앉아, 나 또한 거기에 섞여, (누군가의 앞선 위반을 빌미로) 눈치껏 담배를 피우며, 앞 좌석에 발을 올리거나 비스듬히 옆으로 기댄 채, 짐짓 무심한 표정으로 스크린을 본다. 얼마 지나지 않아 영화는 생활을 유기한 자들이 토해낸 불온함을 양식으로 삼아 스크린 밖으로 조금씩 팽창하기 시작한다. 마침내 우리를 극장 밖 환한 대기 속으로 토해낼 때까지, 팽창하고 또 팽창한다. 뒤돌아보면 미림극장은 이미 사라지고 없다. 꼬박 20년 전 초여름의 어느 오후가 내 뒤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리라 생각한 것이 오산이었다. 방금 전에 나왔지만 벌써 이름이 기억나지 않는, 게나예나 다를 바 없는 한 영화관을 빠져나와 두 시간 내리 참았던 담배를 피워 무노라면, 그 도취의 순간이 아득하고도 가깝게 떠오르곤 하는 것이다.

글 유운성 영화평론가. <인문예술잡지 F> 편집위원. 2004년부터 2012년까지 전주국제영화제 프로그래머로 일했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문자문화원 사이 기획부장으로 있으면서 강연 및 전시 등을 기획했다.
그림 조성현 대구에서 태어나 서양화를 전공했다. 현재 프리랜서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 중. 참여한 책으로는 국민은행 자산관리매거진 <THE STAR TABLE>, 서울신용보증재단 매거진 <SUCCESS> 등이 있다.



산업으로 성장 중인 '키덜트' 문화

키덜트 시티로 어서오세요

지난해, 한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에서 어린이 메뉴를 주문하면 수퍼마리오 피규어를 제공하자 이를 수집하기 위한 30~40대 고객이 대거 몰려들어 매장마다 피규어가 품절되는 일이 있었다. 일명 '해피밀 대란'으로 불리는 이 해프닝은 한국에서 다소 부정적으로 인식됐던 '키덜트'가 그들의 취향을 숨기지 않고 유력한 소비층으로 부상하는 사건이었다.

키덜트는 이제 한국에서 중요한 산업으로 성장하는 중이다.



PLAY GAMES



올봄 성황리에 개최된 2015 키덜트엑스포 행사 포스터.

“동네에 오락실이 생겼다.” 30년 전이라면 꼬마들 사이에 큰 뉴스가 되었을 것이다. 너나 할 것 없이 용돈을 털어 달려갔을 게다. 지금이라면 어떨까? 집집마다 컴퓨터, 골목마다 PC방, 손에 손에 스마트폰이 들려 있는 시대다. 구린 화질의 아케이드 게임엔 콧방귀도 아깝다고 여길 것이다. 그런데 얼마 전 우리 동네에 진짜 오락실이 생겼다. 뜻밖에도 소년들이 앞다투어 달려갔다. 소년은 소년인데, 30~40대의 소년들이었다.

추억의 오락실에서 ‘보글보글’ ‘테트리스’ ‘철권’을 깔깔대며 즐기는 어른들. 해외 직구로 한정판 프라모델 로봇과 빈티지 인형을 사 모으는 엄마아빠들. 해외 직구로 한정판 프라모델 로봇과 빈티지 인형을 사 모으는 엄마아빠들. 사회·육체적 연령은 어르이지만, 어린이 같은 취미를 즐기는 사람들 두고 ‘키덜트(kidult)’라고 한다. 예전에는 별난 취미를 가진 특별한 사람들로 여겨지기도 했다. 하지만 이제 아니다. ‘키덜트 엑스포’ ‘키덜트 페스티벌’ 등의 대형 행사가 연이어 열리고, 〈키덜트잇〉이라는 전문 잡지가 창간되고 있다. 키덜트는 지금의 시대를 상징하는 단어가 되고 있다.

대중문화의 세례를 받으며 성장한 한국의 키덜트 1세대

영어 단어 '키덜트(kidult)'는 키드(kid)와 어덜트(adult)의 합성어로 1960년대에 처음 생겨난 말이다. 원래는 피터팬 신드롬과 비슷하게 성인이 되어서도 자신의 독립적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하고, 아이처럼 무책임하게 놀이에 빠져 있는 태도를 일컫는 말이었다. 그러다가 21세기 초반에 새로운 의미를 얻게 된다. <해리포터>가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키며 소년 판타지 문학과 성인 독자 시장의 경계를 허물었다. <스타워즈> <반지의 제왕> 등의 영화가 소년의 감성으로 최고 수준의 엔터테인먼트를 펼쳐냈다. 아이들만이 가졌던 상상력의 즐거움을 어른이 되고 나서도 포기할 필요가 없다는 걸 알게 된다.

국내에서도 키덜트라는 단어가 곧바로 유입되었는데, 여기에 특수한 문화지체 현상이 결합되었다. 한국에서 대중문화를 본격적으로 즐기게 된 이들은 1970년대 이후에 태어난 세대들이다. 이들은 가파른 경제성장의 궤도에 맞춰, 어린이 만화 잡지, 컬러TV, 프로스포츠, 댄스 음악 등의 세례를 받으면서 자라왔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몇 가지 한계가 있었다. 먼저 로봇 장난감, 애니메이션 상품, 게임기 등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인지했지만, 이런 상품들을 자유롭게 향유할 만큼의 경제적 여유는 없었다. 부모들은 입시와 성공에 대한 강박을 주입하며, 이들이 공부 외의 여흥을 위해 돈과 시간을 쓰는 것에 강한 제약을 가했다. 또한 일본 문화 등 해외 문화 상품의 유입이 제한되어 있어, 제대로 된 작품이나 그에 연관된 상품을 만날 기회가 없었다.

이러한 제약들을 한꺼번에 벗어나게 된 것이 2000년대 초반이었다. 이들은 20~30대 성인이 되어 독립된 공간과 경제적 여유를 얻게 되었다. 일본 문화 개방으로 인해 소문으로만 들던 애니메이션, 게임 등을 한꺼번에 만나게 되었다. 인터넷을 통해 각국의 문화 국경이 거의 소멸되었다. 갈망했으나 채우지 못했던 어린 시절의 욕망을 뒤늦게나마 해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때문에 한국의 키덜트 현상은 세계 어느 곳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정도로 강렬했다.

키덜트 산업의 성장, 추억을 오래 즐길 권리

연이은 불황이 잉여의 취미생활에 타격을 주기도 했지만, 10여 년이 지난 지금 키덜트는 당당한 산업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 시대가 문화 산업이 본격적으로 성장한 때라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 한국에서 키덜트라는 존재를 널리 알린 데는 피규어 수집광인 이승환, 태권브이 마니아인 양현석의 역할이 적지 않았다. 이들은 연예인이자 문화기획자로서 당당한 자기 활동을 하면서, 어린아이 같은 취미를 가진 것을 숨기지 않았다. 오히려 그러한 잉여 행동이 중요한 문화적 자산이자 자기 정체성의 표현으로 여겨졌다. '뽀로로' '꼬마버스 타요' '라바' 등 국내 캐릭터의 급성장 역시 키덜트에 대한 시선을 바꾸게 했다. 키덜트의 진열장을 장식하게 된 물건들이 '비싼 로열티를 지불하고 사는 외국 장난감'이 아니라, '문화 한류의 자랑스러운 선봉장'이 된 것이다.



5월에 열린 '키덜트 페스티벌'에서는 국내 최대 규모의 레고시티 디오라마가 재현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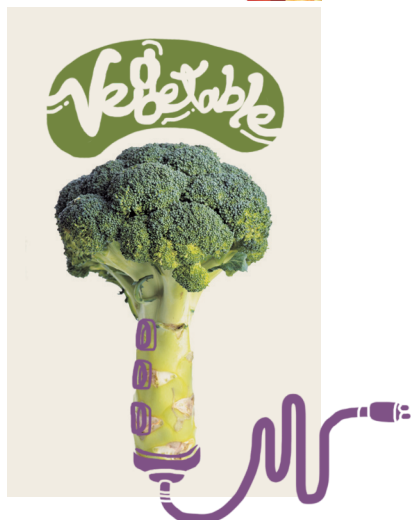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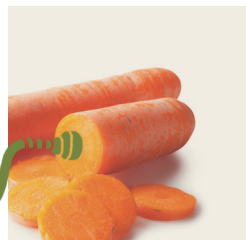
출산율이 떨어지면서 한두 명의 아이와 부모가 긴밀하게 생활하는 것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엄마아빠와 아이가 함께 뽀로로 티셔츠를 입고 타요 버스를 찾아가 사진을 찍고 장난감을 사는 게 아주 일상적인 모습이 되고 있다. 물론 키덜트 엄마아빠는 아이에게 뽀로로 인형을 안겨 재운 뒤에 다른 공공기를 벌인다. 이소룡의 액션 장면을 그대로 본뜬 초고가의 액션 피규어를 장만하기 위해 경매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구제관절인형에게 자기 것보다 비싼 옷을 갈아입히기도 한다.

기업을 이끄는 CEO나 정책 결정자 중에도 키덜트 취향을 가진 사람이 많아졌다. 앞서 말한 대중문화 세대가 이미 40대 중반이 되기도 했고, 벤처 사업을 일군 젊은 사업가도 많아졌다. 이들은 본인이 좋아해서, 또는 주변의 성인들이 좋아할 걸 알아서 키덜트 사업에 뛰어든다. 거대한 캐릭터 인형을 사육 중앙에 배치하고, 드론이나 액션캠 등 최신 과학기술을 활용한 키덜트 가전 전문점을 열고 있다.

키덜트의 감성은 낯선 이들과의 거리를 좁히는 일도 도와준다. 미니 마우스 핸드백, 피카츄 스냅백 등 애니메이션 캐릭터로 장식된 패션이 세대의 벽을 허문다. 외국인과 자연스럽게 어울리기 위해 스파이더맨, 배트맨, 어벤저스 등 슈퍼 히어로 대한 이야기를 꺼내는 것도 좋다.

우리는 지금 기대수명 80세의 문턱을 넘어서고 있다. 무언가를 추억하고 살아야 할 시간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가장 즐거울 수 있는 때, 소년소녀의 시간을 어떻게든 연장시켜야 하는 게 아닐까?

글 이명석 문화비평가 겸 저술가로 활동하고 있다. 여행의 즐거움과 인문학적 호기심을 결합한 <여행자의 로망백서> <지도는 지구보다 크다> <도시수집가> <모든 요일의 카페> 등의 저서가 있고, KBS 라디오 <신성원의 문화공간>, SBS 라디오 <책하고 놀자>에 고정 출연 중이다. 사진 제공 키덜트엑스포



채소 오케스트라, 얼음 악기, 3D 프린터 바이올린

악기의 변신은 무죄

악기는 의외로 우리 생활과 멀지 않은 곳에 있다. 작은 플라스틱 통에 쌀을 조금 채워 흔들면 훌륭한 셰이커가 되고 유리잔에 물을 채워 두드리면 마림바와 같은 아름다운 소리를 얻을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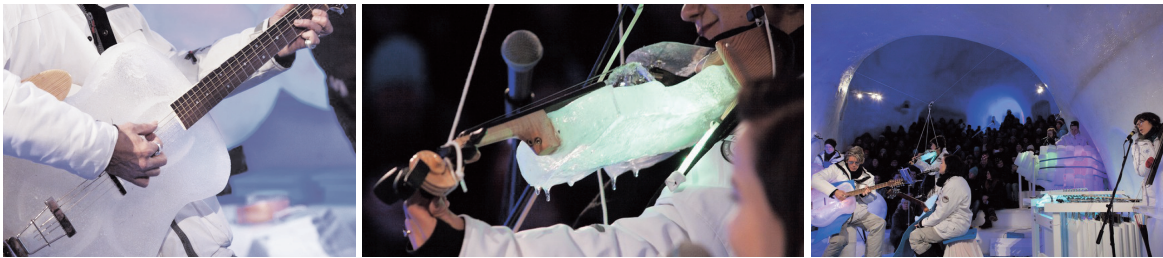
음악가들은 훨씬 괴팍한 실험을 하기도 한다. 채소로, 얼음으로, 최근에는 3D프린터로 완전히 새로운 악기를 만들거나 기존의 악기를 새롭게 구현해내는 것이다. 한계를 실험하는 이들로 인해 음악은 더욱 다양해진다.

현재 널리 보급되고 연주되는 악기들의 재료에는 어느 정도 공통점이 있다. 공명이 잘되면서 내구성이 좋고 음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재료들로 역사적으로 검증된 것들이다. 여러 문화권에서 공통적으로 쓰이는 대표적인 재료는 나무일 것이다. 그 외에도 (동물보호법이 발효되기 이전에는) 동물의 신체 부위(가죽, 뼈 및 털), 극히 드문 경우지만 (주술적인 이유 등으로) 인간의 뼈, 산업혁명을 거친 후에는 플라스틱과 철 등이 악기의 재료로 활용돼왔다. 하지만 소리를 내는 데에 반드시 이런 재료만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여러 단점과 제약이 다소 있다고 하더라도 특색 있는 색다른 재료로 악기를 제작하기도 한다.

채소 악기로 구성된 오케스트라

‘비엔나 베지터블 오케스트라(Vienna Vegetable Orchestra)’는 채소로 만든 악기에 마이크를 달아서 공연에 사용하면서 살아 있는 악기의 소리를 표현하고자 하는 단체다. 그날 쓰일 악기를 그날 만들면서 순회공연을 여는 비엔나 베지터블 오케스트라 단원들의 하루는 아침에 장을 보러 가는 것으로 시작된다. 그곳에서 채소를 보면서 저녁 공연에 쓸 악기를 구상하고, 이것들을 사들인 후 반나절에 걸쳐서 악기 제작에 들어간다.

이들의 공연 레퍼토리는 단원들이 악기의 정확한 모양새와 연주법을 미리 알기 힘들기 때문에, 사전에 작곡된 곡이라고 해도 즉흥적인 요소가 일부 들어가는 유동적인 음악으로 채워진다. 실제로 이들이 연주하는 스타일은 프리재즈, 노이즈 뮤직, 전자음악 등으로 분류된다.



이글루 안에서 얼음 악기로 연주하는 '아이스 뮤직' 공연 장면.

기아에 허덕이는 가난한 나라도 많은 상황에서 채소를 그렇게 낭비(?) 해가며 공연을 여는 것이 과연 온당한지, 의문을 품는 (안티)팬들도 없지 않지만, 이들이 소비하는 자원과 에너지는 오히려 기존의 정형화된 악기 제작에 사용되는 자원보다 규모가 적으며 이들이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도 극히 미미하다고 한다. 게다가 공연이 끝나면 악기를 국으로 끓여서 관객들에게 수프를 나눠준다고 하니, 공연을 여는 비용으로 뒤편이 음식까지 해결하는 셈이다. 공연이 진행되면 될수록 악기가 조금씩 부러지거나 닳아 없어지기도 하고, 식재료의 파편들이 무대 위로 흩날리다보니 일반적인 음악 공연에 비해서는 다소 지저분하다는 애로사항이 있기도 하지만, 악기의 재료가 주는 신선한 생동감을 관객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목적을 위해서는 기꺼이 감수하는 부분이다. 단원 열 명으로 구성된 이 단체는 칼과 드릴 및 주방도구를 가지고 다니면서 평균 한 달에 두어 번 공연을 열며 전 세계를 누빈다.

이글루에서 얼음 바이올린과 얼음 기타로 듣는 블루스

스웨덴 북부에서는 기타리스트 찰리 섉스턴(Charlie Sexton)과 린지 베릴(Lindsey Verill) 등으로 구성된 뮤지션 팀이 '아이스 뮤직(Ice Music)'이라는 공연을 이글루 안에서 열었는데, 이때 사용된 모든 악기는 얼음조각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기타와 베이스, 타악기 등으로 이루어진 이 밴드의 음악을 듣기 위해서 모든 관객은 두꺼운 재킷으로 중무장을 한 채 눈을 뚫고 이글루 안으로 들어가 객석에 자리를 잡아야 했다. 이들은 덴마크와 스웨덴의 가수들과 협업해 블루스와 앰비언트, 즉흥연주가 뒤섞인 열린 장르의 음악을 선보였다. 공연을 준비하기 위해 최대한 조심스럽게 악기를 제작하고는 있지만 워낙 내구성이 약하기 때문에 리허설을 하다가 악기에 손상이 가기도 한다. 실제로 바이올린 같은 경우는 공연이 시작되기도 전에 금이 간 적이 있고, 한번은 공연 전에 기타가 완전히 박살 나서 기타 대신 베조를 들고 연주했다고 한다. 하지만 경미한 손상일 경우 입김만 조금 불어넣어도 복구가 가능하기도 하며, 영하 5도 정도로 온도를 유지하면 연주에는 큰 지장이 없다. 물론 체온으로 악기가 녹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연주자도 두꺼운 옷으로 무장해야 하고, 연주 중간중간에 드라이아이스를 동원해서 최대한 악기 주

변 공기의 온도라도 낮게 유지하려고 한다. 하지만 조명과 연주 자체의 총열과 마찰 등으로 인해 온도를 영하 5도로 유지한다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은 아니어서, 대부분의 경우 공연 도중에 악기가 녹는 것이 확연히 드러난다(실제로 악기에서 고드름이 생기기도 하고 음색의 변화가 일어나기도 한다).

3D 프린터로 스트라디바리우스를?

3D 프린터가 개발되면서 물건을 얼마나 정교하게 복제할 수 있을지에 대한 궁금증과 실험이 끊이지 않았다. 레코드판(LP)을 복제해 재생해보기도, 악기를 복제해서 연주해보기도 했다. 스트라디바리우스를 복제해 연주 시범을 한 바이올리니스트 사이먼 휴이트 존스(Simon Hewitt Jones)의 시도에서 그러한 예를 볼 수 있다. 한편 이름은 3D 바이올린이지만 기존의 바이올린과 전혀 다른 구조와 형태를 지닌 새로운 프린터용 바이올린이 개발되기도 했다. 이는 2015년 4월 뉴욕 재비츠 센터(Javits Center)에서 열린 '3D 프린터 쇼'에서 선보였던 것으로, 2개의 줄과 활로 연주된다는 점은 기존의 바이올린과 동일하다. 새로운 재료와 현대의 테크놀로지를 활용해 악기를 창조 및 재탄생시키는 시도는 음악계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으면서 우리의 고정관념을 떨쳐버리게 하는 좋은 역할을 맡고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다시금 전통적으로 이어온 견고하고 아름다운 악기들의 가치를 새삼 되새기게 하는 부작용(?) 또한 낯는 듯하다. 결국 새로운 악기가 발명되는 것에 맞춰서 그것을 연주할 인간의 능력도 개발돼야 하는데, 그 변화의 속도를 과연 인간이 따라잡을 수 있을지가 어찌하면 더 큰 변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³⁾

※ 자료 출처

www.vegetableorchestra.org

www.wsj.com 'In Sweden musicians play hot licks on ice instruments'

www.bbc.com 'The wierdest musical instruments'

글 신지수 음대 작곡과를 졸업하고 유학을 마친 후 현재 대학교에서 강의하고 있다.

현대음악 작곡가로 활동하고 있으며 음악에 대한 글을 쓰는 것을 즐긴다.

홈페이지 www.jeesooshin.com | 블로그 jagto.tistory.com



낙산 이화-충신동 주거군락지

‘노을빛’ 가득한 낙산, 변화의 과도기에서

낙산은 서울의 대학로를 품고 있는 나지막한 산으로, 대학로, 낙산공원, 이화벽화마을, 장수마을, 창신동 봉제마을, 서울성곽길 등이 낙산을 중심으로 이어진다. 근래 몇 년 사이 특히 성곽길, 벽화마을 등으로 유명세를 치르고 있지만, 대학로 일대에서 20여 년 머물고 있는 내게 낙산은 공간적, 경관적인 측면, 그리고 개인적인 측면에서 좀 다른 의미의 장소로 와 닿는다.

누군가와 ‘장소와 기억’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때면, 나는 언제나 마음 어딘가에 붉은빛의 저녁노을에 대한 그리움과 짙은 향수가 배어 있다는 걸 느끼곤 한다. 어린 시절, 한여름 저녁 무렵이 되면 어머니가 차려주시는 저녁밥을 서둘러 먹고, 잠옷 바람으로 기어나와, 그날 마저 놀지 못한 아쉬움에 집 담장 옆에 붙어 있는 이웃집 화장실 평지붕 위에 올라가 동네 친구들과 딱지 치거나 구슬쌈잡기 놀이를 하곤 했다. 그때쯤이면 저녁노을이 하늘을 온통 붉게 물들이곤 했고, 구름의 형상에 따라 노을빛도 그때그때 달라져 어린 꼬맹이임에도 우리들은 뭔가 홀린 듯 환상적인 노을빛에 푹 빠져서 멍하니 있곤 했다. 그러나 서울 생활을 시작한 후 그런 아름다움을 감상할 기회는 점점 줄어들었고, 그래서인지 붉은 노을빛에 푹 매료되고 싶은 향수가 마음 한켠을 차지하고 있는 듯하다.

벽화보다 ‘서울의 석양’이 아름답게 내려다보이는 곳

낙산에 대한 이미지를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내게는 ‘노을빛’이다. 서울 옛도심을 바라보면서 붉은 노을빛의 충만함에 빠져들 수 있는 유일한 곳이 바로 낙산이기 때문이다. 이는 낙산의 지리적인 특징에 연유한다. 낙산은 서울

옛 도심의 서측을 바라보며 동측에서 동네를 안으로 품고 있어서, 낙산의 성곽길과 서측 구릉에 위치한 이화동, 충신동 일대는 항상 서쪽 하늘을 마주할 수밖에 없고 또한 구릉지이기에 서울 옛 도심을 내려다보게 된다. 그러니 날씨 좋은 날 펼쳐지는 풍광이 어떠하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은 낙산공원과 함께 현재 ‘이화벽화마을’로 더 잘 알려져 있다. 2006년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원한 낙산공공프로젝트로 인해 주민들이 참여한 벽화 공공미술사업으로 벽화마을이 되었고, TV 프로그램에 이곳이 소개되면서 급작스레 유명세를 타 관광객의 발길이 잦아졌다. 또한 낙산을 가로지르는 성곽길로 인해 서울의 역사와 문화에 관심이 깊은 탐방객들의 문화 공간이 되었고, 최근에는 대학로 쇠대박물관 최홍규 관장이 이곳에 대한 애정과 관심으로 시작한 ‘골목골목 숨은 박물관 마을’ 조성으로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요즘은 대학로를 찾는 젊은이들까지 유입되고, 한편으로는 방문객의 소음과 쓰레기 문제가 불거져 이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 벽화 일부를 지우는 사건까지 있었다. 이제 이곳은 주민들에게는 조용한 거주지로서의 안락함이 사라진다는 우려와, 새로운 모습으로 마을이 변화하면서 활기가 넘치는 양면성이 묘하게 공존하는 과도기에 놓여 있다.

반면 또 다른 서측 구릉에 자리 잡은 충신동 주거군락은 이화벽화마을과는 사뭇 다른 주거 풍경으로 공존하고 있다. 서향을 마주한 구릉지에 2~3층의 평지붕 양옥이 빼곡하다. 왠지 을씨년스러워 외지인은 그곳으로 잘 들어가지 않는 것 같다.

서울의 근대 주거 형식이 군집을 이룬 박물관

건축-도시공간적인 측면에서 비교해보면, 이화벽화마을은 1950년대 말 기존의 불량 주거지를 정비해 계단과 석축을 통해 대지를 마련하고, 단독2층 주택과 4호 연립2층 주택으로 구성된 국민주택단지이다. 옛 한옥 이후의 근대화 과정에서 변모하는 이 땅의 주거 형식 중 한 유형을 독특하게 간직



하고 있는 유일무이한 곳이기도 하다. 충신동 주거군락 역시 낙산성곽 뒤편의 창신동 주거군락지와 유사한데, 1970~80년대에 서울의 급격한 인구 증가와 동대문 의류상권의 급성장으로 유입된 사람들이 형성한 곳이다. 무분별하고 밀도 높고, 짧은 시기에 동시다발적으로 형성된 2~3층 평슬라브 양옥의 주거 형태가 밀집되어 그 사이를 잇는 거미줄 같은 좁고 긴 골목들이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곳은 서울 40여 년의 근대 주거 형식의 변천사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살아 있는 '주거 형식 군집 박물관'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는 어느 곳보다도 열악한 주거환경 때문에 안전과 생활의 질 낙후 문제가 심각한 곳이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이러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이 일대 이화동과 충신동을 각각 주택재개발구역으로 지정했고, 지역 주민들이 조합을 설립해 재개발을 추진 중이기도 하다. 현재 재개발 추진에 우여곡절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따라서 이곳에 재개발이 성공적으로 진행될지는 불투명하다. 아이러니하게도 불과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이곳은 당국이나 서울시민의 입장에서 서울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부끄러운 삶의 형태이자 민낯이었는데, 이제는 우리 스스로 이곳의 숨은 가치를 재발견하고 보존 및 재생해야 할 주거유산으로 인식이 바뀌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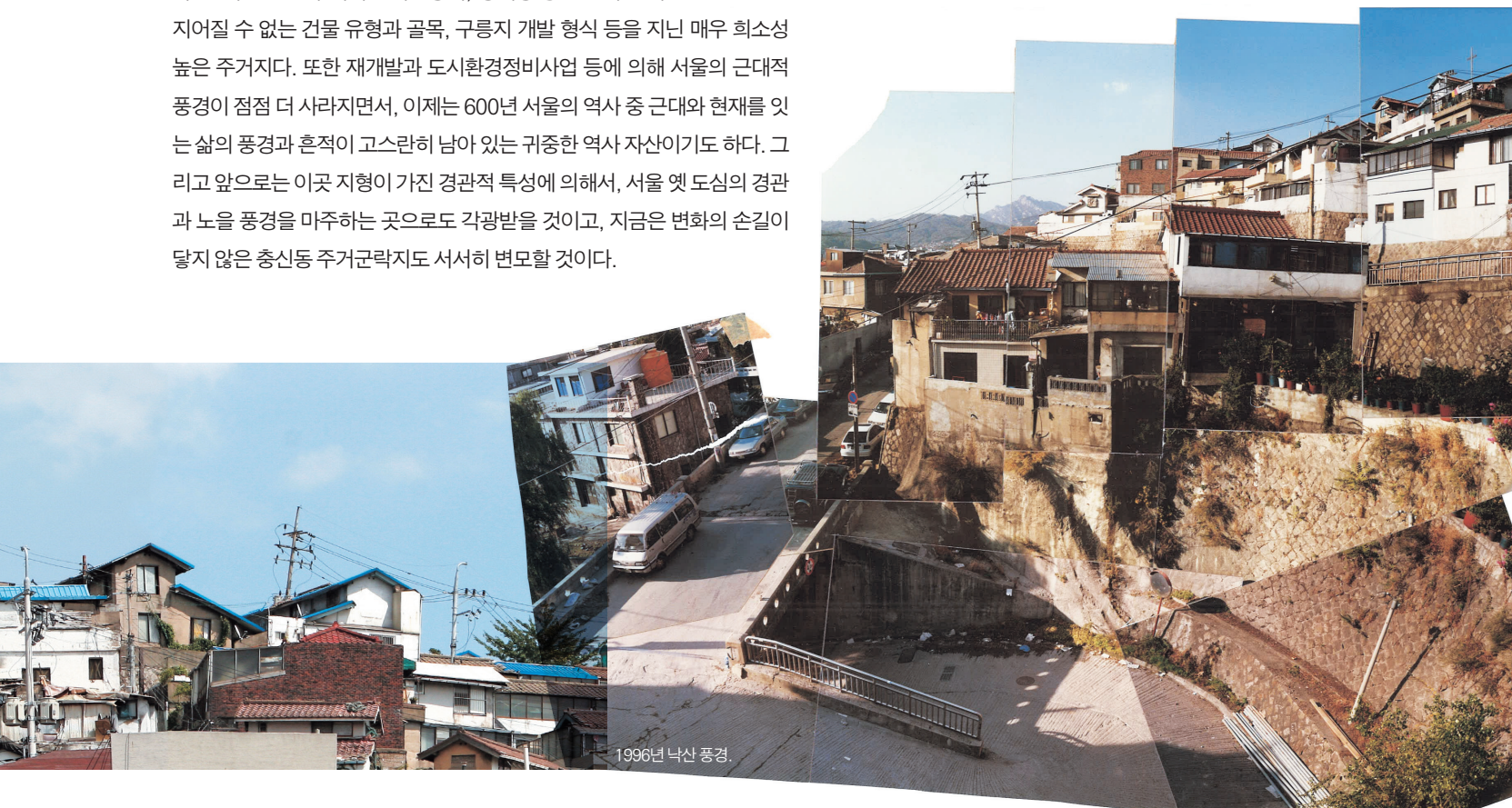
더욱 전문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화-충신동 주거군락은 현행 건축-도시 관련법과 재개발 사업방식, 경제성 등을 고려할 때 앞으로는 결코 지어질 수 없는 건물 유형과 골목, 구릉지 개발 형식 등을 지닌 매우 희소성 높은 주거지다. 또한 재개발과 도시환경정비사업 등에 의해 서울의 근대적 풍경이 점점 더 사라지면서, 이제는 600년 서울의 역사 중 근대와 현재를 잇는 삶의 풍경과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귀중한 역사 자산이기도 하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곳 지형이 가진 경관적 특성에 의해서, 서울 옛 도심의 경관과 노을 풍경을 마주하는 곳으로도 각광받을 것이고, 지금은 변화의 손길이 닿지 않은 충신동 주거군락지도 서서히 변모할 것이다.

낙산의 과도기, 아름답게 '숨 쉴 수 있도록' 변화했으면

이곳의 미래가 예견된다. 박물관이 곳곳에 들어서면서 인근 문화유산과 함께 사람들이 더 자주 찾는 곳이 될 것이다. 카페와 음식점, 관광객을 위한 게스트하우스도 늘고, 기존의 주거지는 석양을 바라보는 테라스가 있는 형식으로 개조될 것이다. 한편으로는 새로 유입된 주민들과 서울시와의 소통에 난항과 화합이 반복될 수도 있다. 그 진통을 통해 서로 상생하는 방향으로 가게 된다면, 이곳은 파리의 몽마르트 언덕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서울의 낙조 풍경이 아름답게 내다보이는 문화 장소로 거듭날 것이다.

공간과 장소를 다루는 나는, 감히 공간이 무엇인지를 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전혀 특별할 게 없는 어떤 공간이나 장소가 우리 머릿속에 사라지지 않는 기억으로 각인돼 추억과 영감의 장소로서 함께한다고 말할 수는 있다. 이것이 공간과 장소가 존재하는 형식이며, 살아 숨 쉬는 방식이다.

글·사진 명재범 고려대학교 건축공학과를 졸업하고 (주)나무아키텍츠 건축사사무소(www.namuarchitects.com)를 공동 운영하고 있다. 삶의 형식으로서의 이 땅의 민가와 풍경에 관심을 가지고 틈틈이 기록-연구하고 있다.



연극 <푸르른 날에>와 <서안화차>

‘우리만의 시공간’이 있었다면

개인의 삶은 그를 둘러싼 다른 이들과
관계하고, 그 관계는 원하던 원치 않든
그들을 둘러싼 사회, 역사와 관계한다.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운명이 엇갈린
이들(<푸르른 날에>)과 존중받지 못하는
사랑에 집착하는 이들(<서안화차>)의
마음은 ‘회한’과 같은 단어로도 선볼리
쓸어 담지 못하는 무엇이다.
‘우리만의 시공간이 있었다면...’
허락되지 않은 평화를 위해 우리에게 간담
실현 불가능한 주문이 필요하다.



푸르른 날에 | 2015. 4. 29~5. 31 | 남산예술센터 드라마센터

작·연출 고선웅

줄거리 1980년 광주. 대학생 오민호가 전통찻집 아르바이트생 윤정혜와 사랑에 빠져 있던 시기, 5·18 광주민주화운동은 이들의 운명을 바꿔놓는다. 혼돈 속에 정혜는 민호를 떠나보내고, 민호는 자신을 친형 처럼 여기던 정혜의 동생 기준과 운명이 갈린 채 비겁자가 되어 고문후유증과 정신이상을 겪은 후 불가에 귀의한다. 세월이 흘러 승려 '여산'이 된 민호는 정혜와의 사이에서 생긴 딸 윤화의 결혼 소식을 듣는다.

* '이상홍의 연극 그리기'는 서울연극센터 웹진 <연극in>에
격주로 연재 중인 동명의 웹툰을 재구성한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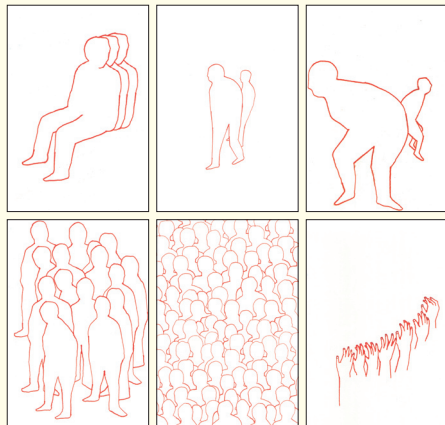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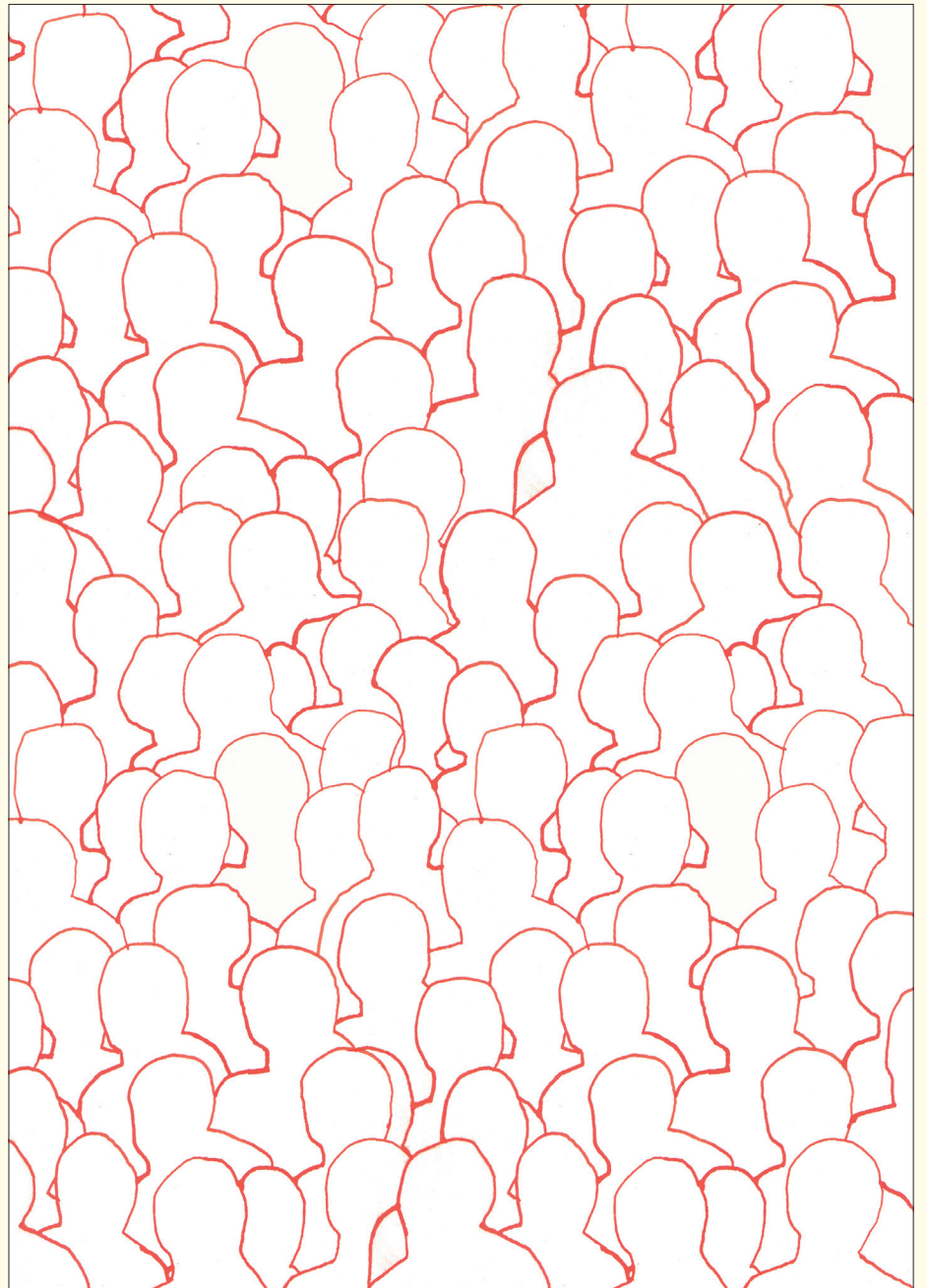


그림 이상홍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조형예술을 공부하고
어느 스승의 매력 덕에 뒤늦게 드로잉에 푹 빠졌다.
'조형드로잉'이라는, 무규칙 이중격투기 같은 작품들을
쏟아내고 있다. 이질적인 것들의 접목에서 쉽게 발생하곤 하는
'소통의 확장 가능성'에 관심이 있다. 2011년 2인 극단 두비춤
창단에 참여해 연극배우로도 간간히 활동 중이다.
예술 장르 간 경계를 의도적으로 무너뜨리며 활동하고자
연극과 음악 등의 장르에 지속적으로 '조형 드로잉'을 들이대며
보기 드문 방식으로 소통을 꾀하고 있다.



서안화차 | 2015. 5. 7~31 | 대학로예술극장 소극장

작·연출 한태숙

줄거리 서안화차는 진시황의 무덤이 있는 중국 시안으로 가는 기차를 뜻한다. 주인공 상곤은 직장을 그만두고 진시황의 무덤을 찾아 떠나는 기차에서 과거를 회상한다. 화교 출신 어머니, 그가 남성적인 매력을 느끼는 찬승이 기억의 중심에 있고, 이들과 얽힌 삶의 어두운 편린은 관객에게 불편한 인사를 건넨다. 이 과정에서 영생에 대한 진시황의 집착만큼 길긴 상곤의 동성애를 향한 집착이 드러난다. 한태숙

www.sfac.or.kr



남산예술센터 2015 시즌 프로그램 연극 <햇빛사워>

최근 주목받고 있는 극작가·연출가 장 우재의 신작이 남산예술센터 무대에 오른다. 지난해 <남산희곡페스티벌, 네 번째>에서 낭독공연으로 주목받은 그의 작품 <햇빛사워>. '썬' 여자 '광자'와 그녀와는 대조적인 순수 청년 '동교'의 삶을 통해 비틀린 서민의 모습을 그려냈다.

공연기간 7월 9일(목)~26일(일)
평일 8시 / 토 3시·7시 / 일 3시 /
월 공연 없음

장소 남산예술센터 드라마센터
주최 서울특별시
주관 재)서울문화재단, 극단 이와삼
제작 남산예술센터, 극단 이와삼
관람료 일반 3만 원 / 학생 1만 8천원
러닝타임 110분
예매 남산예술센터 nsartscenter.or.kr
인터파크 ticket.interpark.com
문의 남산예술센터 02-758-2150



- 시민청·시청
- 서울무용센터
- 서울연극센터
-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
- 서교예술실험센터
- 문래예술공장
- 성북예술창작센터
- 금천예술공장
- 연희문화창작촌
- 잠실창작스튜디오
- 신당창작아카데미
- 남산예술센터
- 창작지원팀
- 재휴협력실
- 공공예술센터
- 축제지원센터
- 문화나눔팀
- 예술교육팀
- 서울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 기타 문화행사 추천

MON

6

13

20

27

- 제12회 서울타악기양상을 정기연주회
- 제3회 한국여성극작가전(~7. 26)
- 토크콘서트 <톡쏘다>
- 전시 <Stand abreast - 옆으로 나란히 서다>(~7. 30)
- 원예힐링 프로그램 <뿌리 놀레이아>(~8. 31)
- 2015 PLAY-UP 아카데미 정규과정 #4(~8. 17)

TUE

7

14

21

28

- 사랑방 워크숍 <도시사진展> 결과 전시회(~7. 18)
- 에라토 양상을 기획공연
- <흩어진 판들>(~11. 20)
- 2015 '바람난 미술' 찾아가는 전시(~8. 2)
- 제23회 아시아지 국제여름축제(~8. 2)

WED

1

- 메모리인(人)서울프로젝트 기획전시(~7. 17)
- 관악창작공방
- 도운정 개인전 <Full>(~7. 8)
- 활력콘서트
- 힐링프로젝트 '마음' 전시 <빛 그리고 빛>(~7. 12)

8

15

22

29

- 3 MULLAE-YOGJAKARTA Artists(~8. 14)
- <쇼팽의 연인>
- 연극 <달빛>(~8. 1)
- 2015 PLAY-UP 아카데미 정규과정 #4(~8. 17)

| THU | FRI | SAT | SUN |
|--|--|---|--|
| <p>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술체험프로젝트 '씨' 연극 <속살> | <p>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메모리인(人)서울프로젝트 창작판소리 <유월소리> | <p>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댄스프로젝트 춤 다:방 전국민 귀명창 프로젝트 <소리들은데이> 연극 <칠순잔치> 임남희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전곡 연주회 | <p>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화구연 프로그램 <말하는 책방> 한국원로교향악단 제13회 정기연주회 |
| <p>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극 <햇빛사위>(~7. 26) 심윤아 개인전 <헤매이는 길>(~7. 19) 휴먼힐링뮤지컬 <독스독스>(~7. 11) 화음첼버오케스트라 제39회 정기연주회 | <p>10</p> | <p>1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미음 살림장 '좋아서' 예술동아리 개별공연 I <마지막 호사>(~7. 12) 문래 양반김 파라다이스(~8. 17) 전시 <어둠의 사소함> | <p>1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미음 살림장 동화구연 프로그램 <말하는 책방> |
| <p>1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희목요낭독극장 여름특집 <연희로 숨어든 여름> 판소리 애플그린을 먹다 <로감자와 줄게랑>(~7. 19) | <p>1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술가와 함께하는 1박 2일 소액다کم 자유발표의 날 홍대 거리미술전(~7. 24) 오페라 <봄봄> 무용 <휴먼프로젝트 2> | <p>1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바스락콘서트 누구나 예술가 <은빛 작은 잔치> '좋아서' 예술동아리 개별공연 II Mai Pen Rai Project in Seoul 중앙국악관현악단 <애들아 놀자> | <p>1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화구연 프로그램 <말하는 책방> 누구나 예술가 <은빛 작은 잔치> |
| <p>2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시 <놀이시작>(~9. 30) 찾아가는 공명콘서트 <해바라기> | <p>2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힐링프로젝트 '마음' 전시 <시시각각> 시민청 아트페스티벌(~8. 6) 젊은 예술가들의 모든 만남 <일곱 번째 라운드 테이블> 희랍인 조르바 '빠'들의 불편한 동거 타악기와 함께하는 피아노 칸타빌레 노화(老化)-조화(弔花)-진화(進化)프로젝트 어린이 공연 <무적의 삼총사>(~8. 23) | <p>2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토요일은 청이 좋아 <공감 콘서트> 시민청 아트페스티벌 <방학숙제 하는 날> 열한 번째 <304 낭독회> 정진화 <COMPASS-EXPO> 전시 <먼로풍(Monroe風)>(~7. 30) 관악명랑방석극장 <그림자야 놀자> | <p>2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코리아목관앙상블 정기연주회 <아리랑> 동화구연 프로그램 <말하는 책방> |
| <p>3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 아니면 도>(~7. 31) | <p>3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5 PLAY-UP 아카데미 정규과정 #4 (~8. 17) | | |

01

WED

메모리인(人)서울프로젝트 기획전시 <메모리인한강>

메모리인(人)서울프로젝트를 통해 2013년부터 수집된 서울과 한강의 기억을 만나보자.

일시 7월 1일(수)~17일(금) 오전 9시~오후 9시
장소 서울도서관 1~4층
관람료 무료
문의 02-3290-7123



관악창작공방 <통통! 탁구공 인형 만들기>

탁구공을 비롯한 여러 가지 재료를 나만의 인형을 만들어본다.

일시 ~9월 30일(수) 화~토 오전 10시~오후 5시
장소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 2층 '썩'
참가비 무료
문의 02-871-7400

도운정 개인전 <Full>

'가득차다'를 주제로 도운정 작가가 2013년부터 진행해온 작업을 만나본다.

일시 ~7월 8일(수) 오전 10시~오후 6시
장소 성북예술창작센터 2층 갤러리 맺음
관람료 무료
문의 02-943-9300

성북예술창작센터 예술치유 프로그램

성북예술창작센터 힐링아트랩 프로젝트를 통해 모집한 예술치료사와 예술단체가 진행하는 13개의 예술치유 프로그램.

※ 홈페이지 예약 필수

일시 7월 중 진행(프로그램별 상이)
장소 성북예술창작센터
참가비 프로그램별 상이
문의 02-943-9362-3



나비맛 노칼100 Live 시즌2

2014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나비맛 노칼'의 공연. 다양한 장르의 예술가들이 찬조 출연한다.

일시 ~12월 30일(수) 매주 수 오후 8시
장소 문래동 스페이스문
관람료 무료
문의 02-2676-4332

02

THU

예술체험프로젝트 '씨' <잠자는 거인을 깨우다>

은유와 상징으로 만들어진 '거인' 캐릭터에 다양한 디자인 요소를 결합해 상상 속 이야기로 풀어내본다. 7세 어린이 대상 오감체험 디자인 프로그램.

일시 7월 2일(목)~18일(토)
1반 - 매주 목 오후 2시 30분~4시, 토 오전 10시 30분~정오
2반 - 매주 목 오후 4시 30분~6시, 토 오후 2시~3시 30분
장소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 1층 '빌'
참가비 무료
문의 02-871-7400

메모리인(人)서울프로젝트 삼풍백화점 기획전시

<이젠 저도 사랑을 시작할 수 있는 나이에요>

삼풍백화점 붐과 20년이 되는 올해, 메모리인(人)서울프로젝트를 통해 수집된 기억을 전시로 만나본다.

일시 ~7월 5일(일) 오전 9시~오후 9시
장소 시민청 시민플라자
관람료 무료
문의 02-3290-7123



힐링프로젝트 '마음' 전시 <빛 그리고 빛>

시민들에게 위로와 휴식을 선물하기 위해 마련된 힐링 프로젝트 '마음'. 이번 전시는 도심 속에서 자연을 느낄 수 있는 미디어 설치 작품으로 구성됐다.

일시 ~7월 12일(일) 오전 9시~오후 9시
장소 시민청 소리갤러리
관람료 무료
문의 02-739-5811



강수경 <저 분수가 경멸을 한다네요>

조선족을 바라보는 한국 사회의 생경한 시선에 대해 다룬 전시. 작가는 조선족 개인의 서사에서 시작해 혈연적 동질성을 가진 우리 자신을 이해하고자 한다.

일시 ~7월 6일(월) 오후 1시~6시
장소 문래동 예술공간 세이
관람료 무료
문의 02-2676-4332

관악창작공방 <안녕, 유리야?>

유리조각을 재활용해 만드는 유리공예 수업. 다양한 색상의 반짝이는 유리병으로 나만의 별자리 액자를 만들어보자.

일시 ~7월 18일(토) 매주 토 오전 11시~오후 1시
※ 7월 10일(금) 오후 2시 30분~4시 30분
장소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 2층 '썩'
참가비 2천원
문의 02-871-7400



연극 <속살>

삭막해져버린 현대사회의 인간관계
를 되돌아보는 연극.

일시 7월 2일(목)~19일(일) 평일 오후 8시,
토 4시·7시, 일 4시, 월 공연 없음

장소 노을소극장

관람료 일반 3만 원, 학생 2만 원

문의 010-9855-6235



연극 <칠순잔치>

성북동 북정마을의 칠순을 맞이하는 광복동이의 삶을 풀어낸 연극.

일시 7월 4일(토)

장소 성북동 북정마을

관람료 미정

문의 010-8514-0205

03

FRI

메모리인(人)서울프로젝트 창작판소리 <유월소리>

삼풍백화점의 기억이 창작 판소리로 탄생했다. 메모리인
(人)서울프로젝트를 통해 수집된 기억을 바탕으로 오세혁
작가가 대본을 쓰고 안숙선 명창이 소리를 들려준다.

일시 7월 3일(금) 오후 7시

장소 시민청 활짝라운지

관람료 무료

문의 02-3290-7123



04

SAT

서울댄스프로젝트 춤 다:방

춤바람 커뮤니티 참가자 대상 네트워킹 파티.

일시 7월 4일(토) 오후 3시~9시

장소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참가비 무료

문의 02-3290-7174

전국민 귀명창 프로젝트 <소리듣는데이>

다양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판소리를 즐길 수 있도록 국악뮤지컬집단 타루
의 전국민 귀명창 프로젝트가 찾아간다.

일시 7월 4일(토) 시간 미정

장소 세곡초등학교

관람료 무료

문의 02-6481-1213



05

SUN

동화구연 프로그램 <말하는 책방>

색동회 동화구연가와 함께하는 동화구연 프로그램. 주제에
따라 다양한 작품을 선정하며, 매주 일요일 진행된다.

일시 7월 5일·12일·19일·26일(일) 오후 1시·3시

장소 서울시청 지하 1층 서울책방·책나눔터

참가비 무료

문의 02-739-0027

한국원로교향악단 제13회 정기연주회

2003년 창단한 한국원로교향악단이 정기연주회를 연다. 지휘자 서진, 피아
니스트 이효진과의 협연으로 무대를 더욱 풍성하게 꾸릴 예정.

일시 7월 5일(일) 오후 5시

장소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관람료 R석 10만 원, S석 5만 원, A석 3만 원, B석 2만 원

문의 02-585-2934

07

TUE

에라토 앙상블 기획공연

음악감독 양성식을 필두로 창단한 에라토 앙상블이 연주
회를 연다. 김성기 작곡의 위촉초연 곡을 비롯해 모차르트
'디베르티멘토', 드보르작 '현을 위한 세레나데' 등을 연주
한다.

일시 7월 7일(화) 오후 8시

장소 예술의전당 IBK챔버홀

관람료 R석 15만 원, S석 7만 원, A석 4만 원, B석 2만 원

문의 010-9280-2301

09

THU

연극 <햇빛사위>

독특한 소재와 상상력으로 관객과 평단의 큰 관심을 끌고 있는 극작가 겸 연출가 장우재의 신작. 지난해 ‘남산희곡페스티벌’에서 낭독공연으로 처음 소개된 작품으로, 그 가능성을 인정받아 남산예술센터 시즌 프로그램으로 무대에 오른다.

일시 7월 9일(목)~26일(일) 평일 오후 8시, 토 3시·7시, 일 3시, 월 공연 없음
장소 남산예술센터 드라마센터
관람료 일반 3만 원, 학생 1만 8천원
문의 02-758-2104

심윤아 개인전 <헤매이는 길>

미로를 모티프로 헤매는 공간 속에서 불안과 불안의 극복을 이야기하는 전시. ‘무제’라는 제목하에 기하학적 추상을 표현한 평면회화를 선보인다.

일시 7월 9일(목)~19일(일) 오전 10시~오후 6시
장소 성북예술창작센터 2층 갤러리 맺음
관람료 무료
문의 02-943-9300

휴먼힐링뮤지컬 <독스독스>

강아지의 눈에 비친 사람들의 세상을 그린 작품. 살아가며 겪는 외로움, 아픔, 고민, 시련, 사랑 등 다양한 감정을 보여준다.

일시 7월 9일(목)~11일(토) 시간 미정
장소 강북문화예술회관
관람료 전석 1만 원
문의 010-2259-9774

화음챔버오케스트라 제39회 정기연주회

지난 정기연주회부터 ‘쇼스타코비치 시리즈’를 기획해온 화음챔버오케스트라가 그 세 번째 무대를 선보인다. ‘음악의 사회성’을 주제로 작곡가의 작품과 삶을 돌아본다.

일시 7월 9일(목) 오후 8시
장소 예술의전당 IBK 챔버홀
관람료 R석 10만 원, S석 5만 원, A석 3만 원
문의 02-544-9092

11

SAT

‘중아서’ 예술동아리 개별공연 I

2015년 ‘중아서’ 예술동아리 선정 단체인 ‘퀸즈 우쿨렐레 앙상블’과 ‘알로하나’가 함께 신나는 여름 공연을 펼친다. 우쿨렐레 연주와 함께 하와이 훌라춤을 선보일 예정.

일시 7월 11일(토) 오후 2시~3시 30분
장소 국립한글박물관 지하 1층 강당
관람료 무료
문의 02-3290-7043

<마지막 호사>

새가 되고 싶은 여자, 철로 만든 새, 경기도의 새. 세 가지 ‘새’를 주제로 설치·사운드·영상·무용이 함께 어우러지는 프로젝트.

일시 7월 11일(토)~12일(일) 오프닝 시간 미정
장소 문래예술공장 박스씨어터
관람료 무료
문의 02-2676-4332

문래 양반김 파라다이스

빨간 대야에서 고급 스파를?! 문래동에서 펼쳐지는 여름 휴가, 문래 양반김 파라다이스!

일시 7월 11일(토)~8월 17일(월) 오후 1시~6시
장소 문래동 예술공간 세이 옥상
관람료 무료
문의 02-2676-4332

전시 <어둠의 사소함>

외관은 드러나지 않지만 서로의 마음을 드러내보일 수 있는 ‘어둠’ 속 공간에서 ‘어둠의 사소함’에 대해 공유해본다.

일시 7월 11일(토) 오전 11시~오후 7시
장소 서교예술실험센터 지하 1층 다목적실
관람료 무료
문의 02-333-0246

13

MON

제12회 서울타악기앙상블 정기연주회

1989년 결성된 서울타악기앙상블이 정기연주회를 연다. 위촉 작곡가인 황성곤의 곡을 함께 선보인다.

일시 7월 13일(월) 오후 8시
장소 예술의전당 IBK 챔버홀
관람료 2만 원
문의 02-586-0945

제 3회 한국여성극작가전

한국여성연극협회가 여성 연극인들의 권익을 신장하고 예술 활동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극작가전을 연다. <심청전을 짓다>와 <현장검증>이 무대에 오를 예정이다.

일시 7월 13일(월)~26일(일) 평일 오후 8시, 토 3시·7시, 일 3시, 월 공연 없음
장소 소극장 알과핵
관람료 3만 원
문의 010-9233-1664

14
TUE

<흙어진 판들>

전시와 퍼포먼스가 결합된 다원예술 프로젝트, 제도권 예술 시스템을 전제로 다양한 예술 공간의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한다.

일시 7월 14일(화)~11월 20일(금)
장소 신도림예술공간 고리
관람료 무료
문의 010-2794-7326

16
THU

연희목요낭독극장 여름특집 <연희로 숨어든 여름>

연희문학창작촌 대표 프로그램 '연희목요낭독극장'이 '여름'을 주제로 낭독회를 선보인다. 언제 왔냐는 듯 곧 이별하는 여름을 색다르게 기억하고 싶다면 실내악과 함께 꾸

린 시인들의 여름 여행을 만나보자.

일시 7월 16일(목) 오후 7시~8시 30분
장소 연희문학창작촌 문학미디어랩
참가비 무료
문의 02-324-4600



판소리 애플그린을 먹다 <로감자와 줄게랑>

국악뮤지컬집단 타루 '판소리 애플그린을 먹다'의 2015년 시리즈.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의 배경을 과자마을로 옮겨왔다.

일시 7월 16일(목)~19일(일) 평일 오후 8시, 주말 3시
장소 구로아트밸리 예술극장
관람료 전석 2만 5천원
문의 02-6481-1213

17
FRI

예술가와 함께 하는 1박 2일

금천예술공장 입주작가와 청소년들이 함께 하는 예술 캠프.

일시 7월 17일(금)~18일(토)
장소 금천예술공장
참가비 무료
문의 02-827-4800

소액다کم 자유발표의 날

홍대 앞 젊은 예술가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는 작은 예술지원사업 <소액다کم> 1차 선정자들이 자신의 프로젝트에 대해 발표하는 시간을 갖는다.

일시 7월 17일(금) 오후 5시~
장소 서교예술실험센터 1층 예술다방
참가비 무료
문의 02-333-0246

홍대 거리미술전

홍대 앞 거리와 서교예술실험센터를 중심으로 다채로운 벽화와 공공미술을 선보인다.

일시 7월 17일(금)~24일(금)
장소 홍대 걷고싶은 거리 일대·서교예술실험센터 곳곳
관람료 무료
문의 02-333-0246

오페라 <봄봄>

김유정 작, 동명의 소설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창작 오페라. 전통 놀이판과 서양 오페라의 장르적 융합을 통해 우리 특유의 색깔을 담았다.

일시 7월 17일(금)~18일(토) 금 오후 7시 30분, 토 5시
장소 마포아트센터 아트홀 맥
관람료 R석 3만 원, S석 2만 원
문의 010-6357-3346



무용 <휴먼프로젝트 2>

인간의 '존재'라는 근원적 문제에서 이 작품은 시작한다. 안무가, 출연자, 관객이 모두 함께 각자의 인생을 돌아보는 프로젝트.

일시 7월 17일(금)~18일(토) 금 오후 8시, 토 5시
장소 서강대 메리홀 소극장
관람료 미정
문의 010-9028-8004

18
SAT

바스락콘서트

시민청 예술가 '노이지 보이즈'가 무대에 올라 예술가에게 꿈, 시민들에게 문화를 선물한다.

일시 7월 18일(토) 오후 3시~4시 30분
장소 시민청 바스락홀
관람료 무료
문의 02-739-0057

누구나 예술가 <은빛 작은 잔치>

누구든 예술가가 되어 춤과 노래를 배우고, 나만의 재미난 소일거리를 만들어보는 프로그램. 2개월간 준비한 어르신들의 잔치가 펼쳐진다.

일시 7월 18일(토)~19일(일) 오후 1시~6시
장소 시민청 이벤티홀
참가비 무료
문의 02-739-5811



'좋아서' 예술동아리 개별공연 II

2015년 '좋아서' 예술동아리 선정 단체인 '한여름밤무대위'가 시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연극을 선보인다.

일시 7월 18일(토) 오후 2시~4시
장소 국립한글박물관 지하 1층강당
관람료 무료
문의 02-3290-7043

중앙국악관현악단 <애들아 놀자>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국악관현악 콘서트. 교과서에 등장하는 친숙한 곡으로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일시 7월 18일(토) 시간 미정
장소 금나래아트홀
관람료 미정
문의 010-2059-1419

20
MON

전시 <Stand abreast-옆으로 나란히 서다>

자신의 치열하게 삶을 살아온 작가 일곱 명이 모였다. 현대 사회에서의 '관계맺음'에 대해 이야기하는 전시.

일시 7월 20일(월)~30일(목) 오전 10시~오후 6시
장소 성북예술창작센터 2층 갤러리 맺음
관람료 무료
문의 02-943-9300

21
TUE

2015 '바람난 미술' 찾아가는 전시

아트캠페인 '바람난 미술' 참여 작가들의 작품이 시민들을 찾아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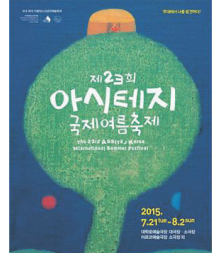
일시 7월 21일(화)~8월 2일(일) 오전 9시~오후 9시
장소 서울도서관 곳곳
관람료 무료
문의 02-3290-7144



제23회 아시테지 국제여름축제

국내 최대 아동청소년 공연예술축제 '아시테지 국제여름축제'가 한국-스페인 수교 65주년을 기념해 스페인 주관을 선보인다. 총 9개국 13편의 다채로운 작품을 선보일 예정.

일시 7월 21일(화)~8월 2일(일)
장소 대학로 예술극장·아르코예술극장·마로니에공원
관람료 전석 3만 원 ※ <디스, 댓 1> 2만 원
문의 02-745-5862~3



23
THU

전시 <놀이시작>

재개발 지역의 소외된 공간에 대안적 문화예술 공간을 조성하고 시각예술을 통해 문화적 감성 교류와 소통, 공감으로 나아가는 전시. 어린이와 시민, 작가가 모두 참여해 다양한 시각을 보여준다.

일시 7월 23일(목)~9월 30일(수) 오전 10시~오후 6시, 월 휴관
장소 성동구 금호동 1가 1787-1
관람료 체험관람 2만 원, 일반관람 5천 원
문의 02-562-4420

찾아가는 공명콘서트 <해바라기>

월드뮤직그룹 '공명'이 찾아가는 기획공연을 진행한다.

일시 7월 23일(목) 시간 미정
장소 은평구 복지단체
관람료 무료
문의 010-4199-5021

24
FRI

힐링프로젝트 '마음' 전시 <시시각각>

시시각각 변화하는 자연을 느낄 수 있도록 구성된 미디어 아트 전시.

일시 7월 24일(금)~, 오전 9시~오후 9시
장소 시민청 소리갤러리
관람료 무료
문의 02-739-5811

시민청 아트페스티벌 <컴패션 기획체험전시>

국제 어린이 양육기구 '한국컴패션'과 함께하는 기획·체험 전시.

일시 7월 24일(금)~8월 6일(목) 오전 9시~오후 9시
장소 시민청 시민청갤러리
관람료 무료
문의 02-739-5810

시민청 아트페스티벌 <서울, 마주보기>

시민청 아트페스티벌의 화려한 막이 오른다. 다양한 장르의 개막 퍼포먼스를 만나보자.

일시 7월 24일(금)~8월 4일(화) 오전 9시~오후 9시
 ※ 개막 퍼포먼스 7월 24일(금) 오후 2시~6시
장소 시민청 활짝라운지·시민플라자·시민청갤러리
관람료 무료
문의 02-758-5810

젊은 예술가들의 모든 만남 <일곱 번째 라운드 테이블>

홍대 앞 젊은 예술가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지속적인 교류의 장을 만들고자 마련한 라운드 테이블. 매월 넷째 주 금요일 진행.

일시 7월 24일(금) 오후 5시~
장소 서교예술실험센터 1층 예술다방
참가비 무료
문의 02-333-0246

어린이 공연 <무적의 삼총사>

월간 <한국연극> 공연 베스트 7(2009년)에 손꼽히는 학전의 어린이 공연 <무적의 삼총사>가 무대에 오른다. 학교폭력에 대항하는 초등학생들의 이야기.

일시 7월 24일(금)~8월 23일(일) 평일 오후 3시,
 토 1시·4시, 일 3시, 월 공연 없음
장소 대학로 학전블루 소극장
관람료 어린이 1만 3천 원, 성인 2만 2천 원
문의 02-763-8233



힙합인 조르바 '빠'들의 불편한 동거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힙합인 조르바(원제 '알렉시스 조르바의 삶과 시간')>가 연극으로 무대에 오른다.

일시 7월 24일(금)~25일(토) 금 오후 7시, 토 3시·7시
장소 서대문문화회관 소극장
관람료 전석 1만 5천 원
문의 02-358-5449

타악기와 함께하는 피아노 칸타빌레

오케스트라의 영역으로만 간주되던 피아노 칸타빌레를 타악 연주로 만나보자.

일시 7월 24일(금) 오후 7시 30분
장소 영산아트홀
관람료 R석 3만 원, S석 2만 원
문의 02-875-6765

노화(老花)-조화(吊花)-진화(進化)프로젝트

작가 개인의 경험에서 시작된 이 프로젝트는 인간의 삶 속 노(老), 병(病), 사(死)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일시 7월 24일(금)~8월 8일(토)
장소 스페이스 오뉴월
관람료 무료
문의 070-4401-6741

25
SAT

토요일은 청이 좋아 <공감 콘서트>

매 월 마지막 주 토요일엔 시민청이 좋다! 시민청 '아트페스티벌'과 함께 펼쳐지는 이번 공연은 마술 퍼포먼스로 채워진다.

일시 7월 25일(토) 오후 3시~5시
장소 시민청 일대
관람료 무료
문의 739-5818

시민청 아트페스티벌 <방학숙제 하는 날>

감상문 쓰기, 민화 그리기와 공병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을 통해 방학숙제까지 끝낼 수 있는 일석이조 프로그램.

일시 7월 25일(토)~26일(일) 오전 9시~오후 9시
장소 시민청 시민플라자
참가비 무료
문의 02-739-5811

열한 번째 <304 낭독회>

세월호에서 돌아오지 못한 이들을 기억하기 위해 작가와 시민들이 함께 만드는 낭독회.

일시 7월 25일(토) 오후 4시~6시
장소 연희문학창작촌 야외무대 열림
참가비 무료
문의 02-324-4600



정진화 <COMPASS-EXPO>

문래예술공장 유망예술지원사업 MAP 음악/사운드 분야 선정예술가 정진화의 앨범 발매 기념 쇼케이스.

일시 7월 25일(토) 시간 미정
장소 문래예술공장 박스씨어터
관람료 미정
문의 02-2676-4333

전시 <먼로풍(Monroe風)>

도심의 고층 빌딩 사이에서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돌풍을 지칭하는 '먼로풍'을 주제로 바람의 궤적이 새겨진 평면 작품과 영상을 선보인다.

일시 7월 25일(토)~30일(목) 오전 11시~오후 7시

장소 서교예술실험센터 지하 1층 다목적실

관람료 무료

문의 02-333-0246

관악명랑방석극장 <그림자야 놀자>

온 가족이 함께하는 관악명랑방석극장은 인형극·연극·음악극 등 다양한 우수 작품을 공연한다. 이번 달에는 버려진 물건들의 이야기를 전래동화 속 도깨비 이야기로 풀어본 그림자극을 선보인다.

※홈페이지 예약 필수

일시 7월 25일(토) 오후 2시·4시

장소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 1층 '발'

참가비 3천 원

문의 02-871-7400



2015 PLAY-UP 아카데미 정규과정 #4

현장 연극인의 창작 역량을 키우는 재교육 프로그램. 7월에는 신체행동과 움직임에 관한 꾸준한 연구를 하고 있는 연출가 강량원(극단 동 대표)의 '신체행동으로 설계하는 연기기술'을 선보인다.

일시 7월 27일(월)~8월 17일(월) 매주 월·수·금

오전 10시~오후 1시

장소 서울연극센터 아카데미룸

참가비 무료

문의 02-743-9331



29
WED

<쇼팽의 연인(Drama Reading with Piano Concert)>

일상 속 문화예술을 통한 삶의 여유를 선사하기 위한 수요일 아침 콘서트. 쇼팽의 피아노곡을 선보인다.

일시 7월 29일(수) 시간 미정

장소 서대문문화회관 소극장

관람료 전석 5천 원

문의 010-6803-2145

26
SUN

코리아목관앙상을 정기연주회 <아리랑>

목관악기의 아름다움을 알리고자 2005년 창단한 코리아목관앙상블이 정기연주회를 진행한다.

일시 7월 26일(일) 오후 8시

장소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

관람료 R석 1만 5천 원, S석 1만 원

문의 010-5482-9039

27
MON

원예힐링 프로그램 <쁘띠 풀놀이>

장애아동에게 다양한 체험을 통해 사회적·정서적·신체적 발달을 지원하는 원예힐링 프로그램.

일시 7월 27일(월)~8월 31일(월)

장소 잠실창작스튜디오

참가비 무료

문의 02-423-6674



연극 <달빛>

2015 조선일보 신춘문예 희곡 부문 당선작 <달빛>(남은혜 작가, 김정근 연출)이 무대에 오른다. 신춘문예 단막극제를 통해 첫선을 보였고, 초연을 바탕으로 수정을 거쳐 완성된 작품이 감동을 선사한다.

일시 7월 29일(수)~8월 1일(토) 시간 미정

장소 성수아트홀

관람료 미정

문의 02-6402-6328

30
THU

<모 아니면 도>

창작국악팀 '재비'의 젊은 국악과 역동적인 무대를 만나본다. '흥'으로 가득 찬 전통의 즐거움을 선사할 것이다.

일시 7월 30일(목)~31일(금) 시간 미정

장소 노원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관람료 미정

문의 010-8576-3445

정리 김태희 서울문화재단 홍보팀

신나는 예술, 즐거운 기부! Mr. Gibro 돼지저금통



시청앞 돼지풍선 '미스터 기부로'가 돼지저금통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저금통을 가득 채워 보내주는 분들께는 1+1의 특별한 혜택까지!

한층 더 귀여워진 미스터 기부로를 지금 텐바이텐에서 만나보세요.



저금통 안 금액은
문화소외계층을 위해
기부됩니다.

보드마카로
나만의 기부로를
만들 수 있어요~!

어디서???

텐바이텐 온라인몰
www.10x10.co.kr
에서!!



텐바이텐과 미스터기부로가 함께하는 예술후원 프로젝트 100!

- 100일간 기부로 저금통을 9,900원에 분양합니다.
- 미스터 기부로를 응원하는 메시지 1개당 100원씩 문화소외계층을 위해 기부됩니다.
- 여러분이 보내주신 기부로 저금통 100마리가 모여 서울시청 앞에서 또다른 예술작품으로 태어납니다.



[문화+서울]은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좀 더 나은 [문화+서울]을 만들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가장 좋았던 기사나 지적하고 싶은 점, 제안하고 싶은 것들, 어떤 의견이든 서슴치 말고 엽서에 적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을 주신 한 분께 **서울문화재단에서 준비한 소정의 기념품**을 보내드립니다.

1. 어디에서 [문화+서울]을 만나셨나요?
2. [문화+서울]에서 가장 흥미롭게 읽은 기사는 무엇인가요?
3. [문화+서울]에서 다뤄주셨으면 하는 내용이나 주제는?
4. [문화+서울]이 보강하거나 개선해야 할 점을 말해주세요.
5. 그 밖에 [문화+서울] 편집부에 하고 싶은 말씀을 적어주세요.

후원 후원자

이름: 성명: 성별: ☐ 남 ☐ 여

직업: 나이: 서울문화재단 회원: ☐ 예 ☐ 아니오

주요 관심 분야:

본지 기사를 보신 후 가장 흥미로운 기사를 3가지로 선택해주세요. (필수)

1. 어디에서 [문화+서울]을 만나셨나요?

2. [문화+서울]에서 가장 흥미롭게 읽은 기사는 무엇인가요?

3. [문화+서울]에서 다뤄주셨으면 하는 내용이나 주제는?

4. [문화+서울]이 보강하거나 개선해야 할 점을 말해주세요.

5. 그 밖에 [문화+서울] 편집부에 하고 싶은 말씀을 적어주세요.

후원 후원자

이름: 성명: 성별: ☐ 남 ☐ 여

직업: 나이: 서울문화재단 회원: ☐ 예 ☐ 아니오

주요 관심 분야:

본지 기사를 보신 후 가장 흥미로운 기사를 3가지로 선택해주세요. (필수)

1. 어디에서 [문화+서울]을 만나셨나요?

2. [문화+서울]에서 가장 흥미롭게 읽은 기사는 무엇인가요?

3. [문화+서울]에서 다뤄주셨으면 하는 내용이나 주제는?

4. [문화+서울]이 보강하거나 개선해야 할 점을 말해주세요.

5. 그 밖에 [문화+서울] 편집부에 하고 싶은 말씀을 적어주세요.

1. 국립중앙박물관 극장 용에서 배부되는 것을 보고 읽게 되었습니다!
2.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에 관한 '테마토크' 부분이 제일 흥미로웠습니다. 앞으로의 행보가 기대됩니다!
3. 문화예술 분야와 관련된 책이나 영화, 혹은 각 달의 주제 및 테마에 어울리는 책, 영화 등을 소개해주는 섹션이 생긴다면 독자들이 주제적이면서도 심층적으로 알아나갈 수 있는 가이드 역할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요?
4. 소개·설명해주는 사업 등에 대한 제3자, 일반인들의 의견도 함께 실어주신다면 다양한 시각을 알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 몇 달째 꾸준히 읽고 있는데 항상 알차고 유익한 내용들로 꽉꽉 채워주셔서 이 한 권을 읽는 시간이 참 즐겁고 행복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내용으로 만날 수 있도록 응원할게요. 서울문화재단 파이팅!!!

이수연 님

1. 어느 주말, 서울도서관에 들러 책에서 나오는 그윽하고 지적인 향기에 취해 있었죠. 간행물실 입구 한 평 남짓한 안내데스크에서 [문화+서울]을 첫 대면 했습니다.
2.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에서 한국형 서커스로 서커스 예술을 재검립하면서 개발하겠다는 기사는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호감 가는 정보였습니다.
3. 경기도 수원 행궁동 레지던시는 철거 예정인 빈 건물을 예술가들이 공동 창작공간으로 만들었고, 경북 상주에 있는 미술관 '세창주유소'도 폐허 양조장에서 미술관으로 탈바꿈되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빈집에서 갱생된 예술공간이 있으면 소개해주세요.
4. 타 시도에도 배포를 많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5. 많은 사람들이 잠깐의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 스마트폰과 열애를 하는 안타까운 세상입니다. [문화+서울]에서는 나를 해방시키고 내면에 귀 기울여 가장 나다운 나로 돌아가게끔, 아름다운 정서 많이 심어주셔야 합니다.

신승남 님

편집 후기

누구나 인정하는 스타를 향해 누군가 외쳤습니다.
"그녀는 에이스가 아니다!" 응서할 것인가...
별할 것인가... 뜨거운 논쟁 중.

이규승 | 서울문화재단 홍보팀장

한동안 서울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메르스가 완전히 물러나려면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다고 하던데, 모두 지치지 말고 긴 시간을 함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정연 | 서울문화재단 홍보팀 차장

20년 전 삼풍백화점 사고 뉴스를 처음 접한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런데 '메모리인(人)서울프로젝트'를 거듭 다루며, 제가 기억하는 것은 비극이 아닌 '사건 이미지'였다는 것을 알았지요. 기억과 기록의 중요성을 새삼 느끼는 때입니다.

이아림 | 오니트(주) 편집부

[문화+서울]을

사향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지는 무가치로 발간되므로 별도의 구독 요청이 불가합니다.

[문화+서울] 웹진 (www.sfac.or.kr/munhwaplusseoul)에서 매달 업데이트되는 기사를 편리하게 만나시거나, 주요 배포처에 방문하셔서 비치된 잡지를 무료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주요 배포처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 국립극장, 국립중앙박물관 극장 용, 금천예술공장, 남산예술센터, 남산창작센터, 동숭아트센터, 두산아트센터, 몽앤몽, 문래예술공장, 백암아트홀, 상명아트센터, 서교예술실험센터, 서울도서관, 서울문화재단, 서울시 자치구청 문화체육과, 서울시 자치구 문화재단 및 문화원, 서울시립미술관, 서울연극센터, 성북예술창작센터, 시민청, 신당창작아케이드, 아르코미술관, 연희문화창작촌, 잠실창작스튜디오, 정동극장, 중랑아트갤러리, 한국공연예술센터, 한전아트센터, 흥은예술창작센터, KT&G 상상마당, LG아트센터 등

남산예술센터
2015시즌프로그램

이리삼 10

오만
시각문화
재단
서울문화재단

광자는 쌍년입니다.

남산예술센터 드라마센터

2015.7.9^{THU} ~ 26^{SUN}

평일 8pm 토요일 3pm, 7pm 일요일 3pm (월요일 공연없음)

작·연출 장우재 출연 김정민 이기현 정은경 김동곤 박무영 강진휘 김선혜 김동규 이동혁 강선애 심원석 전영서 허균

드라마티그 조만수 김주연 무대 박상봉 조명 김창기 의상 오수현 음악 조선희 안무 금배설 분장 정경숙 조연출 최윤희 그래픽·사진 김슬 주최 서울특별시 주관 서울문화재단 이리삼 제작 남산예술센터 이리삼

예매 남산예술센터 인터파크 대학로티켓닷컴

문의 02.758.2150



테마 토크

인큐베이팅을 넘어 세계로

사람과 사람

팟캐스트 〈동대문〉 녹음한 배우 문성근

진실 혹은 대담

메모리인(人)서울프로젝트 ‘서울의 아픔, 삼풍백화점’을 말하다

쟁점 1

초등생의 ‘잔혹동시’ 논란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

쟁점 2

인디스페이스와 부산국제영화제 지원금 삭감 논란

화제

2015 서울예술교육포럼 ‘노년의 삶과 문화예술교육’

공간 1

연희문화창작촌 ‘이웃문화다방’

공간 2

젊은 예술가들의 질문이 모이는 프로젝트 공간 ‘구탁소’

7월의 서울문화매뉴얼